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엠티)

성경: 엠티:1-2

목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알려 주는 것,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려고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성경의 많은 책들 강해, 올해에는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등을 강해하려 한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강해,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에서 유래하였다(1:1).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동서 무역이 활발하여 윤택했으며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행19:21-41). 에베소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고 유대인들도 얼마쯤 있었다. 바울은 여기서 사역을 잘 완수하였으나(행19; 20:17-38) 이교도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주제: 교회의 소명과 성도들의 합당한 행위, 목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 유업의 영광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에베소서는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으며 바울은 자신이 회심시킨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 면에서 굳건히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특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엄청난 규모의 다이애나 신전을 항상 접하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즉 그분이 모퉁잇돌이 되는 건물이 그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중요함을 보여 줄 필요를 느낀 사도는 건물의 비유를 사용하여 이것을 훌륭하게 묘사한다(2:19-22). 에베소서는 은혜, 영원한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화평과 용서, 효능이 넘치는 은혜의 능력에 의한 회심,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교회의 신비, 성도들의 생활 등과 같은 중요한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에베소서는 6장, 155절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핵심 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1:3)

에베소서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1:22; 5:23)

영적 교훈: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라.

에베소

행18:19부터 계2:1까지 총 17회 나옴

이곳은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중심지이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래서 이곳은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이교도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며 이곳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다이애나 신전(행19:35)이 있었고 황제 숭배와 신비 종교, 마술 등이 성행하였다. 또한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자유 도시로 자유로운 상거래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곳이었다. 그러나 에베소가 얻은 명성은 이교도들의 문란한 종교 의식과 어디서나 행해지는 부도덕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졌고 결국 그곳은 향락과 퇴폐의 도시로 몰락하였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곳에서 직접 2년 이상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목회하기도 했다(행18-20 참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눈물로 경고하며 세운 교회로서 영적으로 활기에 넘친 교회였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만이 유일하게 사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했으며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보여 주었다. 4개의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회당도 있었다(행18:19; 19:17).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러 얼마동안 전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 두고 떠났고(행18:21) 3차 선교 여행 때에 다시 이곳에 들러 오래 체재하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행19:10).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을 여기에서 보내며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밧모 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뒤 다시 이곳에 왔다가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동시에 엄숙한 경고를 주시기도 했다(계 2:1-5). 에베소 교회는 600년 정도 지속되었고 그 뒤에 마리아 숭배 등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어 결국 그곳의 등잔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게 되었다. 부유하던 이 도시는 우상 숭배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항구는 역병이 들끓는 늪지가 되고 말았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2년 이상 목회한 교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염려가 잘 드러나 있다.

위어스비, 메인 아이디어, 맥아더, 매튜 헨리 등의 주석

에베소서 개관

바울 서신의 특징: 앞부분 교리, 뒷부분, 성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I. 교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복(1-3장)

A.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복(1:4-14)

1. 아버지로부터(1:4-6)
2. 아들로부터(1:7-12)
3. 성령님으로부터(1:13-14)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명을 요청하는 첫 번째 기도(1:15-23)

B.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2:1-22)

1. 죄들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짐(2:1-10)
2. 화해하게 되어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감(2:11-22)

강건함을 요청하는 두 번째 기도 3장 (2-13은 괄호 부분)

II. 의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책임(4-6), 이것이 성화이다

A. 하나 됨 안에서 걸어야 한다(4:1-16)

B. 순결함 안에서 걸어야 한다(4:17-5:17)

1. 이방인들처럼 걸으면 안 된다(4:17-32)
2.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한다(5:1-6)
3. 빛의 자녀로서 걸어야 한다(5:7-14)
4. 조심해서 걸어야 한다(5:15-17)

C. 조화를 이루며 걸어야 한다(5:18-6:9)

1. 남편과 아내(5:18-33)
2. 부모와 자식(6:1-4)
3. 주인과 종(6:5-9)

D. 승리 속에서 걸어야 한다(6:10-24)

여러 가지 주제

1장: 선택과 예정, 구원과 구속, 교회와 이스라엘, 양자 삼으심, 성령님의 봉인과 보증, 상속 유업, 지혜와 계시의 영, 2장: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 은혜, 긍휼, 믿음, 이방인, 성전, 3장: 신비, 청지기직, 속사람, 하나님의 권능, 영광, 4장 하나 됨, 한 몸, 영적 선물, 목사, 복음 전도자, 노동관, 5장 죄와 구원, 성령 충만, 결혼, 6장 부모 공경, 노사 관계, 영적 전쟁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일곱 가지 영적인 복(엠펜)
구약의 복을 신약의 복으로 착각하지 말라

성경: 엠펜1:1-3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강해 시작, 지난 주 에베소서 전체 개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직접 목회한 교회(행19:9)
AD 62년경,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들과 함께하던 시절을 생각하며 에베소서를 기록함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교회, 성도의 성화와 영적 싸움 등 여러 주제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한 가장 심오한 내용을 품고 있다. 성도의 정체성
오늘 < >, 하나님의 뜻, 신약 시대 성도들의 복
목표가 올발라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남의 복을 내 복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사도와 하나님의 뜻(1)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한다.

사도는 누군가에 의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송을 받은 사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파송됨
신약 교회의 초기에는 열도 사도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있었다.

사도의 조건 행1,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 사도의 표적들(고후12:12)

지금 이런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100% 거짓 사도이다.
그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참으로 어렵고도 귀중한 표현인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 신약성경 23회
예수님을 믿은 뒤 대다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한다.

당연하고 좋은 일이다.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이 직접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원 등이 번창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직접 음성이나 계시로 알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는 직접적인 뜻이 있고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혼, 직장, 이사, 진학 등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릴 결정에 관한 것(허용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 받으러 다닌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 일언반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

골수 유대교 랍비, 나중에 공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가말리엘의 문하생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

목적 딤펜1:12-13, 16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의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도로 생활하며 늙은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조망해 가면서 쓸 수 있는 말이다.

2-30대 목사,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런 것은 망발이다.

지금 바울과 같이 30여 년 동안 복음 선포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말

롬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도 마찬가지, 남을 위로할 때는 OK, 그러나 나에게
적용하려면 죽을 때 가서 해야 하는 말이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과 신실한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성도, saints, 신구약 성경의 구원받은 자들, 원래 뜻, 거룩히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로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다른 부류가 아니다. 히브리식 표현, 같은 것을 반복할 때 쓰인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이런 뜻으로 보면 좋다.

신실하다는 것은 매우 좋은 말이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 믿음직하다는 말, 믿음에 국계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성도들의 특징이다.

은혜와 화평(2)

은혜와 화평, 은혜는 에베소서에 12번, 여기서는 매일 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히4:16) 은혜의 왕좌로 들어간다(히4:16).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고전1:4; 3:10)

화평, 평안함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요14:27)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면 은혜와 화평이 넘친다. 에스라 성경 사전(*)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3)

이제부터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복을 이야기한다.

그 복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다.

하늘의 처소들(엡1:3; 20; 2:6; 3:10), 총 4번, 우리의 위치(2:6)

우리의 복: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지난 60년 간 믿음 생활, 여러 교회를 다녔다.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 잘 살아 보세, 조용기 목사 등의 오순절 순복음 운동, 로버트 솔리의 긍정적인 삶, 베니 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 행복의 힘, 최고의 날은 오늘, 최고의 삶은 지금(*)

핵심: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지금 잘 된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복은 다 물질적인 복, 땅에서 잘 되는 것, 사업, 자녀, 재산, 학교, 공부, 결혼, 이사, 진급

금요일 저녁 한 분의 이야기

하나님은 복을 담고 있는 저수지, 저수지에서 파이프가 내게로 연결되어 있어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복이 쏟아져 들어온다. 교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수도꼭지 트는 것을 알려주는 일 대개 교회에 충성해라.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 새벽기도, 주일 성수, 십일조, 모든 모임 참석 이러다 보니 일주일의 대부분을 교회에 가서 살아야 한다. 주차 봉사, 성가대 등등, 주일이면 새벽 4시부터 종일 뛰어다녀야 한다.

다 나쁘고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복 파이프의 수도꼭지를 틀기 위해 그런 일을 하라고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잘못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교회에 다니면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까?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보지 못한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땅의 백 성과 하늘의 백성

주전 1500년경,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출19:5-6,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

당시 이교도들의 세상, 더럽고 가증한 우상 숭배,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것들, 동성애, 낙태, 수간, 근친상간 등 인간이 해서는 안될 일을 행함, 결국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냄(레18:28; 20:22)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눈으로 보고 이것들이 몸에 뱀, 모세가 40일 부재(출32),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 이집트의 아피스 황소 숭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들을 통해 메시아를 내려 하신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이교도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내가 기록하니 너희는 기록할지니라(레11:45).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이 소유하지 않은 율법을 주신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규례와 법규들을 주신다. 할례, 희생 제물 의식, 심지어 음식까지도 이교도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지키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당근이 필요했다.

또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복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육체적, 물질적 복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다. 1-14, 1-6, 9-10

또한 유대인들을 명석하게 하셔서 세상 어디에 가든지 인간적인 분야, 세상적인 분야에서 뛰어나게 하셨다. 전 세계의 모든 과학, 음악, 문화, 심지어 정치 등에서 유대인들이 뛰어나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새 상속 언약 즉 신약 시대를 여셨다. (*)

이 신약 시대는 에베소서 1장의 내용처럼 유대인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시대

교회(이들은)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

그러면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마5장의 8복, 모두가 유대인들 대상, 그럼에도 내용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온유한 자들의 땅을 상속받는 것은 천년 왕국의 복, 땅은 지구를 말한다.

6:33이 핵심 포인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마16:24, 마10:37-38, 마19:27-29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라. 고후1 1, 우리가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딤후3:12

오해하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중세 천주교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영국(영연방 국가),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다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다 잘 사는 나라들

사도 바울의 교리(살후3:10-12).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국민들 대다수가 근면하다. 잘 산다.

가장 못사는 나라들, 천주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국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에게 구약처럼 순종하면 물질의 복, 자녀의 복(땅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다만 100% 확실하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

그것은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그래서 골3:1-2를 기억해야 한다.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적인 복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복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수십 개가 넘는다.

1. 죄들의 용서(엡1:7)
2. 칭의(롬5:1)

3. 영존하는 생명(요3:16), 부활과 휴거
4.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벧후1:4), 영화롭게 되는 것
5.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롬8:17)
6.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믿음(요일5:4),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
7. 은혜의 왕좌에 마음 놓고 나가 기도하는 것(히4:16)

<https://truediscipleship.com/spiritual-blessings-in-christ-jesus/>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의 원천과 통로(3)

2절에 보면 복의 원천이 나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마귀의 모든 계략, 사악한 인간들의 모든 방해,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

이 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성령 하나님의 봉인: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4:30)

결론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받는 복

이 복을 받는 통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한 적이 있는가?

없으면 이 시간 신뢰하기 바란다.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물질의 복, 장수의 복도 더해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창세 전 선택과 예정의 의미: 칼빈주의는 인간이 만든 오류이다(엠큐)

성경: 엠큐1:3-7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경,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하던 시절을 생각하며 기록한 옥중 서신이다.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교회, 성도의 성화와 영적 싸움 등 여러 주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한 가장 심오한 내용을 품고 있다.

지난주,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차이 설명

요약: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에게 구약처럼 순종하면 물질의 복, 자녀의 복(땅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다만 100% 확실하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

그것은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3)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복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수십 개가 넘는다.

1. 죄들의 용서(엠큐1:7)
2. 칭의(롬5:1)
3. 영존하는 생명(요3:16), 부활과 휴거
4.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벧후1:4), 영화롭게 되는 것
5.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롬8:17)
6.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믿음(요일5:4),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
7. 은혜의 왕좌에 마음 놓고 나가 기도하는 것(히4:16)

오늘 < >, 대단히 중요한 주제, 칼빈주의 함정과 오류: 장로교, 개혁신학 하시는 분들의 큰 오해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 교리 설교(엠큐4:14)

하나님의 계획(4-7)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3), 이것들은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며(4)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다(7). 4절 이후는 'according as'라는 구로 묶여 있다.

4-7절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혹은 계획 안에는 1. 우리를 택하시는 것(4), 2. 예정하시는 것(5), 3. 받아주시는 것(6), 4.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쉬지 않고 글을 써 내려 간다. 그러다 보니 숨이 막힐 정도로 긴 문장이 나온다. 엠큐1:3-14절, 원래 그리스어로 한 문장, 총 200 단어가 넘는다. 핵심: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창세 전에.

칼빈주의 오해: 선택과 예정 설명(4-6)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4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5 자신의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

3-6절 전체적인 의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4-6절에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여기의 '우리'(총5회)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4절을 이용하여 이 사람들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자기들의 의지나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한다.

4절: 무심코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건 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보인다. 우리가 택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문맥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칼빈의 주장을 들어보자(*). 이중 예정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을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받아 구원으로 예정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받아 영원한 정죄로 예정된다.

이 일은 세상의 창건 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다.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가?(4)

성경에 '선택하다', '택하다'는 말이 나오는가? 나온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선택하다', '택하다'는 말은 칼빈이 이야기한 의미가 전혀 아니다.

4절을 자세히 보기 바란다. (*)

1. 하나님께서 우리(구원받은 자들)를 택하셨다. 개개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룹을 택하신다.

2. 택하신 목적은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즉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든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받게 했다는 말이 아니다.

3.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4. 무조건적 선택에 의한 구원이 아니다.

여기의 선택의 대상: 우리, 즉 구원받은 자들이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아니다.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가?(5-6)

5-6절을 자세히 보기 바란다. (*)

1, 우리를 예정하사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정의 목적: 예정하사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신다(6절). 그런데 이런 찬양은 양자들만 할 수 있으므로 여기의 예정은 구원받는 자들이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2. 의문점, 우리는 구원받으면 무조건 양자가 되지 않는가? 맞는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한 사람이 양자가 된다. 그러면 그 순간 양자로 택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양자의 모든 권리(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권리)는 그가 장성한 뒤에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를 자기 아들이라고 선언할 때 주어진다.

롬8을 보자.

14-15절(*), 구원받으면 양자 삼으시는 영 즉 성령님을 통해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양자로서의 모든 권리는 나중에 공개적으로 선언이 되어야 얻을 수 있다.

그 일은 언제 생기는가? 8:23(*), 우리 몸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 부활 혹은 휴거를 받아 우리의 혼과 영이 우리의 몸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날, 그 날 우리는 진정으로 양자의 모든 권리, 즉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8:17).

그래서 엡1:5-6에 나오는 예정은 구원받은 우리가 전적으로 양자로서의 상속 권리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의미이지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선택하여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4-6절 총정리

1. 하나님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신다.

2. 하나님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정하셔서 그들이 양자로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아 자신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신다.

3.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고 예정하는 것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 있던 계획이다. 결코 임시방편 계획이 아니다.

4.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되도록 택하시고 예정하셨지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의지나 믿음에 상관없이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3-6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1. 3절과 4-6절을 떼어서 읽으면 안 된다. 전체를 보아야 한다.
2. 여기의 '우리'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여기의 '우리'는 13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다. (*) 복음이 제시될 때 듣고 신뢰한 자들이다. 믿은 자들이다.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단순히 은혜로만 구원받지 않는다. 엡2:8을 보라. (*)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3. 전체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지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1. 칼빈주의자들이 무조건적 선택 및 예정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삭제하려는 단어가 4절에 들어 있다. (*)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4절을 보자.

우리는 4절대로 세상의 창건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믿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무시하고(간과하고) 무조건적으로 창세 전에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는 것만 강조한다. 그래서 고의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다.

'그리스도 안에'의 중요성

바울은 엡1:1-13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자그마치 11번이나 한다(1, 3, 4, 6, 7, 10(2번), 11, 12, 13절에서 2번)

- 1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 4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 5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
-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주셨고
- 7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 8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 9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 10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 11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 12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in whom, in Christ)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면 에베소서 1장의 해석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

에베소서에는 전체적으로 무려 40번 이상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면 에베소서 해석이 안 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는다. 거룩한 자들이 된다. 최종적인 양자가 된다.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가?

답은 1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14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사람 편에서 구원받는 순서이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은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봉인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

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 사람 아담 안에 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죽는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아담 안에 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은 뒤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다.

즉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창세 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후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골1:13-14,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였다는 말이다. 이렇게 믿은 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3절에 있듯이 복음이 제시될 때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In Christ(38), In Jesus Christ(4), In Christ Jesus(40), In Jesus(3), 총 85회, 바울 신학의 최고봉

어떤 사람들의 반론

그런데 왜 세상의 창건 전에 택하셨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느냐?

1.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떻게 바울이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2. 계13:8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분이시다.

3. 개역 오역: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론

엡1장 3절의 복, 즉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2:6). 그런데 이것은 임시방편 계획이 아니라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 있던 것이다.

롬11:33-34

그 계획에는 1.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들어 있다.

2.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들어 있다.
3.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행4:12).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4. 이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신뢰하였는가?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과 자유 의지: 칼빈주의 함정을 조심하라(엠편4)

성경: 엠편1:3-7

대다수 사람들은 교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거나 신경을 쓰지 않지만 교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딤후3:16-17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교리이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다. 여기에는 1:4-6절에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을 잘못 읽고 오해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개혁신교회가 주류, 칼빈주의가 대세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을 가르친다.

칼빈의 이중 예정(*), 기독교 강요 21장 5항

즉 엠편1:4를 잘못 이해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에 이르도록 정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극도의宿命론, 잘못되면 자만심, 행위 구원 등의 폐해가 나타난다.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 의롭지 못한 하나님, 이것은 복음 전파에 큰 방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 의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해야(구원시켜야) 그 뒤에 비로소 그는 믿을 수 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믿는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도록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이 있다. 그래서 전자(택자들)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100% 구원받고, 후자(비택자들)는 저항할 수 없는 정죄로 인해 100% 지옥 정죄를 받는다.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인간은 이미 짜인 각본대로 지금 살고 있다(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성경에 없다.

성경은 사람이 자유 의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요3:16).

구원받는 것과 관련 된 신약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 복음이 제시될 때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는다.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구절 100개, 믿어야 구원받는다. 요3:16 수백 구절: 회개해야 한다. 주님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을 부인하면 그는 자기 뜻이나 교회 목사나 교단이나 인간 스승이나 전통을 믿는 자이다. 눈먼 안내자 혹은 눈먼 안내자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 도랑에 빠진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이런 데서 떠나야 한다. 복음에 반응하여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사람 편에서의 구원 과정

지난 시간, 엠편1:4-6절의 택하는 것과 예정하는 것은 실제로 개개인의 구원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다시 설명한다. 구원받은 우리라는 사람들(그룹)에 대한 택함과 예정이다. (*), (*)

사람 편에서의 구원 과정 엠편1:13-14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기록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14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사람 편에서 구원받는 순서이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은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봉인된다.

오늘 < >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의 예지와 예정과 선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과정은 항상 동일하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예지, 예정, 선택은 구원과 관련될 것들이다.

1. 하나님의 예지(미리 아심), 예정, 선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들의 행적을 아신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 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을 미리 다 아신다.

가롯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미리 다 아신다.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다.

2. 구원의 복음이 개개인에게 전달될 때 어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것을 아신다.

3.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심을 통해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받을 자들로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4.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다. 미리 아심을 빼고 나머지만 말하면 안 된다.

5. 이렇게 구원에 관한 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 예정과 선택을 하시지만 역사(시간) 속에서는 각 사람이 믿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예지 구절

1. 벰전1:1-2, (*)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순서, 2절의 선택받은 자들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른 자들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선택되고 예정이 된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앞날을 미리 보시고 구별하셔서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2. 로마서 8장 28-30 (*)

28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의 우리는 성도들이다. 우리는 다 믿어서 성도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엡1:13).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29-30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들(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이 된다. 여기서 사실은 그룹이 예정된다. 개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다(29).

그리고 역사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 칭의, 성화, 미래의 영화(30)

그러므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한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아심이 가장 먼저 나온다.

하나님은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창세 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면 그들은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확실히 아는가?

1. 엡1:4의 4절의 우리는 19절의 믿는 우리와 동일하다.

2. 엡2:8, 9를 보라. (*)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도록 예정을 받는다(4).

그러므로 엡1:4를 읽고 칼빈주의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에베소서 1장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고 문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어떤 진리의 일부를 떼어서 그것을 그 진리의 모든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비진리가 된다. 자, 그러면 행13:48을 보도록 하자.

(*) 행13:48,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파이퍼, 맥아더 등 등: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만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한다. 벤전1:1-2, 롬8:28-30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 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드디어 때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믿고 구원받았다.

즉 사람들의 눈에, 성경 기록자 누가의 눈에 드디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이미 ordain되었다. 구원받는 자들의 반열에 이미 들어가 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시고 구원의 대열에 집어넣으셨으므로

클라렌스 라킨의 증언

선택과 자유 의지 편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예언 자체가 사람의 행위나 사건들을 미리 결정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했던 일을 반드시 하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일들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선견지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미리 아심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정죄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임의적이거나 강압적인 선택이 아니며 사람의 자유 의지와도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1850년 10월 28일에 태어날 것과 1869년 5월 어느 저녁에 YMCA 기도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아신 대로 그분께서는 필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정해 주시고 어린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제가 예술적 재주를 갖고 태어나 선도의 형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제시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목적을 위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을 받아 이처럼 성경에 대한 책들을 쓰고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제가 종교적 성향을 많이 갖고 태어났지만 자연적으로, 즉 나 자신의 내적 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며 제 밖에 있는 외부적인 힘, 즉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저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힘에 의해 저의 자유 의지에 역행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저의 소망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사람의 자유 의지는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자유 의지 문제: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행13:38)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며(행17:30)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간청해야 한다면(고후5:18-20),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진실한 약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택하셨으므로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의 후보자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다 구원받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다.”

결론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예지 예정 선택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 의지 믿음, 인간의 책임이 있다. 당신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였는가? 믿었는가? 불렀는가? 그리했어야 당신은 하나님 편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복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딤후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죄들의 용서를 얻었다(엡5)

성경: 엡1:7-10

지난 세 시간, 1.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3). 2. 이것은 창세 전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4). 그 계획은 a)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b) 우리를 양자로 삼으사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엡2:6)

바울은 흥분해서 엡1:3-14절, 원래 그리스어로 한 문장, 총 200 단어가 넘는 것을 단숨에 적어 내려간다.

오늘 < >,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현재 누리는 복, 구속, 죄들의 용서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3장에서 필요한 부분 인용

1. 성도들의 영원한 찬양 제목: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밧모섬에 추방된 자신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예수님은 아름다운 환상 속에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구속(救贖)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왕좌에 둘러서서 어린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노래의 기본 주제는 한마디로 구속이었습니다.

계5:9-10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할 주제가 많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자기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결코 또 다른 짐을 지지 않고 또 다른 고통을 맛보지 않으며 또 다른 두통거리를 갖지 않고 한순간도 아픔을 느끼지 않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궁전은 감격적인 한 가지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계5: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것을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늘에 있는 의(義)의 문을 지날 수 없습니다! 어린양의 피로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천국의 황금길을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거기 있으며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2. 구속의 필요성과 의미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얻는 구속(救贖)입니다. redemption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죄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죄들의 용서이다(7)
2.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3.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즉 우리의 죄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죄 문제 해결, 죄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상관이 있는 이 세 가지 기본적 이유를 깊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속'(redemption)이란 단어의 의미나 혹은 '구속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머릿속에 확립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구속하다'(redeem)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1. 되사다 또는 회복시키다(To buy back, or recover).
2. 몸값을 지불하다(To ransom).
3. 속죄하다 혹은 죄에서 구해 내다(To atone for, or deliver from sin).

예수님의 피로 얻는 구속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엡1:7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의 의미 조금 더 보충 설명

호수 근처의 조그만 마을에 사는 한 소년,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보트 모델을 만들어서 호숫가에 묶어 두고 타기도 함

그런데 폭풍우가 불어서 보트가 멀리 날아가 버림, 찾을 수가 없음, 깊은 슬픔에 빠짐, 매일 호숫가에 가서 찾으려 해도 발견하지 못함, 어느 날 마을 상점에 갔는데 자기 보트가 거기 전시되어 있음, 내 것이니 달라고 하자 주인이 어떤 어부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말함. 그러니 돈을 주고 그것을 살 수밖에 없음. 그 소년은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보트 값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보트를 사서 다시 자기 소유로 만들. “이제는 너는 두 배로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돈을 주고 너를 샀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심, 우리가 죄로 인해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 나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되사심. 이것이 구속이다.

구속이라는 말을 현시대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는 로마 제국, 삼분의 일이 노예, 노예 시장, 구속 이런 말을 바울이 쓰면 에베소 성도들을 쉽게 그 뜻을 이해했을 것이다.

3. 죄 때문에 구속을 받아야 한다.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묶이지 않았던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히4:15). 이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며 스스로 원해서 된 죄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에 묶여 있으며 죄에서 구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요8:31-36

이 말씀을 통해 죄의 종인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사로잡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 안에 있는데 “죄는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약1:15).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서 죽는다면 둘째 사망인 불 호수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계20:14; 21:8).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무기력한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으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가 몸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되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되살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닌 존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와 공평과 주권 속에서 죄가 오직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만 용서되고 사면될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17:11-12

당신은 오직 피만이 죄 많은 우리의 혼을 속죄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히9:22). 죄인의 피는 결코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피는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반드시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며(롬6:23) 죄에 속박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완전한 피를 흘리며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처녀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마리아를 통해 사람이 되었습니다.

3.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필요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관 속에 마리아의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물려받았다면 그분의 피는 죄로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자신의 아들이 기적적인 처녀 탄생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죄 없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 없는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하나님께서서는 이 기적을 신약에서 입증하셨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마1:22-23).

오직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더럽혀지지 않은 피를 가지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피를 지닌 채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죄로 더럽혀진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런 피로는 결코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피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혀 피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분의 처녀 탄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디한 박사, 외과 의사(*), '피의 화학적 성질', 최근의 과학적 발견, 아기는 수태될 때에 자기 어머니로부터 피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에게 전혀 피를 주지 않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수탉의 정자가 있는 달걀과 없는 달걀

달걀 자체는 난자, 그 안에 수탉의 정자가 들어간다. 온도를 맞추어 주면 부화한다.

부화하면서 병아리 그 자체에서 피가 생성된다. 핏줄, 암탉이 피를 주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자와 난자의 결합, 생명체, 그 안에서 피가 생성됨, 엄마와 아기 사이의 탯줄은 영양분, 노폐물 운송, 그러나 엄마의 피는 전혀 아기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며 아기를 수태한 어머니는 자기 자궁 안에 있는 아기에게 전혀 피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 속에 들어 있는 죄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피는 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또한 오류가 없는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1:20,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수태됨

Gospel coalition: 존 파이퍼, 스프로울 등이 속한 개혁주의 기관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blogs/kevin-deyoung/why-does-it-matter-that-jesus-was-born-of-a-virgin/>

Why Does It Matter that Jesus Was Born of a Virgin?

남자가 자식들을 낳을 때 죄성이 전가된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다(마1, 창5 등).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행20:28).

위의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더럽혀지지 않은 피로서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요8:36).

저는 어린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쁜 날에
저는 하늘의 왕좌 주위에 있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계5:9)

저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되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무엇을 살 때 당신은 보통 그 값을 돈이나 은 또는 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구속하시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1:18-19).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구속은 죄들의 용서이다(7)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알베르트 슈페어(*), 1905-1981, 나찌 독일의 군수부 장관

2차대전 패배후 전범 재판, 24명의 전범들 중 유일하게 유죄 인정, 20년 형기를 채운

형기를 채운 뒤 출소, 인터뷰, 기자 “언젠가 죄책은 결코 용서될 수 없고 용서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말씀수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였기에 내 양심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죄책감을 지울 수 없다는
말인가요?” “네 저는 제 죄책감을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전쟁 이후 36년 동안 살면서 참회를 하고 20년 수감 생활로 형벌을 받고 자서전을 쓰면서 수도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했지만 자신의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안

히10:16-18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은 오직
한 곳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롬3:23-24).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1:12-14).

당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에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종교와 철학을 포함하는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그분만이 이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함 - 그분을 당신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 안에 구속이 있습니다(롬3:24).

죄들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배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 우리가 죄로 인해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 나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되사심. 이것이 구속이다.

구속의 이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기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엡1:6)

성경: 엡1:8-10

지난 시간,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들의 용서 설명, 성경은 이것을 구속이라고 한다(1:7)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나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값주고 되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찬양할 제목: 어린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계5:9).

왜 죄인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1:7)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롬5:6-8 설명

오늘 < >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지혜와 분별, 이것들이 주어진 이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신다(1:8).

8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지혜 234회, 우리말 사전: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성경적 용례: 삶의 참된 목적을 아는 것, 잠8:22-31

출28:3, 가장 먼저 나옴

욕기, 잠언, 전도서 등 지혜 문학에 많이 나옴

잠1:7,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에게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모든 지혜(완전한 지혜)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 prudence, 총 3번,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

성경적 용례: 지혜가 작동할 때 나타나는 분별력(골1:9), 바르게 판단하는 것

잠8:12,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안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분별(고전1:18-25)

완전한 지혜, 모든 지혜는 곧 그리스도이시다(고전1:24)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시는 목적(1:9)

모든 지혜와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한(좋은) 기쁨이 된다.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

신비, mystery 단수 22, 복수 5, 총 27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 비밀, 즉 숨겨진 것을 뜻하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진리를 뜻한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으나 신약 시대에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

사도 바울은 엡3:1-9에서 이 단어를 설명하며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이전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 부활의 신비 등에 대해 말한다(롬11:25; 고전 2:7-10; 4:1; 13:2; 15:51; 딤후3:9, 16). 부활과 휴거의 신비(고전15:51)

이것들이 신비라 불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님께서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 즉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계시되지 않은 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엡1:9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는 무엇인가?(1:10)

엡1:9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10절에 설명됨,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imes)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경륜(dispensation)

경륜이라는 말을 잘 살펴보자. 영어 단어 dispensation, 4번(고전9:17; 엡1:10; 엡3:2, 골1:25)

경륜(Dispensation) 경륜(경영 체제), 청지기직 등으로 번역된 이 말은 원래 '무게를 달아서 나누다'란 뜻을 가지며 옥스퍼드 사전은 '나누어 주거나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행정을 보거나 관리를 하며 물건들을 주거나 운영하는 체제,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 특정한 민족이나 기간의 필요에 특별히 부응하는 단계 혹은 어떤 체제가 널리 보급된 시대나 기간'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여기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이코노미, 경제, 경영)는 '관리하다, 집행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왔으며 '사람이 사는 집의 일을 경영하다'를 뜻한다. 이와 같이 '경륜/세대/경영체제/청지기 직'이란 단어의 중심 개념은 집안의 일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이 단어는 눅16장의 청지기 비유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눅16:1-8).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비유는 청지기직 혹은 세대/경영 체제의 구성 및 배열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 준다. (1) 의무를 부과하는 자와 명령을 수행할 책임을 지닌 자가 있다. (2) 청지기에게는 독특한 책임이 있고 또 회계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현재의 경영 체제하에서 신실하지 못한 요소가 발견되면 언제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인간 통치 계획, 점진적 계시로 주어짐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점진적 계시를 담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진적 계시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번에 주어지지 않고 일련의 연속적 행위와 다양한 배경을 지닌 많은 사람의 마음과 손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것이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히1:1-2).

성경에는 여러 시대에 걸쳐 핵심이 되는 사건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경영 체제에 큰 변화가 생겼다. (1) 사람의 타락 (2) 노아 시대의 대홍수 (3) 바벨탑 심판 (4) 아브라함을 부르심 (5) 율법 수여 (6)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7) 성령 강림 (8)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한 사건들 사이의 경영 체제를 보통 '경륜'(Dispensation)이라고 부르며 경륜에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은 보통 '세대'라 불린다. 그 결과 이 말은 영어권에서 유대인 세대(경륜), 크리스천 세대(경륜), 복음 세대(경륜) 등과 같이 아주 흔하게 쓰이는 말이다.

각 세대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경영 방식과 특권을 허락하신 기간이며 그 길이는 다 다르다. 경륜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규정과 권리가 있으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이 주어진다. 새로운 경륜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 세대에서보다 더 많은 진리와 빛을 허락하신다.

세대/경영 체제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분별할 수 없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자적 해석은 주어진 문장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다(롬11 참조).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세대 구분을 주장하지 않으며 그 결과 신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을 모두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지금 중동에서 있는 이스라엘과 그로 인한 팔레스타인 분쟁, 문자적인 천년 왕국 등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없다.

(2)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을 중심 주제로 삼는 인간 중심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 주제로 삼는 하나님 중심의 책이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이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한 방편이라고 가르친다(엡1:6, 12, 14).

이렇게 믿는 십학 체제를 보통 경륜주의라고 말한다.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 미국의 대다수 성경적인 교회들, 있는 그대로 성경 읽고 있는 그대로 믿는다.

장로교 언약주의, 천주교 어거스틴 해석 체계 비유 해석, 이스라엘과 교회 구분 안 함, 무천년주의, 비성경적인 신학이다.

결론적으로 경륜주의(세대주의)는 사람이 만든 신학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정말로 뜻하셨다고 믿으며 그분께서는 오직 자신이 의도한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믿는 믿음을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테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충고하였다(딤후2:15). 그러므로 누구라도 정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읽으면 경륜주의가 옳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때가 충만히 찬 경륜’이란?

교회 시대, 7년 환난기, 1000년 왕국,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키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온 우주 전체에 확고히 서는 서는 때 이것을 바울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즉 시대라고 말한다.

이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신다.

이 말의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완성

벧전1:10-12, 찬사들도 보기를 갈망하는 것(9절)

골1:13-20,

빌2:5-11, 예수 그리스도에메 모든 것이 복종하는 때, 때가 충만히 찬 경륜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 뜻의 최종 목적: 모든 것이 아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것
지금 바울은 우주를 꽉 채우는 엄청난 규모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 확실한가?

구원받는 방법과 성령님의 보증 및 봉인 사역(엡7)

성경: 엡1:11-14

지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음(7), 그 은혜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신다(8-9). 10절, 하나님의 뜻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즉 교회 시대, 7년 환난기, 천년 왕국 이후에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는 것, 이때는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일이 없이 영원한 화평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때,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 통치 계획,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신다.

오늘 < > 상속 유업, 구원받는 방법, 성령님의 보증과 봉인 사역, 우리의 구원과 보상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교리 설교

예정과 상속 유업(1:11)

11절: 예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칼빈주의자들, 부주의하게 성경을 읽는 성도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으로 생각하기 쉽다. 중요하기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가르친다.

칼빈의 이중 예정(*), 기독교 강요 21장 5항

즉 엡1:4-5를 잘못 이해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에 이르도록 정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극도의宿命론, 잘못되면 자만심, 행위 구원 등의 폐해가 나타난다.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 의롭지 못한 하나님, 이것은 복음 전파에 큰 방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성경에서 예정(predestination)이라는 말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조건적 선택, 예정이 아니다.

(*) predestinated 2번 엡1:5, 1:11

predestinate 2번, 롬8:29, 30, 성경의 예정 4군데 모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 엡1:5,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설명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기를 원치도 않는 않는 불신자를 구원받도록 예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의 우리;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은 이들을 예정해서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신다. 즉 양자로 삼으신다.

엡1:11도 동일하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여기의 우리;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은 이들을 예정해서 아이들로 입양하고 입양에 따라 자식들에게 주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신다.

입양, 양자 삼음에 대해 설명하였다(롬8:14-15).

(*) 롬8:29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정은 아무나 예정해서 강제로 구원받게 하고 강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즉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 Yes 하고 수용하는 자들을 예정해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

(*) 성도 즉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벰전1:2,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롬8:29의 형상(image), 똑 같은 모습, 거울 속의 내 모습, 나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요1: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

계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롬8:16-17).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리하니라

상속 유업(inheritance), 명사로만 221번,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오는 단어

(*) inherit, (재산·권리 따위를) 상속하다, 물려받다

우리는 공동 상속자,

inherit라는 말에는 아버지의 성품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구원받는 방법(1:12-13)

12, 13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12절: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에베소 성도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13절: 너희 즉 에베소 성도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13절,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 전체가 진리의 말씀

그런데 그것을 다 읽고 깨달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

롬10:9-15,

믿고 시인해야 한다(9-10). 이것은 곧 구출받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12-13).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경에서 이름은 인격체를 말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그분 자체를 말한다.

구조를 위해 누구를 부르려면 부르는 대상 즉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

14-15, 그러려면 그분에 대해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분에 대해 알려 주는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한다. 그 선포자는 화평의 복음, 반가운 소식을 가져와야 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구약
시대에 복음 선포자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

명백하지 않은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과 지옥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복음 불필요, 선포자 불필요, 듣는
것 불필요, 믿고 시인하는 것 불필요.

때가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구원, 지옥에다 버리기로(유기하기로)
예정된 자들은 정죄,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무려 20,000km 이상을 여행하며 복음을 선포한 이유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13절의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롬10:9)

구체적으로는 고전15:1-4

성경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기록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전15:20), 우리도 부활한다.

왜 화평의 복음인가?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원수지간이다. 그래서 화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고후5:18-21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롬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

성령님의 봉인 사역(1:13-14)

구원받는 것: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는 것이다(고전12:13).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침례: 폭 잠긴다.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잠기든지 혹은 성령님이 우리 전체를 채우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그분께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13절: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기록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봉인, 1.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봉투를 풀이나 테이프로 붙인다.

내용물이 새지 않게, 다른 사람이 조미 못하게

2. 자루나 병 등에 무언가를 담고 나서 새나가지 않게 자루를 끈으로 묶거나 병을 마개로 막는다. 이것이 봉인이다. seal(*)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동일한 일을 하신다. 우리를

봉인의 의미: 소유물, 거래가 끝남, 신원, 안전, 진짜, 가치, 권위(엡1:13; 4:30; 고후1:22)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봉인하신다(고후1:22; 5:5; 엡1:13; 4:30).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등기 우편

엡4:30

13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모두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삼중적 존재 그런데 혼과 영과 달리 휴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다수 성도들은 죽고 그들의 몸은 땅에 묻혀 있다.

이미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몸이지만 이 몸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부활한다.

이것이 소유물이 구속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

고전15:50-53

바로 이때에 우리는 양자로서의 모든 상속 유업을 공적으로 받게 된다.

이 일이 생길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 첫 열매, 보증금, 서약(고후1:22; 5:5; 엡1:14)

차나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이전에는 누군가가 빚보증을 썼다.

내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뒤에 이 큰 구원을 내 힘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한 분 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은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결론

1. 구원받은 우리는 아들로서 상속 유업을 받도록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본성까지

2. 구원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현시대 미디어 선교

3. 이렇게 구원받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 하나님, 값을 치른다. 그 값은 아들 하나님의 죽음과 피, 그렇게 구원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을 지키신다. 특히 우리의 몸은 예수님 공중강림 시 부활한다. 그 결과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전체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아는가?, 믿는가? 바울은 바로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려 하였다. 이 은혜가 영원히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와 복을 알라(엡15)

성경: 엡1:15-23

에베소서,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쓴 서신이 아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채 자기와 함께 2-3년을 함께 지내던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들에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니고 있는 부요함(상속 재산)이 무엇인지 알려 주려고 함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쉬지 않고 글을 써 내려 간다. 그러다 보니 숨이 막힐 정도로 긴 문장이 나온다. 엡1:3-14절, 원래 그리스어로 한 문장, 총 200 단어가 넘는다.

핵심: 우리가 누릴 모든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창세 전에, 지난 주, 구원받은 방법(13), 구원받은 뒤에 일어나는 일(13-14)

오늘, < >,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위어스비 주석 참조

도입

우리는 다시 태어난 뒤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한다(3).

이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면 그 복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측면에서 자라나야 한다.

우리 모두 은행 계좌가 있다. 액수를 종종 확인하다. 그래야 적당하게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계좌를 주셨다. 무한대의 복을 그 안에 넣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계좌에 액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1863-1951), 미국의 신문 재벌, 하원 의원, 많은 재물 소유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 어느 날 귀중한 골동품 소식을 듣고 구매하기로 결심함, 그래서 전문 기관의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서 찾아오라고 함, 몇 달 뒤 찾았다는 소식이 옴. 그런데 그것은 이미 허스트가 오래 전에 구매해서 그의 소유임. 그것도 모르고 그는 찾아서 구매하려고 함. 자기의 재산 목록만 보았어도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알려 주려고 한다. 나를 포함해서 대다수 성도들이 우리가 이미 소유한 복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찾아다니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 내용이 15-23절에 들어 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엡1:15-23, 3:14-21, 빌1:9-11, 골1:9-12,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한 기도들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감옥이야 말로 가장 힘든 장소

벗어나고 싶은 장소,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들이 가득한 장소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의 기도의 내용: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인식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는 성도들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위해 기도한다.

1. 믿음과 사랑 이상의 일이 있다(15). 에베소 성도들, 좋은 사람들이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제 처와 함께 감사할 일: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 세상의 모든 영광, 기존에 투자한 모든 것 다 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 신자로 알려고 우리 교회로 오심. 정말로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이런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 그래서 바울처럼 기도할 때에 감사드린다(16). 오늘 다시 한 번 설교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사랑, 믿음에 감사를 드린다,
2.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는 사랑과 믿음 이상의 것들이 있어야 한다. 내게 엄청난 소유가 있지만 계좌를 확인하지 않으면 늘 가난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3.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조명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한다(17). 즉 어두운데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의 계좌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려 주실 때 우리는 큰 확신을 갖게 된다.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와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능력이다. 또 다시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 주어진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요14:25-26; 16:12-14).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분, 여기의 계시는 직통 계시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드러내어 알려 주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본성에 속한 사람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 수 없다(고전 2:14). 구원받아 영에 속한 자,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자라야 가능하다.

4. 성령님은 지각의 눈을 열어 주신다(18). 지각 Understanding,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 말씀, 세상 살아가는 지혜, 인격의 변화, 이것들은 지정의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정의의 변화는 알고 깨닫는 데서 나온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다(마13:13-16).

5.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 주면 크게 네 가지를 아는 일이 생긴다.

1. 하나님을 아는 일(17)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 창조자, 심판자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다. 우리가 알고 알고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해야 한다.

벧후3:18,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왜곡된 성장을 하면 파멸에 이를 수 있다(3:16).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말한다(요17:3). 그분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성화이다(빌3:10).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그분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닮게 된다.

그분을 완전히 아는 것, 이 땅에서는 불가능,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면 그 때는 완전히 그분을 알게 된다. 이것이 영화이다.

2.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일(18)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르셨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옥 어둠, 사탄의 권세에서 떠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벧전2:9,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소망이 있다(엡4:4).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의 확실한 소망 중 하나, 예수님 공중 강림, 휴거의 소망, 부활의 소망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다(엡2:12).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이다. 옥에 갇혔어도 내게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망이다.

3.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부요하심을 아는 일(18)

바울은 다시 한 번 양자로서(5) 우리가 이미 얻은 상속 유업에 대해 이야기한다(14).

이 상속 유업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상속 유업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영광이 한두 개가 아니라 풍성함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다.

그 이유 1:7,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므로 그래서 우리의 상속 유업의 영광 또한 풍성하다.

나는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영광(벧후1:4)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4.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일(19-23)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19).

권능, Power, 다이너마이트, 그 권능이 믿는 우리 가운데서 활동한다(일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다. 상속 유업이 많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즐기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석유 재벌 록펠러, 한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그런데 그는 한때 자기 재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위장병이 생겨서 우유하고 과자만 먹고 살았다. 침실 옆에 경비 보는 사람들을 두고 살았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제대로 쓰고 관리하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

1.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

2. 우리는 또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3.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어떤 것인가?

구약 성경 1.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유로 6일 만에 모든 것 창조하심

2.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갈라서 구출하심

신약 성경 1.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20).

그런데 단순히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1. 승천하게 하셔서 자신의 왕좌 오른쪽에 앉게 하심(20).

2.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함(21)

3.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22),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23), 즉 우리와 그리스도는 한 몸의 유기체 혹은 연합체

그 결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짐

그 결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우리 발밑에 있음. 천사들도 복종하는 일이 생김

바로 이것이 19절에 있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권능이다.

사도 베드로를 보라. 그는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였지만 권능을 소유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갔다.

그런데 행1:8, 성령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자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함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파워이다. 이 파워가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 파워를 구하고 사용하는 우리가 되자.

기도

기도는 연약한 자가 강한 존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한다.

그런데 서신서에 나와 있는 기도의 패턴을 보면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마6:33이 핵심이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즘 자매님들 팀 켈러의 기도, 목요일 자매 모임, 지난주 요약의 글이 올라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받은 영적인 복을 이해하고 경건한 지식과 통찰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바울이 쓴 글을 다 살펴봐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바꿔 달라고 호소하는 대목이 들어 있지 않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살고 있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들에서는 좀 더 좋은 황제를 만나게 해 달라거나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는 병사들에게서 지켜 달라는 건 물론이고 다음 끼니를 책임져 달라는 간구조차 찾아볼 수 없다. 바울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요청했음직한 온갖 유익한 조건들을 구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실재를 강렬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은 지나친 자신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심 '요긴한 게 다 수중에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마음(지각)의 조명'이 없으면 좌절과 낙담에 빠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는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와 영광(엡4:1)

성경: 엡1:20-23

지난 주,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 성도들의 특징(15),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것들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바울의 간구: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지각의 눈이 열리는 것, 이를 통해 네 가지를 아는 일이 생긴다.

1. 하나님을 아는 일(17)
2.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일(18)
3.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부요하심을 아는 일(18)
4.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일(19-23)

오늘 < > 부활의 권능의 의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

하나님의 권능(19-23)

1.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20). 그런데 단순히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 승천하게 하셔서 자신의 왕좌 오른쪽에 앉게 하심(20).
3.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함(21)
4.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22), 그분을 교회에 주심
5. 교회는 그분의 몸,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23)

1. 교회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책

에베소서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22절에 나온다.

교회(church): 단수 총 77회

마16:18; 18:17: 미래 사건(will, shall), 그리스도의 내 교회, 구약 회중들의 모임이 아니다. 앞으로 시작될 것이다.

행2:47~계3:14: 신약 교회

교회들(churches): 총 37회, 행9:31~계22:16, 총 114회

1. 교회라는 말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신약에 117회)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행19:32; 39)

~에서 나와(Out of) ~로 들어간 사람들(Into)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요일3:14),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없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행7:38)도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즉 신약 교회는 아니다(마16:18).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구약 시대, 이스라엘과 이방인, 신약 시대(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인, 이방인, 교회(고전10:32)(*)

2.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Assembly)이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의 용례상 교회가 아니다.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히10:25).

2. 교회를 부르신 목적(*)

1.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고전1:2)
2.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고전 1:9).

3.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29).

3. 교회에 속하는 방법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3).

성령 침례가 필수적이다(*).

성령 침례는 오순절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다(마3:11; 행1:5; 행11:15-16).

물 침례는 성령 침례에 대한 증언이다.

고전12:13은 물 침례가 아니다. 엡4:5의 한 침례도 성령 침례이다.

고전12:13은 신약 교회의 교리이다.

4. 그리스도의 몸(엡1:23)

1. 사람의 몸

핏줄은 10만 킬로미터

심장은 매일 5,000리터의 피를 내보낸다.

200여 개의 뼈

600여 개의 근육, 손, 팔, 다리, 코, 입, 귀 등

신경: 1초에 100미터 속도

뇌: 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컴퓨터

2. 또 다른 몸: 그리스도의 몸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2-23).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고전12:27). (*)

지체: member

한 몸, 여러 지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고전12:12).

5.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고전12:12-27)

1. 모든 지체가 살아 있다(요일5:12)

2. 머리가 명령한다(골1:18).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3. 모든 지체의 은사와 기능이 다르다(고전12:15-16).

4.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전12:21).

5. 한 지체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전12:26).

6.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롬12:4-8).

그리스도의 눈, 입, 귀, 코, 손, 팔, 다리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6.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일(*)

1. 하나님의 은혜, 2. 지체, 3 생명, 4. 사랑, 5. 권능, 6. 영광, 7. 진리 선포

7.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엡1:23)

엡1:20-22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즉 우리와 그리스도는 한 몸의 유기체 혹은 연합체

그 결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짐

그 결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우리 발밑에 있음. 천사들도 복종하는 일이 생김

이것을 표현하는 말: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Fullness, 예수님은 스스로 충만한 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신부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 충만하게 된다.

엡5:30-32, 그래서 우리(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이다.

그리스도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다(23).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 계획상 신랑으로서 신부가 있어야 충만해진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이유이다.

결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옆에 있는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들, 귀중히 여겨야 한다.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약한 지체들을 도와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있다. 천군천사들, 우주 공간의 모든

위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살자.

구원받은 성도의 어두운 과거와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엡10)

성경: 엡2:1-7

에베소서 강해, 1장 9번 강해, 1장의 내용 정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3), 아이들로 입양, (5), 이를 위해 아들의 피로 구속, 죄들의 용서(7),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죄와 악 존재 제거) 하나로 모으려 하심(10), 구원받은 방법 및 영원한 구원(13-14), 바울의 기도: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 상속유업의 영광을 깨닫기 원한다(18-19),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19). 이 권능이 그리스도 부활(20), 그 파워로 하나님이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두심(21),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그분과 함께 모든 것 위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충만(23)

2장, 1-10, 구원받은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위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11-22, 특별히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 >,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 그 일의 목적

1.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1-3)

1-3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1. 그는 죽어 있다(1). 여기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다수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 무지하고 전혀 알지 못한다. 당연히 영적인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히11:6).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물리적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못한다. 장례식장, 듣지도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아픔이 와도 느끼지 못한다.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와 비슷하다.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가장 쉽게 말하면 죄의 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출랑대는 청년, 목사와의 대화

휴대폰 통신사 연결, 비연결의 차이

이런 영적 죽음의 원인: 범법들과 죄들,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6:23).

1절: 칼빈주의자들의 오류: 칼빈주의 5대 강령(TULIP), 첫 번째 것, 전적 타락 교리(Total depravity),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확실히 믿는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전적 타락'을 '전적 무능력'으로 가르친다. 즉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어도 죽은 송장이므로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의 주장: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죽은 자들을 살려놓아야 그 뒤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만 이 일이 가능하나?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 결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는 것이다.

요3:16

하나님이 먼저 죽어 있는 자를 살려놓으면 그 뒤에야 비로소 그가 믿을 수 있다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다. 사탄과 마귀들도 로봇이 아니다. 모두 자유 의지를 가지고 취사선택할 수 있다. 자유가 없었다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거의 모든 구절은 복음을 듣고 사람이 반응해야만 함을 가르친다.

롬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들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불러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다.

즉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죽음은 항상 분리를 말한다.

여기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사59:1-2)이지 깨달아 반응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엡1:13을 보라. 2:8을 보라.

2. 죄들 가운데서 죽은 결과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2-3).

불신자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것이 죄이고 범법이다. 최초의 불순종, 에덴동산 하나님(반드시 죽는다, 창2:17), 마귀(절대로 죽지 않는다. 창3:4),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말을 믿고 죄를 지었다. 그 결과 순식간에 영적인 죽음, 후에 육신적인 죽음(930년, 창5:5)

그 뒤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불순종 속에서 살고 있다. 롬5:12, 심지어 아기들도 성경적으로는 다 죄인이다.

성경을 보면 불순종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세상, 마귀, 육신

1. 세상: 우리는 전에 세상 행로를 따라 걷던 사람들이다(2). 세상(요일2:15-17)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다(롬12:2).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후6:14-17, 7:1).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한다. 살아 있는 물고기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다(요17:14).

종말이 가까이 오면서 너무나도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한 상태에 있다.

노아의 때(창6:5-6, 12).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랑침례교회의 존재 목적

2. 마귀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다(2). 마귀가 모든 불신자 안에 거한다는 말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마귀는 그의 종개들을 가지고 있다(엡6:11-12). 그는 세상 시스템을 지배하는 통치자(요12:31). 그래서 마귀는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마귀 자체가 불순종하는 자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 교만, 계략과 술수가 많은 자 특히 말세에는 성도들도 넘어갈 확률이 크다(마24:24). 그래서 모든 영을 시험해야 한다(요일4:1). 마귀의 가장 큰 무기, 거짓말(창세기부터), 큰 거짓말, 진화론, 공산주의, 유토피아, 점점 더 좋은 세상, No! 지금 세상은 결국 7년 환난기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유토피아가 건설된다.

카톨릭 중심의 종교 통합의 영, 모든 교회(80-90%)에 만연한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관상 기도, 만트라 등), 경배와 찬양 록음악 문화, 구별과 구분이 없는 것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성경 중심으로 이를 타파해야 한다.

그러려면 강해 설교, 성경 설명, 성경 읽기, 묵상,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필수적이다.

3. 육신, flesh, 이것은 불신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인간 내부의 힘이다. 육신은 몸이 아니다. 우리의 몸 자체는 죄성이 없다. 이것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본성 즉 죄를 지으려 하는 본성을 말한다. 이 본성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지배하며 결국 그들이 불순종하게 만든다.

벧후2:22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개는 왜 개의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도 마찬가지로

개에게 고양이의 본성을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양이처럼 행동할 것이다.

왜 모든 죄인은 죄인처럼 행동하는가? 죄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시51:5).

육신이 하는 일, 욕심을 낸다(3). 탐욕은 이상숭배이다. 무리한 것을 추구한다. 딤후6을 보라.

육신의 욕망, 생각의 욕망(동성애, 혼전 섹스, 트랜스젠더, 낙태, 마약 등) 모두 욕망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진노(3)

- 이 모든 것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 진노의 자녀들, 롬1장을 보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요3:18). 다만 심판의 실행이 연기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다.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때문에(나훔1:2-3)
 예수님의 속죄: 하나님의 진노, 그로 인한 형벌, 예수님이 그 진노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
 그 결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 있지 않다. 죽은 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도 그분의
 진노가 우리에게에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면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만인 구원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창조물이므로 사랑하신다. 그 내용이 4-7절에 나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4-7)

영어 4절, But God, 사람의 불순종,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1. 하나님의 사랑(4)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1). 사랑은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 중 하나
 이 사랑은 크게 긍휼과 은혜로 죄인들에게 나타난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4)

은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7)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자리: 시85:7, 9-10 (*),(*),(*),(*)

2.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5).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을 때에(dead), 살리셨다(quicken).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 지체들이다(엡1:22-23). (*)

그 결과 그분의 부활을 공유한다(엡1:19-20). (*)

즉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죄를 지어서 죄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죽었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하였다.

이것이 침례가 보여 주는 그림이다. (*)

어떻게 가능한가? 요3:16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히4:12,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quick)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3. 그리고 우리를 높이셨다(6).

아직 육신적으로는 땅에 살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늘로 끌어올려 자신의 왕좌 오른쪽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위치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 모든 것이 우리 발밑에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위치이다.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4.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 맞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다가오는 영원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보여 주는 것

은혜로 구원: 내 행위로 No, 따라서 선한 행위로 No, 그래서 혹시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나쁜 행위가
 나와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행위로 구원 불가, 구원 유지도 불가, 잔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풍성하게 하려고 더욱 더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

5. 대영 박물관에는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채집한 동물과 식물 심지어 광물에 이르는 온갖 종류의 표본들이 다 보관되어 있다. 표본들이 모두 채집될 때까지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모든 지파와 사람들 그리고 민족들로부터 자신의 은혜의 표본들을 모으고 계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줄 샘플로서 이와 같은 은혜의 트로피를 전시하실 것이다. 그것들 중에는 결코 똑같은 것이 없다.

6.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기에는 너무 악하고 천박하며 심보가 고약하고 괴상하며 유별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을 찾고 계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죄인의 표본들만 저 위에 있게 하셔서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됨을 온 우주에 보이려 하시기 때문이다.

믿음, 은혜, 구원의 유기적 관계: 하나님의 책임과 사람의 책임(엡11)

성경: 엡2:8-9

에베소서 강해

1장 성도에게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있다(3).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모든 것 위로 높여지신 것같이(20-21) 그분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된다. (*)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고전6:3)

2장, 1-10,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끄러운 과거와 영광스러운 현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11-22, 특별히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 >,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믿음, 은혜, 구원의 유기적 관계

1.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6-7)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영원 속에서 보여 주시려고(7)

성도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

바울 딤후전1:12-14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듣게 될 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증

2.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8)

8-10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 오용 혹은 남용되는 구절 중 하나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이 들어 있다.

먼저 구원과 구속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구속(redemption),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 노예로 팔려나간다.

왜? 그의 힘으로는 그것을 면할 수 없기에.

그를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 힘이 그에게는 전혀 없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의 친족 중 하나가 그를 위해 돈을 지불하면 그는 양민으로 돌아올 수 있다. 속량된다. 윗기, 노예의 몸에서 자유인이 된다. 이것이 구속이다.

그러므로 이 구속을 위해 그 당사자가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구속은 모두, 100% 친족 구속자가 한다. (*)

구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대부분의 경우 구원, 영생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구원은 구속과는 달리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다.

요3:16

롬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들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불러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엡1:13; 2:8

인간의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족 구속자로서 온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

그런데 인간들 가운데는 그분과 그분의 속죄값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즉 믿음의 문제 8절, 믿음을 통해

엡2:8-9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구절이다.

일단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에베소서 1-2장 강해가 나오면 칼빈주의자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예정 선택 등

(*)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8절 중간의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어 that: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1절: 칼빈주의자들의 오류: 칼빈주의 5대 강령(TULIP), 첫 번째 것, 전적 타락 교리(Total depravity), 칼빈주의자들은 '전적 타락'을 '전적 무능력'으로 가르친다. 즉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어도 죽은 송장이므로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의 주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죽은 자들을 살려놓아야 그 뒤에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faith라는 말 대신 'saving faith'라는 말을 즐겨 쓴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살린 뒤 saving faith를 주셔서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신다. 살마은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엡1:13이 이것을 반박한다. 8절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다.

(*) 9절이 바로 이것을 설명한다. 9절은 8절 설명,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딤후3:5,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Faith에 대한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9절, faith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일)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

목사, 참으로 어려운 직무 수행자, 딤후3:16,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특히 이런 부분

그런데 실제로 교리를 가르치면 설교가 논리적이고 딱딱하고 어떤 면에서 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대다수 교회 목사들, 예를 들어가면 감성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

나의 믿음: 일단 교리가 올바른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완전히 다른 교리를 가지고 그것에 도취되어 은혜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요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유명 연예인, 인사들의 간증

대개: 고통,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영광은 자신이 받았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들으면 안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누구나 좋아한다.

사실 이런 것은 동기 부여 세미나에서 해야 할 일이지 교회 목사나 성도가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서신서 전체에서 자기 간증은 거의 없다.

100독 1도의 의미 백독일도(百讀一篇)(*)

바울 1-3장 교리, 4-6장은 실행, 1-3장은 어쩔 수 없이 교리 설명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은 행위가 아님을 보여 주려 한다.

(*) 롬4:1-3, 율법 이전과 이후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8-9절의 결론: 노만 가이슬러

전체적인 구원 설명, 노르만 가이슬러의 칼빈주의 반박, (*) Norman Geisler(1932-2019) 자타가 공인하는 20-21세기 최고의 크리스천 변증학자, 신학대학교수, 10년간 댈러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역임, 위키 백과 약 90여 권의 책, 조직신학(1,600쪽), 로마 카톨릭 주의 문제, 이단들, 비교 종교, 철학, 창조와 진화, 칼빈주의, 성경의 영감 등에 대해 매우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책들을 저술함, 보통 1권이 4-500쪽, 칼빈주의 관련: Chosen But Free, 285쪽

1. 은혜와 믿음

내가 1억 원을 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 치자. 이것은 나의 선함 마음에서 나온 선물이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즉 받으려는 사람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만 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이것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구원(영생)을 무료로 주신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기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주려는 선물 즉 1억

원을 받아야만 한다. 즉 내가 아무 조건 없이 1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손을 내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러나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그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믿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네 것이 된다. 네가 믿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또 실제로 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너는 죄들 가운데서 전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이므로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셔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즉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을 먼저 구원해야 하며(다시 태어나게 해야 하며)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

(*) 파이퍼, 맥아더. 스프로울, 대다수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생, 믿음, 성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믿는 것은 우리의 몫(책임)이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

요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지 않는다. 반면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2.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상한 말을 둘러댄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혹은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 누가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면 결국 내가 구원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행위이다. 이것은 사실 궤변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아무 조건 없이 1억 원을 선물로 주려고 한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1억 원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

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이 일에 일조하였는가?

나는 단순히 선물을 준다는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선물 1억 원에 내가 기여한 것이 있는가?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의 은혜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은 1억 원이라는 큰 선물을 준 그 사람을 100% 칭찬하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조금이라도 칭찬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나?

“선물을 받아들였으니 너는 참 큰일을 했다. 일조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음: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다.

누가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그가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3.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

어떤 농부에게 깊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의 소년들은 거기서 수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영하다가 익사하면 안 되므로

농부는 거기에 펜스를 두르고 (*) 접근 금지, 수영 금지 팻말을 크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동네 소년들 세 명이 거기 와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트랙터를 멈춘 뒤 팔을 접었다가 그 팻말을 가리키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애들아, 이 팻말에 무어라고 적혀 있냐? 접근 금지, 수영 금지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위반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게 되었으니 빠져 죽어도 싸다.” 그러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세 소년이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있다면 과연 이 농부는 사랑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부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하나님과 이것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접근 금지, 선악과 먹는 것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법을 어겼으므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무도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절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법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이 죄를 지었으니 그들을 무조건 지옥에 넣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농부처럼 아이들이 빠져 죽는 것을 기쁜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분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과 성경이 하나님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

지금 세 명의 아이들이 죄를 지어 빠져 죽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은 이 세 아이들 가운데 하나에게만 구멍 로프를 던집니다. 그리고 로프를 당겨서 그 아이를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이가 빠져 죽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성경의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전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분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저의 모든 사랑을 그분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단지 일부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구조하려 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신 성경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 아이들처럼 온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타락하였습니다. 지금 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물에 빠진 세 소년 모두에게 구멍 로프를 던져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들을 구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명 중 하나는 그 구멍 로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명은 그것을 거부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손을 내밀어 로프를 붙잡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명 로프를 던지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명 로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자기가 던지는 구명 로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눌러서 무조건 로프를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강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에게 부어질 때 생기는 두 가지 반응
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이다.

동일한 해가 있다. 그 해가 빛을 내면 초는 녹이고 진흙은 더 딱딱하게 만든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동일한 태양이다. 그런데 그 햇빛을 받아들이는 매체가 무엇이나에 따라 햇빛 자체의 부드럽게 하는 빛들이 다른 작용을 한다.

초처럼 그 빛들을 수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여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은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진흙처럼 더 딱딱하게 만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그 동일한 사랑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사랑은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초처럼 녹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흙처럼 더 딱딱해집니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인생에 한 번 꼭 있어야 한다.

오늘 구원받아야 한다.

선한 행위와 구원의 불가분의 관계: 하나님의 의도와 성도의 의무(엡1권)

성경: 엡2:10

에베소서 강해, 6장, 1-3장 교리, 4-6장 성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생각하며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자기의 삶 요약 정리
1장 성도에게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있다(1:3).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분의 왕좌에 앉으신 것처럼(1:20) 우리도 이미 그분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있다(2:6).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1:10) (*)

2장 1-10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할 일

지난 주 8-9절, 믿음, 은혜, 구원, 행위로 되지 않는다(*).

딤후3:5,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믿음,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 결과 구원, 행위가 아니라 은혜(9)
오늘 < > 구원의 목적, 우리가 땅에 사는 목적, 대다수 목사, 성도, 교회가 간과하는 부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

구원받은 뒤의 성도의 삶

엡:10 (*)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작품(workmanship), 작업자가 열심히 작업해서 만든 것, 작품(*)

예레미야, 바울의 토기와 토기장이

1. 따라서 지금의 나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 8-9절의 의미

2. 이 말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다.

고후5:17, 7:1

3. 작품 제작 목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선한 행위를 안 할 수 없다. 반드시 나온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건강한 나무라면 사과가 열린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요15:1-2, 8, (*) 마5:14, 16

조금 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은 사람(롬8:29)

갈4:19,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
는 수고를 겪노라.

4.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을 통해(1:13), 성령님의 내주 봉인 충만

5. 선한 행위, 교회는 불완전(성도들), 그래서 완전하게 하신다(엡4:7-16(12절), 히13:20-21)

하나님의 말씀(살전2:13), 기도(엡3:20-21), 고난(벧전4:11-14)

골3:1-4, 대단히 귀중한 말씀

6. 모세의 경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40년이 걸렸다.

요셉, 다윗 모두 적어도 13년의 고통, 바울도 마찬가지

행위(works)

별로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갈2:16), 육신의 행위(갈5:19-21)

죽은 행위(히6:1)

의로운 행위(딤후3:5), 사64:6

어두움의 행위(롬13:12, 엡5:11)

선한 행위: 선하다. 어두움이 아니다. 죽음이 아니다.

2:2와 비교, 사탄과 함께 살던 시절

그가 선해서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본성이 바뀌어서(새 본성 취득) 선한 행위

야생 올리브나무, 좋은 올리브나무, 좋은 열매 롬11:17, 또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거든(*)

접붙임의 효과: 같은 종류의 가지, 체리나무 사과 안 된다. 야생 올리브나무, 좋은 올리브나무 구원받으면 야생 올리브나무, 접붙임, 기름짐, 좋은 열매(*)

성령님의 수액, 아버지의 가지치기(징계와 훈련)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중요하지 않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성령님께 맡기면

선한 행위는 구원의 증거(마7:21)

불신자들에게 좋은 간증(벧전2:12)

선한 행위는 미리 정해진 일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약2:17, 26(*)

선한 행위 엡4-6

엡4

1-6,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3). 교리와 믿음의 실행

7-16,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선물 면에서(11), 12절 목적

17-29 새 사람으로서 구생활을 청산해야 한다(22).

30-31,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엡5

1-21,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검증하고 실천하라(9-10)

22-33, 건강한 부부 생활

엡6

1-4 부모와 자식

5-17 영적 싸움을 하라

18-24 목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토픽들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 리스트

디도서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

2:11-13, 은혜, 가르침 12-13 재림의 소망

14: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3장

1.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국가,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롬13:1-4

2. 우리의 과거 3

3. 우리의 변화 4-7

4. 선한 행위(8)

5. 피할 것, 어리석은 변론, 킹제임스 영어 성경 본문, 이중 영감

6. 이단 퇴치, 권면하고 사귄 거절

결론

구원에는 선한 행위 무효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선한 행위를 하려고 충력을 다해야 한다.

엡2:10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자. 엡:10 (*)

신약 교회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 분리벽이 해체됨(엡13)

성경: 엡2:11-22

에베소서 강해, 6장, 1-3장 교리, 4-6장 성화

1장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1:10) 성도에게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있다(1:3).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공동 상속자(롬8:17)

2장 1-10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할 일

지난 두 주 8-9절, 믿음, 은혜, 구원, 행위로 되지 않는다.

10절, 구원하신 목적: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옛 본성, 새 본성이 생겨났다. 새 본성이 일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11-22절;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을 소유한 에베소 성도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긍휼을 입게 하셨는지 늘 감사해야 한다.

오늘 < >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 분리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 등

할례, 무할례(11)

특별히 오늘은 이방인들의 구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다수 이방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로 유대인들과 상관하심

(*) 구약 시대 구분, 4000년, 노아의 대홍수 BC 2348년, 바벨탑 BC 2242 경 아브라함 BC 1996 모세의 율법 BC 1491

넓은 의미의 구약 시대 4,000년

좁은 의미의 구약 시대 약 1,500년

아브라함 전까지: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음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까지: 유대인 이방인 구분 있음(AD 30),

(*) 신약 시대, 교회,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음, 천년왕국 유대인 이방인 구분 있음, 새 하늘과 새 땅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음

(*) 교회, 계곡들 잘 이해해야 한다.

구약시대(좁은 의미의 구약) 유대인들, 할례자들,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부르며 멀리 천대함

할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고 그래서 99세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창17:1-2; 10-12).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도 명령하시고 유월절 희생에 참여하려는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며 남자아이는 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출12:44; 레12:3; 요7:22).

할례는 유대인의 상징

유대인들의 착각;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롬2:25-29), 할례는 메시아를 낼 선민의 표, 그러나 구원의 표는 아니다. 유대인들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롬4:11-12).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음(골2:11)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할례의 징표를 주셨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셨나? 선민, 이스라엘이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것

1. 메시아를 출생하는 민족, 2.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보존(롬3:1-2)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규례들과 의식들만 지켰지 주변 이방인 나라들과 같이 타락하게 되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 등 채찍, 영적인 분리 요구,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음

결국 메시아까지 배척함

이방인들: 밖에 있는 자들(12)

이방인들에 대한 정의: 밖에 있는 자들, without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

1.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들: 과거에 에베소의 다이애나 여신 숭배,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없는 종교 일치 통합, 성경적으로 부끄러운 일
 2.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는 자들: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연방,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 규례, 복을 주심, 이방인들은 개종해야만 연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3.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등에서 제외된 자들,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서.”
 4.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자들, 철학, 교육, 전통, 세상 정복, 재산 축적 등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려 하였지만 모두 실패함
 5.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 이교도들 수많은 신들(범신론) 아테네 전도, 행17:16-23, 사람보다 신의 수가 더 많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 있었다. 무서운 말이다, 시115:1-8
-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이교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롬 1:18-23).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심(18-20, 28)

인류 역사: 수많은 신, 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다.

한 하나님에서 수많은 신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다. 지금은 거의 모든 인간이 신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절대적인 것은 없다.

구약성경의 역사: 1-11장은 이방인들의 타락, 메시아 출생을 위해 12장부터 유대인 국가 형성

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요4:22)

유대인 선택의 목적: 메시아, 성경,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 혹은 빛, 마지막 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화해 사역(13)

13절 그러나(But), 2:3-4의 ‘그러나’와 같은 맥락, 이교도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원수 되게 하는 것(15, 16), 즉 적개심(enmity)이 놓여 있다.

중간 분리벽(partition) (*)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화평의 사역, 중간 분리 벽을 없애고 이 둘을 화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16절 화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부모 자식 간, 친구지간, 하나님과 죄인,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중간 분리벽은 죄이다(2:14).

1.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개심(13-15), 구약 시대 이 둘 사이를 구분하심, 메시아 등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이 성취됨, 차이를 둘 이유가 없어짐,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통해 완전히 제거됨

초대 교회를 보자.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설교 구원받은 자들 100% 유대인, 8장 에티오피아내시, 문제없음, 그런데 10장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 교회 안에 내분, 왜 이방인들로 갔느냐? 즉 초반부 10년 동안 100% 유대인 교회, 그 뒤부터 이방인 중심, 사도행전 15장 이방인 문제에 대한 교회 회의,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가? 아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다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

차별이 없다. 적개심이 사라졌다.

원수 되게 하는 것의 원인: 율법, 이방인 유대인 구분, 음식, 할례, 절기 등, 정결한 것, 부정할 것 등(겔44:23), 이것이 중간 분리벽, 심지어 성전에도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이 중간 분리벽의 제거, 휘장이 찢어짐

그래서 율법의 분리벽이 제거됨, 음식 규정, 절기 규정, 시민 법 등 지킬 필요 없다.

롬8:1-4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 자신의 피로 이것을 이루셨다(13).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다(고후5:15)

2.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적개심 제거(16-18)

유대인 이방인 사이의 적개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적개심도 사라짐

행15:9, 11

롬3:22-23

골2:13-15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강조함, 14, 하나, 15절 하나의 새 사람, 16절 한 몸, 18 한 성령님 21 하나의 거룩한 전

1. 한 나라 시민(19), 뵤전2:9,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 교회 유대인, 유대인 이방인 모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행8장, 에티오피아 내시(함), 행9장 사도 바울(셈), 행10장 고넬료(야벳)

그래서 결국 이방인 유대인 모두 한 나라 시민이 됨

2. 한 가족(19), 하나님 집안, 한 하나님 아버지, 모두 형제자매, 구약 시대 제사장 계급 체계 제거됨

3. 하나의 전(20-22)

구약 시대, 성막 혹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심, 이스라엘 백성의 죄, 성전에서 떠나심

더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으심

신약 시대, 성령님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심(고전6:19-20)

이 교회의 기초: 신약 시대 사도들과 대언자들, 당연히 그들의 사역의 결과 교회

지금은 이런 사람들 없다.

예수님이 으뜸 모퉁이들: 건물을 묶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역할, 즉 이방인 유대인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유대인들: 당시 존재하던 헤롯 성전

이방인들: 다이애나 신전

이 둘 다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전 즉 교회는 영원히 지속된다(마16:18)

21-22절이 이것을 말한다.

결론

1.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2. 다른 사람에게 알리느냐?

3. 화해 사역을 하고 있느냐? 고후5:17-21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세 가지 이유
(존 맥아더 목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엠펙4)

성경: 엠펙2:19-22

에베소서 강해, 6장, 1-3장 교리, 4-6장 성화, 교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서신서
신약 교회 성도의 신분과 위치, 위상, 교회 계획,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장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1:10) 성도에게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있다(1:3).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공동 상속자(롬8:17)

2장 1-10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사랑), 우리가 할 일
특별히 8-9절, 믿음, 은혜, 구원, 행위로 되지 않는다.

10절, 구원하신 목적: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옛 본성, 새 본성이 생겨났다. 새 본성이 일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11-22절: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을 소유한 에베소 성도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공물을 입게 하셨는지 늘 감사해야 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 분리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 등

요즘 목요일 자매님들의 목요 성경 공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존 맥아더) (*), 교회의 수준을 말한다.
내 생각: 현 시대에 가장 뛰어난 목회자(극도의 칼빈주의, NASB 사용 나는 반대한다).

그럼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목회 사역, 제자 훈련, 말씀 사역,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최근에 그의 교회는 essential church 영화 제작(*), 2시간 6분짜리, 코비드 역병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의 폭정, 교회 탄압, 어떻게 교회가 생존할 것인가? 근거: 교회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한국어 자막을 번역했다. 이번 달 안으로 보내면 이제 한국말 자막을
통해 이 영화를 볼 수 있다. 같이 보려고 한다.

오늘 < >, 책 10장, 196-213, 완전한 책 없다. 우리와 다른 데가 있다. 가시를 잘 발라서 먹어야
한다. 신약 교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책 가운데 하나, 일부를 전달하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날 로마 가톨릭으로 교적을 바꿀 생각을 하던 한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
도께서 세우셨고 또 사랑하시는 제도(기관)로 묘사합니다.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지만 내가 아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본회퍼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다.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라는 말은 마음을 설레게 하지 못하는
한없이 진부하고, 무미건조하고, 불필요한 말처럼 들릴 뿐이다. 그 말은 그들에게 종종 진부함의
대명사처럼 인식된다." 우리는 어떤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 이러한 비판에는 쉽게 외면하기 힘든 진실이 담겨 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교회에 관해 무관심할 뿐 아니라 교회의 일부가 되기보다 그 주변을 맴돌면서 단지 구경꾼처럼
의미 없는 출석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에 관해서는 냉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이
복음주의 사역 단체에서 전임 사역자로 일하면서도 지역 교회와 아무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는 복음주의 진영 전체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성경과는 거리가 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왜곡된 교회론을 수용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의 냉담한 반응을 치유하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복음주의 개신교는 교회론도 구원론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전통이나 미신 등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교회론을 신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건전한 이해를 제시할 수 있다.

나는 교회를 열렬히 사랑한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게 한다. 나도 여러 사역 단체에 속해 일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역을 다 합친다고 해도 교회를 위한 나의 사역과 맞바꿀 수 없다. 교회는 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네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다.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교회는 “영적 집”(벧전2:5)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고전 3:16-17; 고후 6:16)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땅 위에서 자신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는 곳이며,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영적 생명과 예배의 중심이자 핵이다.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설계하고 건축하셨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22절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모퉁잇돌: 건물의 모퉁이에 위치한 굉장히 큰 돌(렘51:26). (*) 이것은 기초와는 다르며 건물의 두 벽이 만나서 힘을 받으며 붙게 하는 역할을 했다. 신약 성경에서 주 예수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모퉁잇돌로 비유된다. 1. 이 돌이 기초에 있으면서 건물을 지지하고 힘을 받게 하듯이 그리스도나 그분의 가르침도 모퉁잇돌이라 불리는데(엡2:20) 그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의 체계요 사람의 혼을 구원하며 살아 있는 권능을 가진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2. 모퉁잇돌이 건물에서 중요하고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는 위치, 즉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특별한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퉁잇돌로 비교된다(벧전 2:6). 3.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불쑥 튀어나온 모퉁잇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므로 그분은 이런 의미에서 모퉁잇돌로 비교된다(마21:42).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고전3:9)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사 55:11 참조).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은 항상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시 46:10 참조).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런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승리에 찬 어조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고 말씀하셨다. 교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보장하셨다.

“지옥의 문들은 죽음을 뜻하는 히브리식 표현이다. 지옥은 죽은 자들(불신자들)의 거처이고 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입구 곧 죽음 자체를 가리킨다. 지옥은 사탄의 영역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사탄을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로 언급한다. 아울러 2장 15절은 그가 죽음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일생 동안 속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의 통치 영역에서 자신의 선택 받은 백성을 구원하셨다. 한마디로 그분은 지옥의 문들을 무너뜨리셨다. 이제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 그 무엇도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

물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약속은 각 지역의 교회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견재할 것이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지도자가 아무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거나 개개의 교회가 모두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교회가 성공과 번영을 누리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범우주적 공동체), 곧 그분의 신부이자 몸이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엡 1:23)인 교회가 세상이 지속되는 한, 가시적 형태로 세상에서 항상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진리의 원수들이 일치단결하더라도 교회를 이기거나 파괴할 수 없다. 영화 essential church의 핵심 내용

2.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현실이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은이나

금, 또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귀중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교회를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에 있다. 성경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고전6:20) 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그 값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베드로 사도는 "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고 말했다.

사도행전 20장 28 절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한다.

교회는 성자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고 성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정도로 귀하다. 성자의 희생 덕분에 영원한 사랑의 선물인 교회가 현실이 되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이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 그분께서 치르신 값이다. 교회는 그만큼 보배롭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롬8:17 말씀 즉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말씀이 성취된다.

이로써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기관, 존재가 되었다.

3. 교회는 지상에 드러난 천국의 현실이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은 교회가 완전하다거나 부패한 세상을 피해 은신할 수 있는 이상향을 제시한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단지 교회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상에서 반영하는 장소라는 의미일 뿐이다. 현재의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국회일까? 아니다. 대법원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대학일까, 아니면 시청일까? 모두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교회다.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세상으로 옮겨온다면 어떤 활동이 주를 이룰까?

1. 첫 번째는 예배다. 과거에 환상을 통해 천국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그곳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다름 아닌 예배이다. 천국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사 6:1-3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4장 8-11절에서 동일한 것을 말한다.

천국에 거하는 창조물은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한다.

예배는 교회의 주된 활동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 찬양, 말씀 선포, 구원, 성화, 교육

2.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활동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어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행 5:31 참조). 성부께서 친히 성자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빌 2:9)을 주셨다. 장차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것이다(계 5:11-14 참조).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다.

3.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활동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천국은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히12:14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상의 교회에도 순결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신다.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이를 위해 심지어 권면과 징계도 시행된다.

4. 교회를 통해 반영되는 천국의 활동 가운데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이다. 지상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교제를 미리 맛보는 경험에 해당한다.

이처럼 교회는 지상에서 천국의 현실을 반영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5.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딤후 3:15.

바울 사도의 말처럼 교회는 세상의 다른 제도와 기관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진리의 횃불을 높이 쳐들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진리를 무기로 삼아 사탄의 거짓과 사변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한다(고후 10:3-5 참조). 그러한 목표를 향해 매진할 때 교회는 마침내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요즘 소위 '사용자 편의를 위한 교회'에 관한 말이 많이 오간다.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신자들이 집처럼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런 조언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하는 소리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문을 나설 때는 '세상에서 이러한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도 편안해' 라고 생각하며 교회 문을 나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증거다. 교회는 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결론

왜 교회를 사랑하는가, 사랑해야 하는가?

1. 주님의 기관, 2.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현실, 3.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현실

이것들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한 우리는 복음 사역과 참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일생을 바쳐 헌신해야 한다.

나(사회생활), 가정, 교회, 이 순서대로 거룩하게 살며 땅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되자.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다(엡15)

성경: 엡3:1-6

에베소서 강해, 6장, 1-3장 교리, 4-6장 성화, 교회와 성도들이 누릴 복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서신서

지난 번 두 강해, 엡2:11-22, 구원받은 자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소유(1:3), 우리의 장점 때문이 아니다. 엡2:8-9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처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11-22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 분리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 등 설명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공물을 입게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

오늘 < >, 신약 시대가 열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과거 구약시대에는 불가능,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

오늘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하려 한다. 1절의 갇힌 자, 2절의 분배 사역, 3절의 신비 등 갇힌 자(1)

prisoner(*),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죄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AD 60년경 로마의 감옥)

바울의 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나?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악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

1. 이런 까닭으로 갇혀 있다. 2장에 그 까닭이 나와 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중간 분리벽이 무너졌다. 이방인이라 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복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려는 이유로 말씀을 선포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지금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와 옥살이를 하고 있다.

2. 누구를 위해서 옥살이를 하는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적어도 2년 동안, 19:9-10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는 소아시아(티키 서부 지역)

3. 인생이 짧다. 바울은 60세 정도 살았을 것이다(주후 5년경 출생, 주후 65년경 사망). 전반부 30년을 자신을 위해, 후반부 30년을 남을 위해, 특히 듣도 보도 못한 이교도들을 위해 전 삶을 살았다.

3.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피 흘려 죽고 묻히고 부활하심, 무한한 희생,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요 15:13),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다(요15:15)

4.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 그의 삶: 남을 위해(그것도 대다수 유대인들이 개종지로 여기던 이방인들을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사용한 삶 단순히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삶을 위해

마16:16,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죽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육을 위해 전 삶을 바쳤다.

행20:20, 26-27, 바울의 고백,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었다.

살전2:5-8

3. 그런데 나는 죄수가 된 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

서신서 총 5회, 주의 갇힌 자(엡4:1), 몬1:1, 9, 딤후1:8

죄수: 영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위해 인생이 갇혀 있는 사람, 그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제약이 있는 사람을 사는가?

분배 사역(dispensation, 2)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것이다.

Dispensation(*): 굉장히 어려운 말, 청지기 직무,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들(아담, 노아, 아브라함, 교회 시대, 천년왕국의 경영 계획), 그 계획들이 실현되는 기간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1.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해 주는 사역의 직무, 2. 하나님의 은혜가 분배되는 계획, 3.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분배되는 시대(요1:14, 16-17)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의 기간, 그것을 이루시는 계획, 직무

즉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신약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맡았다(행20:24). 너무나 귀중한 말씀

나는 다른 일은 안 한다. 심지어 침례도 중요하지만 나는 침례를 주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침례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전1:14-17)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바울만큼은 못해도 우리 삶의 일부(시간, 열정, 에너지, 재물, 노력)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써야 한다.

즉 은혜를 분배하는 데 써야 한다. 미디어, 건물 헌금도 그래서 한다. 회원 가입 시 섬김 분야 지정도 마찬가지

신비(3)

하나님이 계시로 신비를 알려주셨다.

신비(mystery)(*), 추리 소설 등에 보여 주는 신비하거나 기묘묘한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

신비: 이전 시대에는 희미하게 알려지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그것을 알려야 할 시간이 충만히 차게 되면서 사람들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진리, 신약 단수 22, 복수 5,

대다수가 서신서에서 발견됨

구약시대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 확연히 드러난 진리

가장 큰 것: 교회(엡3, 골1), 휴거(고전15:51) 등 조만간 설명하겠다.

신비의 구체적인 내용(6)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속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6).

구약 시대: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희미하게 알려져 있었다.

1.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 세상의 구원자

2. 창12:3, 28:14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창 28:14)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영적 육적 축복의 말씀, 그러나 아직 희미하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 이방인 몹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희미하다.

왜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려웠을까? 하나님이 이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을까?

고조선, 삼국 시대, 고려, 조선 시대, 이순신, 세종대왕, 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였을까?

왜 거의 구원받지 못하였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포기해 버렸다.

그 다음 순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생각을 주심

로마서 1장의 설명, 이방인들의 모습, 과거나 현재 모두

1:28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뒤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의 명단: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의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함

이런 식으로 구약 4,000년이 흐름, 이방인 구원 거의 불가능
예수님의 초림 사역: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마10:5-7)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 등 소수의 이방인 구원

십자가 사건 이후: 모든 것이 확 바뀜(마28:19)

이런 것을 dispensation이 바뀐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동일하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런데 경영 방식은 다르다. 이제는 짐승 희생, 제사장, 성전, 의식 모두 사라짐

경륜이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구약 dispensation, 신약 dispensation

교회 시대가 열림, 사도행전 1-9장, 초반부 교회 전체가 유대인, 혹은 유대인들의 피를 가진 사람들
사도행전 10장: 백부장 고넬료, 처음 구원받은 이방인, 10년이 걸림

유대인들은 이방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함, 베드로를 비방함, 행11장 베드로의 설명: 최종 결론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행11:18).

이것이 바로 신비이다. 구약 시대 대다수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3장 5절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한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 교회의 신비이다.

교회의 신비(혹은 교회라는 신비, 신약 시대 진리, 6)

이 교회의 신비가 계시로 바울에게 주었다(3:3).

복음과 교회의 신비를 전할 자가 필요하다.

행9장,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행9:15-16)

계시라는 말: 드러내어 보여 주셨다는 말이다.

3:4의 그리스도의 신비: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신비한 분이라는 말이 아니다. 인성과 신성,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이런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신비, 혹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비: 구체적인 내용 6절

요약

우리는 복음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교회의 일원인가? 이것이 은혜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는가?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자이다(엡16)

성경: 엡3:1-7

2,000년 전, AD 27년경, 유대 광야에 침례자 요한 등장,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곧 왕으로 오신다.

그는 대언자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의 전령으로 예언한 사람(사40:3-6)

예수님의 말씀: 마11:1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교회 계획이 드러나지 않은 때

요약: 그는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 그런데 여전히 구약 시대 사람, 이 구절 의미 확대: 신약 시대 성도라면 누구나 침례자 요한보다 크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몸(교회)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처럼 교회는 위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 크게 두 가지, 롬15:8-9, 갈4:4-5

유대인 사역,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교회 계획을 발표함(마16:15-18)

베드로의 믿음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18).

그리고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21). 베드로의 책망(22), 예수님의 단호한 책망(23)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는 계획 전모를 드디어 드러냄,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반발함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 왜 이토록 마귀가 교회를 싫어할까?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 준다. 교회 이해, 교회 전파
오늘 < >, 교회, 곧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책무를 맡은 청지기,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려 한다.

맥아더, 바울

지난 주, 맥아더 목사님의 에베소서 3장 앞부분 강해를 듣고 그분의 주석을 보았다.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 극도의 칼빈주의, 현대 역본 옹호 등 몇 가지를 빼면 현시대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 말씀 교사, 주석가, 설교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Grace to you, 모든 설교 유튜브 혹은 MP3 음성으로 듣고 다운받을 수
있다. (*), 영어를 하는 사람들 참조하라.

구약, 신약 66권 책, 장별, 절별로 모든 설교가 배열되어 있다(55년).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다.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설교문, 이 사이트에는 목사님의 설교 자체가 다 그대로 영어로 올라와
있다. 영어를 하면 설교문을 보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다. (*)

내가 더욱 놀란 것, 엡3장 설교는 오디오만 있다. 그런데 그 설교는 1978년 4월 22일에 한 것이다.
지금부터 45년 전, 1939년생, 만39세에 한 것이다. 정말로 놀란 것,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의 교회의 부흥, 그의 사역의 발전,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서 왔다. 가르치는
일은 공적인 것, 기도는 사적인 것, 후자는 내가 모르지만 전자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그의 모든 설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맥아더 신구약 주석이 수만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다(아마존).

에베소서주석을 보니 설교와 거의 비슷하다.

그만큼 그는 목회 시작부터 철정하게 성경을 탐구하였다. 그 큰 교회 사역,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 50년이 지나서 85세 정도라 조용히 설교하지만 45년 전의 목소리는 폐기와 에너지가 넘친다.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다.

다시 이야기한다. 그분의 모든 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 뛰어난 것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 배워야 한다.

문서와 기록으로 모든 것을 남긴 것, 정말로 훌륭하다.

그런데 맥아더나 나나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닮고 싶은 사람, 물론 예수님 다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 다소의 사울, 사도 바울이다.

사도행전 13장부터 그의 1-3차 선교 사역,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14장 루스드라에서의 설교, 17장 아테네에서의 설교, 20장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설교, 22장,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뒤 그들에게 한 설교 등, 명문의 설교(논리와 설득력이 풍부함), 얼마나 유창하게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였을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그는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적어도 2년 동안, 19:9-10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는 소아시아(터키 서부 지역) (*), (*)

바울 당시 에베소: 전 세계 5대, 10대 도시 중 하나, 다이애나 신전, 뉴욕과 같은 도시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한 일은 무엇인가?

맥아더, 나, 우리 성도들이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1절), 예수님에게 매여서 산 사람

3장 7절, 그는 은혜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같이 동일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야겠다는 부담, 짐

사랑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침례교회가 복음을 전달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한다.

구약 시대 이후 신약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의 빼어난 행복(엡7)

성경: 엡3:1-9

요즘 에베소서 강해, 교회의 신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행복, 엡1:3

구약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복이 주어지지 않음

히브리서: 바울, 구약과 신약 비교, 더 나은, 더 좋은(better), 히1:4부터 12:24, 13번

히8:6,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비교가 안 된다.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 신약은 실제

히10:1,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수표와 현금의 차이

히11장 구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 행적,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11:32

히11:39-40, 우리 신약 성도들이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현실이 된다. 또 그들의 구속이 현실이 된다. 계시의 완성, 신약 시대 이렇게 신약 시대가 좋다.

오늘 < >, 구약과 신약 비교, 바울을 구약 성도에서 신약 성도로 바꾼 사건, 그 이후의 그의 삶과 인생관의 변화, 교회의 신비에 대한 매력, 열정, 3장 구조 설명

구약과 신약 비교: 가장 큰 차이 교회

과거 구약 시대: 아브라함 등을 통해 이방인들의 구원이 알려짐

창12:3,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그런데 희미하다!

사람들 가운데 여자의 씨 메시아를 내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들을 택하셨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요4:22).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부활 사역을 이루신 뒤에는 하나님의 인류 경영이 한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다.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다(1:22-23).

갈3:24-29 설명,

구약의 율법, 죄인임을 보여 줌, 구원의 필요를 보여 줌,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이후(25), 26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이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28), 그 결과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씨(29) 이스라엘의 폐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이 따로 있다.

교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3). 이 교회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골3:11, 거기에는(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이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구원받기 전의 바울: 그는 유대교에 열심을 내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헐박하고 죽이던 사람, 주의 성도 스테반이 돌을 맞고 죽을 때 사람들의 옷을 맡아 주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 그리스도인 핍박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려던 사람, 행9:1-2, 살기가 등등함, 위협을 쏟아냄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귀 복음의 사역자

오늘 바울의 말: 7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딤후1:12-16, 설명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 모든 것이 변하였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오직 유대인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4)인 교회를 알고 나니 그의 전 삶이 바뀌며 온 인류를 보게 되었다.

교회 사역 시작

그 교회의 특징, 2:8-9,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에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 중간 분리벽이 무너짐(14)

구약의 외적인 율법 규례들, 이제는 전혀 필요 없다. 할례, 절기, 정결례 등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15).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지킬 수 없는 것, 원수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이 둘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15). 즉 민족, 성별, 피부색, 나이 차별이 없다.
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접근권, 18). 19절, 동료 시민, 하나님의 집안사람들, 하나의
전(21), 하나님의 거처(22)

숨 가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 축복 등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다.

3장의 구조

이제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 그들을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다.

사도행전 21장, 3차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힘,

벨리스 총독 밑에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서 2년을 보냄(행24:27),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오
카이사르에게 상소함

그 뒤 로마로 이송되어 지금 이 편지를 쓴 시점, 그는 로마에 있는 감옥, 실제로는 자기의 셋집(행
28:30), 로마 군인에 의해 통제를 받음, 약 3년이 지난 시점, 즉 옥에 갇혀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은 지 5년쯤 되는 시점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가 들려주고 싶은 말: 엡3:1, 나는 원래 유대인인데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교회라는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려고 평생을 질주하며 살다가 지금은 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나를 옥에 둔 존재는 로마 제국이나 총독이나 군인들이 아니다.

나를 지금 옥에 두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3:1), 그리스도의 갇힌 자.

옥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빌립보서 1:12-14, 4:22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나는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이다.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이다.

지난 주 내게 가장 큰 은혜가 된 말씀: 고통과 고난, 어려움, 모든 인간에게 닥친다. 바울에게도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

고후6:9-10,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이 바울이 꼭 들려주고 싶은 것, 교회, 이전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5)

여기 5절에서 '이제'라는 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딱 이때'라는 말이다.

십자가 사건 이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특별히 바울의 회심 이전, 고넬료의 구원 이전, 그 이후
그때까지는 너희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일,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일이 나를 통해 '이제'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한다.

3장 1절: 원어에, 영어에는 동사가 없다. 우리말 '말하노니'는 첨가한 것이다.

그 기도의 내용, 14-21절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기도를 하려고 펜을 들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기도의 목적: 교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데 막상 이런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 과연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 확실히 아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그는 2-13절을 할애해서 2장에 설명한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2-13절은 괄호와 같은 부분, 그래서 괄호를 빼면 1절 시작 이런 까닭으로, 14절 시작, 이런 까닭으로가 같다. 그러니까 원래는 2-13을 빼고 1, 14를 하나로 묶으면 바울의 기도가 된다.

결론

2, 3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가?

그는 인생의 황금기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했다.

과거에 그는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던 유대인이었다.

갈2: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지만

그가 깨달은 것: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루는 교회가 도래하였다. 그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신비

그는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빌4:12-14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30년 동안 여행하며 위협을 당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 목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나도 교회의 신비, 은혜의 복음을 알리려는 짐을 지고, 부담을 안고 살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지역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고 있다. 시간, 재물, 애정

브리스길라, 아굴라같이 부부가 오는 경우도 많지만 형제 홀로 자매 홀로 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홀로 오는 자매들의 경우 성경에는 이름이 명기된 몇 사람이 있다.

롬16:1-2, 뵈베

빌4:2,4 유오디아, 순두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행16: 빌립보 사역, 두아디라 시 출신의 루디아

예수님의 공생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며 사랑한 사람들, 다 여자들이다.

그러므로 홀로 우리 교회에 오시며 믿음을 지키려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귀중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다(엡5:25).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예수님의 몸, 신약 교회, 우리 교회 목표: 신약 교회 추구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부담을 안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남기 원한다.

마16:18

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한다.

신약 시대에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들(엡1B)

성경: 엡3:1-6

요즘 에베소서 강해, 3장 1-6, 그리스도의 신비로 표현된 교회의 신비, 영어 mystery

오늘 < >, 신비, 계시, 대언자, 사도 등 설명하겠다.

신비, mystery 단수 22, 복수 5, 총 27회 (*), 신약 성경에만 나온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 비밀, 즉 숨겨진 것을 뜻하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진리를 뜻한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으나 신약 시대에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알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중 일부만 사람들에게 계시하신다.

신29:29,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Revelation)

즉 하나님의 진리, 계획 중 인간에게 알려진 것들은 인간에게 계시가 된다(3).

계시(Revelation)라는 말은 드러난다는 뜻이다. (*) 예를 들어 계시록, 하나님의 재림 계획이 다 드러났다는 말이다. 숨겨진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의 대부분을 알지 못하였다.

아브라함, 조금 더 많이 알았다.

다윗, 조금 더, 이사야 조금 더, 말라기 조금 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을 보라. 유대인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

이런 것을 dispensation의 변화라고 말한다. (*)

결국은 이 일을 위해 사도 바울 등장, 바울의 서신서에 가서야 비로소 신약 교회 시대에 드러날 일들이 계시되었다.

그런데 바울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자세한 재림 사건, AD 95년경 요한계시록 그 뒤로 계시가 멈추었다.

특별히 신비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신약 교회 시대의 진리들을 가리킨다.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신비를 담고 있다: 올리브 나무의 신비(롬11:24-25),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롬16:25-26; 엡3:4),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고전2:7), 휴거의 신비(고전15:51), 교회의 신비(엡3:1-6),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신비(엡5:32), 복음의 신비(엡6:19),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골2:2), 불법의 신비(살후2:7), 믿음의 신비(딤후3:9),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딤후3:16), 음녀 바빌론과 짐승의 신비(계17:5-7)

이것들이 신비라 불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님께서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 즉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계시되지 않은 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시의 기록(3-4)

계시의 기록이 영감이고 영감의 산물이 성경기록이다(딤후3:16-17). 벧후1:20-21

교리

엡3:3-4, 하나님의 모든 계획, 뜻의 계시는 성경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계시의 기록자: 기록한 사도들과 대언자들(5)

이들은 신약 시대 사도들과 대언자들, 여기서는 이들을 기록하다고 한다.

의미: 이들이 100% 완벽하고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다. 기록하다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뜻

즉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신약 시대의 신비들을 드러낼 목적으로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특별히 사도들은 성경 기록의 계시와 영감과 주로 관련이 있다(마태, 요한, 바울(누가), 베드로(마가) 등).

사도(*)

사자(使者) 혹은 특사. 이 말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특사이신 예수님께도 적용되었으나(히3:1,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낸 특사들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분의 주요 제자들이었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권위와 성령님의 충만을 주셨고 자신의 교리를 맡기고 자신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것을 부탁하셨다. 그들은 열두 지파에 상응하여 열두 명이었으며(마19:28) 평범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다. 그들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책무를 맡은 뒤에(마10:5-42) 자신들의 주인을 섬기며 그분의 일들을 증언하고 그분의 영을 흡수하며 점차로 복음의 교리와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친히 그들을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게 하셨다(요15:27; 고전9:1; 15:8; 고후12:12; 살전2:13). 그들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큰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 혹은 레위, 가나안 사람 시몬, 다대오라 하는 렘베오 혹은 유다, 알패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가룟 유다(마10:2-4; 막3:16-19; 눅6:14-16) 등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을 매어 죽었으며 후에 그를 대신해서 맛디아가 사도로 뽑혔다(행1:15-26). 사도행전에는 자신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행하며 고난을 당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였으며 특히 사도임을 입증하는 사도의 표적들 - 죽은 자를 살리고 안수하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 것 등 - 을 보였다(막16:17-18; 고후12:12).

사도들은 초대 교회에만 존재하였으며 지금 이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시대에 자칭 신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 사도들이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도로는 바울이 있다.

대언자: prophet, prophecy(*)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대변인

옥스퍼드 사전: 1. One who speaks for God or for any deity, as the inspired revealer or interpreter of his will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나 해석하는 사람

구약 시대,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모두가 대언자이다.

그들이 전한 말씀은 대언이다. 내용: 하나님의 경고, 회개 촉구, 일부가 앞날의 예언

그러므로 prophet, prophecy을 예언자, 예언으로 번역하면 성경을 망치는 것이다.

신약 시대 초기: 성경 말씀이 완전하게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전달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신약 시대 대언자들, 이들은 주로 믿음의 실행과 관련 있는 일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 행15장 32절의 유다와 실라,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신약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짐(엡2:20)

신약 시대 선물(고전12:28-29),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대언: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번역하면 지금도 예언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돈을 버는 자들이 생긴다.

성경의 Prophet, prophecy는 대언자이고 대언이다. 대언의 일부가 예언이다.

예언, 예언자로 번역된 성경은 수백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부패하게 만든 것이다(*).

나중에 개역성경분석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AD 90년 이후로 성경 말씀이 완전히 주어진 이후로 방언과 대언은 사라진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인들, 사역자

고전1:1-2

1절: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베드로, 아볼로를 사역자라 하였다.

minister: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고전3:5), 로마의 배 밑에는 꾸준히 노를 젓는 자들이 있었다.

상관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사역자이다.

또한 그들은 청지기였다. 청지기의 특징: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 주인의 것을 바울은 종종 '하나님의 신비들'이라고 하였다.

2절: 청지기의 책무: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 그는 주인에게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이든 아볼로든 누구든 "내가 설교를 잘하나? 인기가 많으냐?"가 아니라 "신실한가?"로

판단 받아야 한다. 눅12:41-48의 청지기

개인의 삶, 집, 말씀 사역 등에서 신실해야 한다.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 그리스도, 교회, 믿음, 이스라엘,

음녀 바빌론, 적그리스도

딤후2:15,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분배하는 사람

교회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도구(엡14)

성경: 엡3:7-11

에베소서 강해, 에베소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그는 약 60세, 처음 30년 유대인 중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핍박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 마지막 30년,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에 미쳐서 전 인생을 그분과

그분의 일에 바치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 2-3년 동안 동고동락한 에베소 성도들 생각

내가 왜 옥에 갇혀 있는가? 교회, 특히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3:1, 8)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교회, 이전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5), 내용(6)

그는 이미 2장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그 교회의 특징, 2:8-9,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에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 중간 분리벽이 무너짐(14)

유대인 그리스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약의 외적인 율법 규례들, 이제는 전혀 필요 없다. 할례, 절기, 정결례 등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15).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지킬 수 없는 것, 원수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이 둘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15). one new man

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접근권, 18).

19절, 동료 시민, 하나님의 집안사람들, 하나의 전(21), 하나님의 거처(22)

숨 가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 축복 등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다.

바울이 기도하려 함

그는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다.

3장 1절: 원어에, 영어에는 동사가 없다. 우리말 '말하노니'는 첨가한 것이다.

그 기도의 내용, 14-21절

기도의 목적: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의 신비를 깨닫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데 막상 이런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 과연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 확실히 아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그는 2-13절을 할애해서 2장에 설명한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2-13절은 괄호와 같은 부분, 그래서 괄호를 빼면 1절 시작 이런 까닭으로, 14절 시작, 이런

까닭으로가 같다. 그러니까 원래는 2-13을 빼고 1, 14를 하나로 묶으면 바울의 기도가 된다.

2-13절 괄호

교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학적인 설명

5절, 교회: 구약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은 신비

6절: 신비의 내용

7절: 나는 은혜의 복음과 교회의 신비를 알리는 사역자

8-9절: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가를 알리는 일

10-11절: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리는

도구, 아주 미묘한 말이다.

12절: 교회는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다.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 간구할 수 있다.

13절: 이 오묘한 교회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 나는 지난 30년간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다(고후6, 11).

그런데 그것은 다 너희(이방인들)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늘 < >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대한 역할이

교회에 있다. 10-11절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 존재들(10-11)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in heavenly places)
교회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는 도구(10)

6장 12절, 우리의 영적 싸움 대상,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 천사(Angel) 임무를 수행하는 자. messenger, 이것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모두 일차적으로 사자(使者)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능력이나 지혜 면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세상사를 집행하시기도 하고 개인이나 국가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하신다(마1:20; 22:30; 행7:30 등). 그들은 순수한 영이나 혹은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타난다(히13:2).

성경은 천사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남성 단수 대명사 he를 사용하며 이로써 천사들이 남성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 혹은 날개 달린 천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한편 천사들은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욥38:7).

천사들은 수가 매우 많고(단7:10; 마26:53; 눅2:13; 히12:22-23) 힘이 매우 강력하다(시103:20; 벧후2:11; 계5:2; 18:21; 19:17). 히스기야 당신 산헤립의 침공, 왕하19:35,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천상에는 천사들과는 다른 종류인 그룹, 스타프 등이 있다(사6:2-6; 겔10:1).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장이 있고 왕좌, 통치, 권능, 권력 등은 천상에 존재하는 여러 등급의 존재들을 가리킨다(골1:16; 계12:7).

천사들은 성경의 여러 사건에서 언급되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한 섬기는 영들이다(시91:11; 103:20; 히1:14).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계19:10; 22:8-9). 성경은 천사들이 크리스천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 준다(마18:10; 눅16:22; 히1:14). 특별히 천사들은 사람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눅2:10-12; 15:7, 10; 벧전1:12).

- 오늘 권력들, 권능들(1)
- 강력(Might) 이것은 천상의 영적 존재들의 한 등급을 뜻하기도 한다(엡1:21).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엡1:21)
- 왕좌(Throne) 골1:16에서 이 말은 천상의 영적 존재들의 한 등급을 말한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교회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이고 알리는 도구
특히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루시퍼의 타락,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람의 창조, 우주의 창조 전, 과거의 영원 어느 시점에 셋째 하늘에서 루시퍼의 타락(사14:12-15), NIV, 개역은 계명성의 타락, 겔28:11-19, 덮는 그룹.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천사들의 삼분의 일이 같이 타락하여 사탄의 천사들, 즉 마귀들이 되었다(마25:41; 계12:9).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 약 6,000년 전의 일
 맨다수 성도들, 창세기 등 성경을 통해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것, 인간의 구속을 위해 여자의
 씨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것, 율법 시대, 죄를 보여 주고 희생 제사를 통해 완전한 속죄의 예표를
 봄, 4,000년쯤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단번 속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등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역사를 주로 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엡3:10-11,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리려 하신다. 즉 교회는 천사들을 참 교육시키는 도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벧전1:10-12, 구약 시대 대언자들,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받아 연구함,

내용: 혼의 구원(10), 필요한 것(고난과 영광 11),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수행함(12), 우리는 신약
 시대 교회,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 교회에 관한 일들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심지어 사탄 마귀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 중 하나가 교회의 신비이다.

1. 세상의 구원자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는 지혜(요3:16)
 마귀와 천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
2. 자신의 아들을 성육신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지혜, 완전한 희생 예물
3. 처녀 탄생의 신비,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님에 의해 여자의 씨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지혜(죄
 없는 피를 가진 분)
4.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희생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지혜
5. 전가의 원리로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시는 지혜, 에덴동산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온 인류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심, 십자가에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지혜, 수많은 죄인들의
 수많은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수천만 번 세상에 올 필요가 없다(롬5:12; 17-19),
6.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는 지혜(벧후1:4),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여기에 큰 지혜가 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천사들도 얻지 못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요1:12).
7.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롬8:17). 심지어 천사들을 재판하는 권능도 갖게 하신다(고전
 6:3).

천사들, 특히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람이 이런 종류의 신분을 갖는 것 상상도 하지 못함

히2:9, 사람은 원래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존재, 그런데 구원자 사람이 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들을 능가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가능하게 됨

그 결과 그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함. 이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온갖 지혜를
 영적인 존재들에게 알려주심. 참교육을 시키심

11절: 이것은 임시방편의 대책이 아니라 영원 전에 작정하신 계획이다.

결론

왜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셨나? 한 가지 이유,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려고

그런데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

하나님의 지혜 중 우리 편에서 가장 큰 지혜: 천사들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린다(1:3).

이것은 천사들에게는 깜짝 놀랄만 한 일이다.

이런 특권이 바울 이후 들고 돌아서 여기 한국에까지 왔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런 특권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는가?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엠펜)

성경: 엠펜3:14-21

지난해부터 에베소서 강해, 요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에 대해 많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특권에 대해 알려주는 에베소서 강해가 나를 기쁘게 한다. 목사의 책무 절감

에베소서: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에 미쳐서 30세 이후의 전 인생을 그분과 그분의 교회 개척 사역에 바치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 가이사랴에서 이미 2년 옥살이, 총 5년 옥살이

2-3년 동안 동고동락한 에베소 성도들 생각, 가장 오랫동안 함께함. 사도행전 20장, 눈물겨운 이야기

내가 왜 옥에 갇혀 있는지 아느냐? 교회, 특히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3:1, 8)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는 이미 2장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였다.

숨 가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 축복 등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서 즉시 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함(14-21)

기도의 목적: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의 신비를 깨닫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데 막상 이런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 과연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 확실히 아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그는 2-13절을 할애해서 2장에 설명한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교회, 이전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5), 내용(6)

천사들 교육하는 도구(1)

오늘 < >, 옥에 갇혀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2군데 나온다.

1:15-23, 17-19절

1.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2.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며, 3. 성도들이 누릴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4. 그분의 권능의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3:14-21,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너희가 강한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

즉 1.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깨닫고 2. 그들이 배운 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러려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

14-15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너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15절: 기도의 대상,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그것이 이름을 준다는 말이다.

정동수, 베쓰, 유니스, 에스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들의 이름을 얻었다고 생각함

그러나 바울: 구원받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인간 누구도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른다. 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한다,

15절: 하나님의 가족은 지금 하늘과 땅에만 있지 땅 아래에는 없다.

연옥 같은 것 없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다. 빌2:9-10,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 굴복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들은 지금 땅과 하늘에만 있다.

16절: 그들의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일은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성전 건축, 힘이 약한 유대인들,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 스4:6,

1. 하나님의 말씀(살전2:13):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는다.

2. 20-21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 이상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있게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다(행6:4).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부흥: 말씀 선포와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 일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다: 행1:8, 올해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사역 집중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어디 있다가 집에 가면 편안하게 느낀다. 집은 편안한 곳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편안한 집으로 생각하시게 하라.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런데 모든 신자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편안한 집이 되지는 못한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기간에 여러 군데를 다니시고 여러 사람의 집에 묵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거하기를 기뻐하셨다(요11:5).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듣기를 좋아하며 그분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이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집에 거하시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실까?

이 일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내주하시려면 믿음 필요. 그 뒤 편하게 거하시려면 믿음 필요, 히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에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17-19, 에베소서의 또 하나의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19). 그러려면 17절 후반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야 한다.

거대한 나무를 생각해 보라. 나무가 안정적으로 수백 년 동안 서 있으려면 뿌리가 깊이 넓게 박히고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것은 사랑의 습관을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와 말씀을 사랑하는 것,

사랑에는 이런 것도 있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도 있다(고전13:6).

불법: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등

나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뿌리가 없이 성령의 열매를 원한다. 고전13장을 자세하게 읽기 바란다. 뿌리를 내리고 확고하게 터를 잡아야 한다.

18절은 묘한 말씀이다.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

깨닫고, comprehend, 는 꼭 부여잡는다는 뜻

그런데 무엇이 너비, 길이, 깊이, 높이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 그것이 모든 것을 채우는데 그 사실을 부여잡아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1. 교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것, 교회의 신비

에베소, 다이나나 신전, 그 규모가 방대하여 세계 칠대 불가사의
에베소 사람들은 매일 그것을 바라보아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처(2:21-22)는 우주 공간을 채우고도 남는다.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1:23, 3:19)

2. 앞뒤 문맥상 온 우주 공간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은 물론 공의의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무한대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1초도 존재할 수 없다.

3장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19절 그 사랑을 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훌륭하게 말하고 있는지는 주목해 보자. 예수님의 구속하는 사랑의 차원 즉 너비, 길이, 깊이, 높이는 감탄할 만 한다. 그 너비, 길이, 깊이, 높이는 우주 공간을 다 채운다. 이러한 차원을 열거함으로써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극히 위대함을 보여

준다. 그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높이) 지옥보다 깊고(깊이) 땅보다 길고(길이) 바다보다 넓은(너비) 사랑이다. 욥11:7-9의 하나님 표현

어떤 사람들은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사랑의 너비는 모든 연령층, 국가 및 계층에 적용된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식무식, 그 기간의 길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된다. 그 깊이는 죄와 비참함의 깊은 곳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까지 내려간다. 십자가의 죽음도 자처한다. 그 사랑의 높이로 인해 우리는 하늘의 행복과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거기로 들어간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특성이다.

19절,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이미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다.

개역: 지식에 넘치는 사랑, No! 오역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말의 의미: 사람의 학습으로 알 수 없는 사랑이다.

그것이 지식을 뛰어넘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의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을 표현한 것이다.

롬8:35-39,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사랑이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성육신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기 위해 여전히 갈망하고 노력해야 한다.

19절: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매우 고귀한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된다는 표현이다.

골2:9-10,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2:10)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바울의 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주셨는데 왜 빈곤하게 살아야 할까? 공허한 삶은 실망스럽고 위험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불순종의 영(2:2)이 일하여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된다.

20-21절은 감동적인 축복을 선언하며 편지의 첫 부분을 마무리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어떤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의 권능이 일한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지속적인 교제를 키우고, 기도하고, 말씀에 복종할 때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

바로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한다.

흠에 불과한 존재들, 미신과 무지에 잡혀 있던 이교도들, 성육신,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바로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돌려지기를 원한다.

결론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영적 자세"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의 비밀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1.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이 이미 앉아 있고(2:6),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며(2:20), 그래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자격이 있다(3:14). 그래서 그는 소명에 합당하게 견고(4:1), 모든 일에 성장하며(4:15),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6:14 이하)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지위는 우리가 지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024년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의 의미(엠펠)

성경: 엠펠4:1-3

지난해부터 에베소서 강해, 20번,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교리와 실행의 균형

에베소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6장, 앞 3장 교리, 뒤 3장 성화 실행
후반부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걷다(4:1, 17; 5:2, 8, 15)이다.

기존 개역성경 등, 행하다로 번역함

갈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개정).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한킹).

(엠펠 5:2, 개역)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엠펠 5:8, 개역)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엠펠5: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표준국어대사전: 행하다, 어떤 일을 실제로 해 나가다.

그러므로 무심코 읽으면 무언가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개역성경 등의 ‘행하다’는 다닐 행자를 쓴 것이다. 즉 걸으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걷다’는 삶에서 진리를 실행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2살쯤 되면 걸어 다닌다. 그것이 삶이다. 이런 것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

첫 3장 교리: 우리의 부요함, 영적 자산, 영적 복

후반부 3장: 1.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4:1-6), 2. 순결함을 지키는 것(4:17-5:17), 3. 조화를 이루는 것(엠펠5:18-6:9), 4. 승리하는 것(6:10-24)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행하며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걷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 < > 교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겸손하게 걸을 수 있을까?

서론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회사)에 합류하면 그 조직의 기준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는 회사의 목적, 목적, 표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직원은 회사의 규칙, 기준 및 목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한 나라의 시민은 자국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봉사 클럽의 회원들은 클럽의 목표를 증진하고 클럽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어떤 사람이 운동 팀에 합류하면 코치의 명령에 따라 스포츠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 사회는 그러한 의무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 우리는 인정받고 속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우에 단체, 사교 클럽, 운동 팀 또는 기타 그룹에 인정받기 위해 거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그룹에 의해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영적 안전과 축복, 약속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만 복음의 표준을 따르고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왕국의 시민이 되고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이미 되었다. 그러한 축복과 특권과 함께 우리는 의무도 받았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분의 표준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본성이 되기를 그분은 기대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대하신다. 그것은 외적인 규칙과 규정에 강제로 율법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신을 아버지로 공경하기를 바라시는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사랑, 뜻에 기꺼이 내적으로 순응하는 것이다.

바울의 간청: 그러므로 내가 간청한다(1).

1절: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너희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따라서 이제는 의무를 행해야 한다. 교회에서 섬겨야 한다. 그런데 무지 가운데 하면 안 된다. 알고 해야 한다.

엡1-3, 바울은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니 이제 멤버가 되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마땅히 의무를 행해야 한다.

“교리를 내게 말하지 말라. 나는 성도로서의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어요. 주님만 바르게 섬기며 살면 되지요.”

이것은 무지를 드러내는 말이다.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무엇을 믿느냐는 큰 상관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지를 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리를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알고 나서 의무를 해야 한다.

교회의 부흥은 다양한 프로그램, 노래, 건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교리를 알고 실천하는 데서 나온다.

여기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죄수임을 강조한다(3:1).

1. 소명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고난일 수도 있다.

2.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너희에게 부탁한다.

바울이 간청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 즉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너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신약: 하나님이 바울을 써서 간청하신다.

내가 이미 복을 주었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소명이 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 것을 바울은 간청하고 있다.

빌1:27,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소명에 합당하게 걸으라(1)

소명(vocation), KJB에 1번, calling, 부르심

군대에 간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러면 나라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다.

그것을 지켜야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다.

그것을 지켜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소명, 혹은 부르심은 낮은 부르심이 아니라 높은 부르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쫓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간다.(빌3:14).

하늘의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히3:1).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딤후1:9).

이런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다, 롬8:29-30

합당하게: 균형을 유지하며

걸어야 한다. 배운 것들을 실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 됨(1-3)

3절에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 the unity of the Spirit, unity 3번(시133:1),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쁘는가! 엡4:3, 13

Unity, Uniformity, 어떤 면에서는 일치라고 볼 수 있다. 일치: 비교되는 대상들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들어맞음.

유니티: 내부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

유니포미티: 외부에서 압력에 의해 하나가 되는 것

교회는 유니티를 이루어야지 유니포미티를 이루면 안 된다.

금요일 저녁 새로 오신 형제님과 대화, 1,000여 명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루는지 정말로 신기하다.

우리 교회 모든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유니티

바울은 사람의 몸을 하나 됨의 근거로 사용한다(고전12). 4:13-16에서도 비슷한 예를 든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각각 다른 기능을 한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일한다.

이런 하나 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것이다(4:3).

그런데 강제로 일치를 이루는 경우도 많다. 이단 집단의 특징, 금요일 개역성경으로 인해 이단이 되는

일 설명, 신천지

신천지 '10만 수료식' 12일 대구스타디움서 개최...안전·질서 모범, 2023년 11월 13일자(*)

신천지예수교회의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이날 대구스타디움에서 '신천지 12지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10만 수료식에서 배출한 수료생은 총 10만 8084명이다. 2019년 10만 3764명, 2022년 10만 6186명에 이어 세 번째 10만 명 이상 수료생을 배출했다.

국내외 목회자 6,700명 참가(개종자)

수료식에서는 '신천지가 증거하는 신약 계시록: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란 주제로 1만 명 이상이 참가한 15분간의 카드섹션 퍼포먼스가 펼쳐져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요한계시록 전장'의 의미를 압축한 이번 카드섹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이 이뤄진 실체를 카드로 표현해낸 종합문화예술 콘텐츠로 평가된다.

일사분란하게 카드 섹션하는 것, 유니포미티,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니다.

하나 됨을 이루는 요소들

성도들이 하나가 되려면 최소 6가지 요소 혹은 덕이 있어야 한다.

1. 겸손함(lowliness), 겸손이란 무엇인가? “나는 겸손해!” 하고 말하는 순간 사라지는 미덕
JOY 선교회,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다음, 나는 세 번째,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데 우리 이상으로 우리를 높이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롬12:3,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객관적으로 보는 눈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성도들이 자기를 낮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모두가 머리가 되려 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규칙, 철학, 문화 등을 배워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겸손 즉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2. 온유(meekness),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마11:29), 그런데
성전에서 돈 바꾸어 주는 자들, 채찍으로 내쫓으신다.

절제가 있는 힘을 나타낼 때 온유라는 말이 사용된다.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리더, 부모, 교사, 교회에 오래 나온 분들,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늘
부드럽게 절제해야 한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3. 오래 참음, 누군가가 좋지 않은 의도로 공격해도 되받아치지 않고 오랫동안 견디는 것
욥의 인내(약5:10-11), 이게 쉽지 않다.

요즘 하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 나도 오래 참음을 잇을 때가 있다. 한 목사님의 조언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고집 센 사람은 4X7=27 이라 주장하였고 똑똑한 사람은 4X7=28이라 주장했다.

두 사람은 답답한 나머지 고을 원님께 찾아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뒤 고집 센 사람에게 말을 하였다.

"4x7=27이라 했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됩니까?"

그러자 고을 원님은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27이라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 답한 놈은 곤장을 열대 쳐라 !

고집 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다. 곤장을 맞은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원님의 대답은

"4x7=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나라.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우치게 하려 한다."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랑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이 된다.

4. 사랑으로 참아 주는 것(2절, 고전13:4), 아가페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갈5:22-24,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걸을 때에 나오는 열매이다.

5. 수고하는 것(힘써 지키다, 3), 교회의 하나 됨은 성도들이 힘써 지키려 할 때 이루어진다.

남녀가 사랑한다고 말하며 결혼하다.

모두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이루어진다.

약 2주 전, 강원도 여행, 아이들, "엄마 아빠는 이번에 설악산 여행 아주 행복하게 다녀왔다. 엄마와 결혼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이번에 다시 느꼈다. 너희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구나. 사랑한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오손도손 아옹다옹 많이 다투면서 살았다. 주로 내 처가 치열하게 살았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늘 배려하고 질서 있게 말하고 행한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자로 무섭게 돌변한다.

내 생각: 나한테라도 이기면서 살면 좋은 것 아닌가? 나야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40년이 지난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

가정, 주일학교, 교회, 국가 모두 구성원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문제, 헌법이라는 머리,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중북,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좌측으로 틀리고 한다. 이래서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하나만 되면 2050년경에는 아마 세계 2-3등 국가

페미니즘, 결혼 아이들 출생, 국민이 헌법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6. 화평(3)

화평의 때는 띠(약3;13-4;10)

우리의 외부에서 전쟁이 생기는 이유, 내부가 평안하지 않아서

화평, 가장 큰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깨게 된다.

골3:15

결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교회를 이루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 우리를 부르심에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여기에는 규칙이 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합당하게 걷고 있는가 보기 바란다.

교회의 하나 됨에 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소명에 합당하게 걸으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엠펙2)

성경: 엠펙4:4-6

지난 시간 엠펙4:1-3,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교회를 유지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힘쓰는 것, 화평을 지키는 것 등이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의 사랑침례교회가 오랫동안 하나 됨을 지속하려면 이런 미덕들이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한다. 오늘 < >, 소명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소명이라는 말

우리는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소명: 1.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2. 기독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예: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성직자가 되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소명이라는 말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교회에서는 목사만 소명을 받는다.

왜? 소명이라는 말을 꼭 목회 사역하고만 연관 짓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받았다고 말한다.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많은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구약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제사장이 낀다. 제사장이 없이는 종교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 제사장 체계를 폐지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마27:51).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폐지하신 인간 제사장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놀이하는 자들에 의해 복원되고 천주교라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 무려 1,0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힘

제사장과 평신도 개념, 제사장 특권 의식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회복함, 그래서 루터 등 다수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았음을 가르침

그래서 목사가 아니더라도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인식, 천직

이런 의식이 들어가면서 개인의 자유, 직업관 등이 소명 의식에 의해 바뀌면서 근대 시민들이 생겨나고 결국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근대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것을 가장 잘 접목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vocation, 직업 생업(*)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 회사원, 가정주부, 은퇴했어도 모두 처한 곳에서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의 직업윤리이고 이것을 쫓을 피우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한민국 등

목사의 소명

소명이라는 말이 목회의 소명을 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은 목회의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난 주, 차를 타고 가다가 맥아더 목사님 예배소서 강해, 맥아더 목사님 교회에도 목회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회 사이트에 <목사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5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 칼럼에 올렸다.

1. 첫째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한 욕구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일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한 내적 욕구, 이 일을 안 하면 살 수 없다는 영혼의 불안감; 너무 강해서 다른 모든 욕망을 배제하는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2. 둘째, 강력한 외부의 격려입니다. 즉,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형제님은 이 일을 꼭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사역을 해야 합니다. 저도 도울 수 있습니다.”
3. 셋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데 평생을 바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위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목회를 하려는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종종 누락됩니다.
4. 넷째 원칙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하는 일에 압도적인 압박이 있어야 합니다.
5. 다섯째, 교회가 확증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로이드 존스도 동일하게 말하는 점입니다. 당신은 사건이나 당신이 들은 메시지, 설교나 당신이 읽고 있는 책, 또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킨 어느 순간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하늘이 당신을 감동시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의 확증이 그 사람의 소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코멘트: 참고로 저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둘째와 다섯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3개는 자기 도취로 인해 가능하지만 둘째와 다섯째는 남이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로 소명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준에 합당한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다른 곳에 교회들을 세워 나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리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위치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

성도들은 모두 소명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 교회를 형성한다.

모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깨지고 결국 교회가 없어진다. 나도 2000년경에 승리침례교회, 교회가 사라졌다. 이것이 현실이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결국 그것의 등잔대를 예수님이 치우셨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역 교회를 유지하며 소명에 합당하게 걸으려면 분열이 생기면 안 된다. 즉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의 말씀, 분열된 왕국마다 쓰러진다(마12:25).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회로 남으려면 어떤 근거하에서 하나가 되어 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교리에 관심이 없고 사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리를 버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 세 장에서 교리적인 기초를 놓았고 그 뒤에 영적 연합을 논하였다.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워진 연합은 매우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는 일곱 가지 기본적인 영적 현실을 언급한다.

일곱 가지 근거

1. 한 몸: 개개인 신자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회심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기에 배치된다(고전 12:12-31). 한 몸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세우신 많은 지역 교회들의 모델이다. 몸 안에 여러 지체, 지역 교회도, 구원받으면 지역 교회를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 은사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교회는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우리 몸의 지체들처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손과 발이 따로 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분열되고 사라질 수도 있다.
2. 한 성령, 동일한 성령께서 각 신자 안에 내주하시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에게 속하게 된다. 에베소서

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수십 번이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한 성령님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소멸된다. 생각해야 한다. 내 언행이 교회를 세우는가, 깨는가?

3. 부르심의 한 소망, 이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며 그분께서 공중에 강림하사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내면의 성령님은 이 위대한 약속의 보증이다(엡 1:13-14). 여기서 바울은 한 몸의 존재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걸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가 휴거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자연스레 유지된다.
4. 한 주. 한 주인이라는 말,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며 언젠가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 두 명의 신자가 같은 주님께 순종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함께 걸을 수 없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영적 연합을 향한 큰 기초이다. 목사, 지사,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명예, 말밭이 센 사람 등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내 교회, 이것이 깨지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5. 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맡기신 하나의 확고한 진리의 체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기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 성령이 말하는 진리 체계를 믿음이라고 한다. 지역 교회가 믿음 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 성경의 영감, 보존, 킹제임스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탄 마귀, 천사들, 죄, 구원, 중생, 성화, 재림 휴거, 천국 지옥, 환난 전 휴거, 천년 왕국, 자유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이런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결과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6. 한 침례. 바울이 여기서 한 몸을 논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님의 침례, 즉 회심할 때 믿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몸에 두시는 성령님 일을 말한다(고전12:13). 이것은 회심 후의 체험도 아니고 신자가 기도하거나 구해야 할 체험도 아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엡5:18),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결코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심할 때 이미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리가 무너져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처럼 방언해야 한다. 쓰러져야 한다 등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7. 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강조하기를 좋아한다(엡 1:3,17; 2:18; 3:14; 5:20).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신자들이 놀랍게도 하나가 됨은 여기에서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한 가족의 자녀이므로 당연히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지상의 가족이 가정에서 사랑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 가족도 그렇게 해야 한다. 주기도문도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로 시작된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생기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교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리에 동의하여 성령의 하나 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매우 염려하고 있으며(롬 16:17-20) 사도 요한도 이 경고를 반복한다(요이 6-11). 지역 교회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야고보서 3:17)

교리가 순수하지 않으면 화평이 있을 수 없고 연합이 깨진다.

이 교회가 오래 유지되려면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과 약속에 동의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교리의 순수함이고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님의 지역 교회로서 오랫동안 존재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하게 사귀며 섬기는 공동체(엡3)

성경: 엡4:7-12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것이다.

특히 후반부 4-6장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성도의 성화 지난 두 시간 엡4:1-6,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 다 소명을 받는다. 이것은 천직이다. 성도들이 자기의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교회를 유지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힘쓰는 것, 화평을 지키는 것 등이 필요하다.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부르심의 한 소망(휴거),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즉 우리가 믿음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1-6절 한(one)이라는 말이 강조됨

하나님의 선물(7절)

성경이 말하는 교회: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여야 교회다.

구원받았는데 모이려 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다. < >

즉 교회는 하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주신다.

선물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필요한 재능, 재물, 능력 등

고전12:1-12를 보면 성도는 적어도 한 가지 선물을 받는다. 눈 귀, 손, 발 등 다 다른 재능(13-27)

이것은 한 몸을 섬기고 세우는 데 필요한 것

영적인 선물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gift)이다. 은사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물이 더 좋은 말이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

우리 몸, 손, 발, 코, 귀, 입, 눈..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기능, 그래야 한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고전12:27-31

이런 선물을 어떻게 발견하고 쓰는가? 지역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선물은 놀기 위한 장남감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연장이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로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전12-14장 참조, 엡4:15, 16).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미리 준비하시고 주신다(8-10절)

교회를 시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미리 이런 선물들을 준비하셨다.

8절은 시68:18 인용, 다윗의 시, 승리의 시

4:7-10, 이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8-10, 그리스도는 승리자, 포로로 잡힌 자들은 패잔병이 아니라 죄, 사망, 마귀에게 포로로 잡힌 자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속박에서 빼내어 위로 데리고 가신다.

9: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

언제, 십자가 죽음 이후 사흘 동안 낙원으로 내려가심

10: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심

7: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심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선물: 고전12:4-11, 27-31, 롬12:3-8, 엡4:11

약간은 다르다. 그러나 무엇이든 모두 섬김과 세움을 위해 주어진다.

고전 14장 등을 보면 어떤 선물은 다른 선물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물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낙원과 지옥: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있을 때 하신 일

낙원: 신약 성경에 3번 나온다(눅23:43, 고후12:4; 계2:7)

성경은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들이 거주하는 거처를 세 곳으로 구분한다. 빌2:10,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리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땅(지구)을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땅에 있는 존재들(살아 있는 사람들), 땅 속에 있는 존재들(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는 악한 영들)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의 차이: 예수님 부활 이후의 신약 성도들은 죽어서 곧장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가지만(빌1:23;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고후5:8) 구약 성도들은 죽어서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았으며 '스올'이라 불린 지하 세계(큰 의미의 지옥)에서 큰 구렁텅이(혹은 무저갱)를 사이에 두고 불꽃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격리되어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에 거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눅16:19-31). 삼상28:131-4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신약 성도들이 없이는 그들이 먼저 완전하게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히11:40).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어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로 갔다(창25:8).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고 말씀하신 뒤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부활하셨다(시16:8-10; 행2:26-27).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낙원은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엡4:8-10). 주 예수님께서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 시면서 낙원에 있던 구약 시대 성도들을 모두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마27:51-53). 따라서 히11:8의 아브라함은 이제 히12:22-24의 셋째 하늘에 있으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후 12:2-4).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아마도 14년 전쯤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깬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에 그는 셋째 하늘 곧 낙원에 끌려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계21:2를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데 계22:2를 보면 한때 땅에 존재한 에덴동산 안에 있던 생명나무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강도를 만난 곳, 즉 땅 아래 부분에 있었던 낙원이 이제는 그곳의 모든 거주자들과 함께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옮겨졌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한다. 신약 성도가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다.

대피소, 연옥 등은 없다.

교회에 주신 네 가지 중요한 선물들(11)

교회에 주신 네 가지 중요한 선물들은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1. 사도들, 사명을 받아 파송된 자, 예수님의 어려 제자들, 그러나 열두 사도(마10:1-4)

제자는 배우는 사람, 학생, 사도는 하나님이 임명한 대표

사도의 역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행1:15-22),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직접 보아야만 한다(고전 9:1-2), 사도의 표적들을 행함(고후12:12), 죽은 자들도 살림

지금 이 이 시대에는 이런 사도가 없다.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 거짓말쟁이 당시 사도들, 교회의 기초를 놓음(엡2:20). 기초가 놓인 뒤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함(히2:1-4),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고후5:7).

2. 대언자들

대언이라는 말은 예언이 아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대언을 하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했다(고전14:29-31).

또 하나의 기능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다(행11:28; 엡3:5).

이 당시는 대언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당시 대언의 목적: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한다(고전14:3). 이 시대; 말씀이 완전히 주어짐, 직통 계시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해 설명을 들을 때 권면과

위로를 얻는다.

사도들과 더불어 대언자들은 교회의 기초(엡2:20)

3. 복음 전도자들

복음을 들고 나가 전파하는 자들, 물론 모두가 그 일을 하지만(행2:41-47; 11:19-21), 특별한 재능을 받아 그 일을 전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행8:26-40; 21:28).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일꾼 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딤후 4: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4. 목사 겸 교사

어떤 사람들이 목사 겸 교사에 붙었으므로 두 직무를 감당하는 한 사람

목사, 포이맨, 목자라는 말, 다른 데서는 목자, 여기는 교회의 양떼를 이끄는 사람, pastor(양떼, 행20:28)

벧전5:1-4. 성경에서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기능 표시,

양떼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양식)

양떼를 인도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보호)

즐거운 교제, 노래, 다른 어떤 것도 이 둘을 대체할 수 없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단수, 복수

목사라고 불려도 좋고 장로로 불려도 좋다. 회중들이 정한다. 우리는 목사

주님은 목사의 은사가 아니라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다.

가르치는 선물, 재능, 여기는 직무를 선물로 주심을 말한다.

결론(12)

선물들의 목적: 12절,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교회는 한 몸, 한 소망, 한 주님, 산 성령님, 한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믿음 면에서 하나이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다양한 선물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 몸을 보라. 손, 팔, 발, 눈, 코, 귀, 입 다 다르다.

교회에도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주님은 지역 교회가 번영할 수 있도록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필요한 선물들을 다양하게 주신다.

우리 교회: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교사, 주차, 주방, 쓰레기, 방송, 찬양대 등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된다.

믿음의 하나 됨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귀며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다.

목사의 책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는 것(엡4)

성경: 엡4:11-16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것이다. 교회가 무엇이든 알기 원하면 에베소서를 깊이 공부해야 한다. 지난 몇 시간 엡4:1-12 강해, 1-6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이것은 천직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유지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힘쓰는 것, 화평을 지키는 것 등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부르심의 한 소망(휴거),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즉 우리가 믿음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그런데 하나가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된다. 강제적, 율법적 하나 No!

영혼의 자유(soul liberty)와 다양성이 유지되는 하나(Diversity in unity) (*)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 손, 발, 귀가 되면 몸이 제 구실을 못한다. 7절: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멤버들에게 섬김의 선물을 주셨다.

선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11-12, 땅에 남아 있는 지역 교회를 이끌 지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지금은 사도 대언자 없고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만 있다. 오늘은 특별히 지역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 겸 교사 이야기, 대체 목사는 무엇 하는 사람일까? 왜 목사는 존재하는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들은 왜 존재하는가? < > 이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존재한다(12), 그 결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13).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 일어나는가? 14절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된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된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지금 육에 갇혀서 그것을 유언으로 주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역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표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 꼭 맞게 결합된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진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세워진다(16절).

목사(11절)

지난 64년간 교회 생활, 가장 힘든 것, 목사와 교회
신약교회는 조직체이다. 질서를 위해 지도력이 필요하며(딤후1:5) 목사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것: 목사, 목사를 만나는 것
나는 할 수 없어서 목사를 하고 있다.

교회의 모든 문제: 목사에게서 발생한다.

그러면 왜 목사에게서 문제들이 생길까? 목사가 누구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목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온다.

그러면 목사의 문제는 바로 성도들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어떤 면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물이다.

자 그러면 목사에 대한 성경 말씀이 부족한가? 아니다. 충분하다. 예수님이 목회자의 모범이며 바울, 베드로, 요한, 디모데 등이 모두 목사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왜 목사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가? 아전인수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구약 시대 제사장을 목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신구약도 구분을 못한다.

특히 장로교 개신 교회 전통, 가운을 걸치고 축도하고 복을 비는 대상
비상식, 한국의 유교 문화, 어른 공경,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이 많다.

아들이 목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남편이 목사, 아내가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가 왕이 되는 구조, 성도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듣고 대화하는 목사의 상을 그리기 어렵다. 그래서 나온 말, 당신들은 평신도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바로 이런 제사장 계급 체제를 타파하신 것, 신약 교회의 핵심

“나도 여러분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모범을 보이며 이끌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목사라는 말, pastor, 신약 성경에 한 번(엡4:11), 목사 겸 교사

원래는 감독 혹은 장로라는 말이 목사를 의미하였다: 딤후3:1-7, 딤후1:5-10, 벧전5:1-4

목사: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직분(Office)에 대한 용어이다(딤후1:5; 7; 벧전5:1-2; 4; 행20:17; 28),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름(17),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장로들)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목사) 하셨느니라.

감독의 직무 Office 설명(딤후3):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부여한 권위가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Officer가 될 수 없다. 대통령 직무 수행자, 국민이 임명한다.

감독(Episcopos, 감독하는 자, 직무의 의무), 장로(Presbuteros, 치리하는 자, 직무의 위엄), 목사 (Poimen, 목자, 직무의 목적)

역사를 통해 천주교에 의해 감독이라는 용어가 성경적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인들은 목사라는 말을 쓴다. pastor, reverend가 아니다.

목사의 목적: 교회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엡4:11-16)

목사의 필수조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면(call) 교회가 임명하고(ordain)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 직책으로 구분하신다(행13:1-4).

원함이 있어도 부르심이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다. 부르심이 없는 목사는 불행하다.

부르심: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

부르심 이후에(혹은 부르심과 함께) 준비가 필요하다: 사귀를 통해서(바울과 바나바), 목회자를 통해서(바울과 디모데)

요즘 독립침례교회 안에 목사 안수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도저히 목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목사로 세우는 자들이 있다.

충격: 미국 여행 다녀온 뒤 한 분과 통화, 어떤 사람이 1월에 교회를 나갔는데 1달 쯤 지나 목사가 되어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목사들 명단에 올라왔다고 한다. 아니 어떻게 1달 사이에 목사가 되는가?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안수 신청하면 목사 안수를 주는 목사도 있다.

독립 교회라고 해서 목사 안수를 남발하는 자들, 피해야 한다. 악한 사귀를 가지면 안 된다.

목사 안수: 매우 신중하게 적어도 몇 시간 그의 모든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초신자는 안 된다고 하니 믿음의 연륜, 특히 인간성 등을 보고 결코 배은망덕한 자를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

목사의 구체적 직무: 에베소서의 표현(12):

성도들을 1. 완전하게 하고 2.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 딤후3:16-17

2. 교회는 모임이다. 섬기는 일을 하는 모임이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는 무엇인가 주님의 몸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3.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조금 장성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면 교회를 다녀야 한다.

성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임무

무엇으로 가능한가? 살전2:5,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귀에 듣기 좋은 말, 유머, 세상 이야기, 복 받는다는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

이것은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사람을 쓰러뜨리면 안 된다. David Diga Hernandez, 구독자 178만(%)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 죽어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다(*), (*)

막9:20, 27을 보라

말세에 오순절 신비주의 신사도 주의자들, 사람을 쓰러뜨린다. 다 마귀 짓이다.

2:6, 교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 하면 안 된다,

2:7, 유모처럼 젖을 주고 돌보는 일을 한다. 말씀으로.

2:8, 복음뿐만 아니라 혼을 기꺼이 주려고 한다. 아침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 탐구, 세상 탐구, 하나님의 경륜 탐구, 목사는 진리만을 말하려고 해야 한다.

그러면 그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13)

최종 결과 혹은 목표: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여기서 믿음이란 교리 체계를 말한다. 그래서 지역 교회는 목사의 인도와 가르침으로 교리 체계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금요일 설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창조된 신으로 믿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4복음, 서신서를 읽어야 한다. 요한복음, 히브리서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키 분량(크기) (*)

stature: 키, 수준. 성장 (*)

u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인격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한다. (*)

인격 그러니까 착한 사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 가운데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정적 좌파, 동성애, 낙태, 사회주의 공산주의, 차별 금지법 제정 찬성

왜 인본주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성경의 하나님을 놓치고 만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

그 결과(14)

더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의 특징: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닌다.

13: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도 못하겠으면 같은 믿음을 가진 대로 가야 한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자유를 존중한다.

교회는 한 믿음, 심지어 정치도 마찬가지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불완전해도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더 좋은 것은 없다. 지역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같은 정치관 가져야 한다. 왜, 정치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크게 지배하므로, 문재인을 겪어 보지 않았는가? 교회 탄압 보고도 문재인 혹은 그와 유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옹호하고 지지하면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명예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귄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6:15)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최종 목표(15)

인격: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새로 오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에게 부드럽게 말한다. 당연한 일이다.

오자마자 무례하게 언제 구원받았느냐 따지고 자기 자랑 늘어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의 사랑을 무조건 부드러운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진리는 쓴 것이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쓰게 느껴진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고전13:4-5, 5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불신자, 불교도, 천주교도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영어로는 증오 발언, hate speech

그래도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동성애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동성애이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hate speech

그래도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려는 가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말, 영어로는 증오 발언 hate speech, 그래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을 무조건 부드럽게 말하고 듣기 싫은 말은 쉬쉬하며 말하지 말라는 것을 해석하면 오해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 분의 대표: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 악한 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마23:15,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꾸짖을 자를 꾸짖으셨다.

결론(15)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야 한다.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3). 그래서 지역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한다.

목사의 자격과 의무: 딤후3:1-7, 딤후1:6-9

목사의 의무

(1) 지도(인도)하는 것(장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한다(먼저 본을 보임으로, 감독함으로 벰전5:2-3 참조). 목사는 반드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양들이 이끌고 나가는 교회는 성경에 없다. 목사는 독재자가 아니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이다.

(2) 먹이는 것(목자): 양떼를 말씀으로 먹여야 한다(행20:28).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 상고와 설교와 가르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할 수 있다.

엡4:11은 pastor and teacher를 하나로 묶고 있다. 우리말 목사도 목자요 선생님을 가리킨다(딤후3:2).

(3) 경계하고 보호한다(감독): 목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양떼를 보호해야 한다. 목사는 자신, 교회, 종교적인 이리떼들, 이단들, 잘못하는 자들을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또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복하고(히13:17)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 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살전5:12-13).

목사의 설교 준비와 발표(인공 지능 시 이용)(엠티5)

성경: 엠티4:11-12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것이다. 1-3장은 교회에 대한 교리, 4-6장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키는가, 교회의 기본 요소인 개인 및 가정의 성화, 영적 전투 등을 설명한다.

지난 몇 시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 여러 선물들을 주셨다(11). 이것들 중 지역 교회에 가장 큰 선물, 가장 중요한 직무 수행자인 목사 겸 교사, 목사의 책무

12절: 성도들을 1. 완전하게 하고 2.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그 결과 13, 교회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다.

14절: 어른이 되어 교리의 바람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

16절: 위대한 말씀

오늘 < >, 목사의 이 모든 일은 가르침과 훈련으로 된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 겸 교사이다(11). 꼴을 먹이고 가르치는 직무 수행자, 목양과 교육

오늘은 목사의 설교 준비와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 오전 예배 시간에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신학생, 리더들만 들어야 할 것이 아니다. 이 가운데서 목사가 될 사람도 있다.

또 누구나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면서 들어야 한다.

무조건 아메 아멘 하면 목사도 발전하지 않고 성도들도 무지하여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특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목사나 목사의 아내가 되어 교회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나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설교한다는 심정으로 설교 준비와 발표의 에센스를 말하려 한다.

목사의 설교 준비

목사의 조건(딤후3), 오늘의 주제 설교와 관련해서는

2절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4절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고, 6절 초신자는 안 된다.

요약하면 1. 목사는 글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말을 조리 있게 못하면 목사를 할 수 없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설교할 때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거나 청중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천장을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논리성이 떨어져서 설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일, 체험한 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일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한다.

2.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안 된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설득하지 못해 구원을 못 받게 만들거나 불신자의 삶을 살게 하면 목사를 하면 안 된다. 물론 아이들의 경우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다른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이들과 아내가 교회의 문젯거리가 되면 그 사람은 목사의 일을 수행할 자격 혹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집에서 교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는가?

3. 초신자는 안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등으로 구원받았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1-2번 읽은 상태로 목사가 될 수 없다.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다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 말씀을 분석하여 성도들이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13).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조직 신학이 올바라야 한다. 성경의 중요 교리 혹은 신학: 성경, 하나님, 마귀, 천사, 사함, 죄, 구원, 성화, 교회, 종말론(천국 지옥 휴거, 부활, 심판)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시하지 않는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어떻게 교리나 믿음을 정리하는가? 어떤 토픽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다 모으면 그것이 그 주제에 대한 믿음이 된다. 지옥, 54회, 위치, 대상, 천국과 비교, 존손 기간, 상태, 지옥에 대한 교리

이런 식으로 성경의 중요한 20여 가지 토픽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모으면 각각이 하나의 믿음 체계 즉 교리가 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원, 죄, 성화 등 이런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신직 신학을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이라야 한다. 성경에는 어려운 구절들이 다수 나온다. 미묘한 구절들이 나온다.

대다수 이단들의 특징: 어떤 주제에 대한 다수의 성경 말씀(99%)을 무시하고 소수(1%)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소수로 다수를 누르려는 교리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조직 신학이 약하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진다.

자, 이제 신학원,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웬만큼 갖추어져서 설교를 할 기회가 생긴다.

주일 학교 교사, 목사의 출장 시 교회에서 설교 등

설교는 반드시 강해 설교여야만 한다.

설교 방법은 강해 설교, 주제 설교, 아무 준비 없으면 횡설수설 설교, 신변잡기 설교

대다수 목사들은 주제 설교를 한다.

특히 교단에 속한 목사들은 주제 설교를 한다. 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새벽기도, 심방, 교회의 거의 모든 업무, 재정 관리 ,,,,)

전 세계 목사들 가운데 한국 목사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20살 신학교 가서부터 새벽부터 운전기사, 주일에 종일 봉사, 다른 날도 이러니 책을 읽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 일이 바쁘면 목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거의 성경을 안 읽게 되고 다른 책들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결국 말씀으로 안 되므로 1.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돌리고 2. 세상 이야기로 설교를 채우고,

3. 방언, 뒤로 쓰러뜨리는 것(입신) 등 신비주의 기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구원과 교회들도 거의 동일하다. 거의 매주 전도 집회, 뽕뽕이를 돌려야 한다.

성도들이 다른 것을 읽거나 보면 안 되니까?

이러다 보니 미국 한국 등 대다수 대형 교단들, 1년치 설교 집을 제공한다, 특히 교회력에 따른 것을, 신년,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여기에 구원, 성화 등을 집어넣어서 1년치 설교집을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독교의 여러 출판사가 매해 12월이 되면 다음해의 설교집을 판매한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근근히 1년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성경 전체를 강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성도들은 거의 판에 박힌 듯한 말씀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 설교를 하라고 하는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다(딤후4:2). 종교개혁 이후 전통적으로 이것은 성경 말씀을 강해해서 설교를 하라는 말로 이해가 되었다. 딤후2:15

강해 설교: 어떤 구절을 읽고 원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의 앞뒤 문맥, 배경, 하나님의 뜻,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예배당을 나설 때는 그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풍성해져서 더욱 더 자기를 돌아보고 영원을 위해 바른 것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성경 1구절보다는 몇 구절을 택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을 꼬집어 내어서 성도들이 피상적으로 읽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 무언가를 확실히 배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특히 젊은 목회자, 처음 설교하는 분들의 경우 신약 성경의 한 책(서신서)을 택해서 몇 구절 씩 강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제 설교는 노련한 설교자가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 역시 여러 성경 말씀을 설명해서 그 말씀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몇 구절을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까?

대다수 설교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설교문이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이들의 생각: 설교는 나 나름대로 독특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참조하면 안 된다. 적어도 초안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 로이드 존스, 새뮤얼 킵 등 “주석들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머리를 짜서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일단 매우 힘들고 잘못하면 성경적 조직신학을 벗어나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이론이 나오게 된다.

“내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무도 여태까지 이것을 보지 못하였네.”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구나.”,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해야 하니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네. 구원이 아니군.”, “구원은 받았다가도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한 사람이 천국 같지, 지옥 같자 정해 놓으셨다” 등등.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순간에 그는 이단 교리를 생산할 가능성에 노출된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성경의 모든 구절, 수십억이 보았고 적어도 수천 만의 목사, 신학자들이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그런데 지금 나만 아는 어떤 특이한 해석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단 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처럼 나만의 특별한 해석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나의 설교문 작성 제안

1. 본문 말씀을 읽고 자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문맥에 맞게 발표 형식으로 요약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여러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 주석들을 참조하여 살을 붙인다.
2. 본문 말씀을 읽고 자주 생각한다. 그런데 잘 요약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설교문을 보거나 주석들을 참조하여 전체적인 틀을 완성한다. 그리고 나서 나의 생각들, 내 교회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살을 붙인다. 나는 1과 2를 1-2:9-8의 비율로 한다.

연구 설교(Research preaching)

3. 후자 식으로 하면 “나는 설교 표절을 하는 사람이구나!” 마음에 동요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위어스비, 맥아더, 매튜 헨리, 스펠전, 반즈 등의 주석들, 설교문 등을 먼저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사실 보통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설교의 대가들인 이분들의 통찰력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4. 이분들은 대개 전자의 방식으로 설교(혹은 주석) 준비,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후자의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믿는다.
5. 미국,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 한 사람, 조지 횃필드(1714-1770),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크게 기여, 그는 설교자가 되기 전에 당시 최고의 주석으로 알려진 매튜 헨리(1662-1714) 주석을 무릎을 꿇고 외우다시피 읽었다. 그는 그를 ‘위대한 미스터 헨리’라고 불렀다, 그의 설교는 헨리 주석이 녹안 난 결과이다. 스펠전, “그것은 최고의 주석이다.” 칼빈주의만 빼면 엘버트 반즈의 주석, 존 길의, 매튜 풀 등 주석 등과 함께 세계 최고의 성경 주석 모두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BibleHib.com(*)

4. 후자의 방식은 결코 표절이 아니다. 혹시 자기 설교문에서 그런 분들의 것을 많이 사용했으며 그 설교자의 주석(혹은 설교문)을 많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왜 표절이 아닌가? 이 유명한 주석가, 설교자들도 이미 자기들 이전 시대 설교자(주석가)들의 것이 머리에 들어 있어서 그런 설교(주석)가 나오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 예수님까지 가는 것이다.

설교문 작성

한국말로 된 설교집은 많지도 않지만 그냥 안 보는 것이 좋다. 김남준 목사님 책 정도나 참조할 말하다.

그러면 누구? 위어스비, 스펠전(국내 번역 책들), 맥아더, 헨리, 반즈

요즘은 특별히 AI 시대, 설교에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료를 찾아서 요약 정리를 해 주니까.

이분들의 책이나 설교문을 그대로 데이터로 써서 설교문을 만들라고 인공지능에게 시킬 수 있다.

요즘 쇼펜하우어 책(독일 철학자 1788-1860) 인기, 구글에서 찾으면 쇼펜하우어 책들 PDF(무료 구함)
챗 GPT, 커스텀 GPT, 여기에 통째로 쇼펜하우어 책들 PDF를 데이터로 올려줌 (*)
그리고 묻는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언을 줄까?
그러면 인공 지능이 오직 쇼펜하우어 책들을 근간으로 조언을 준다.
그러므로 위어스비 친구약 PDF 집어넣고 요한복음 3장 1-15절에 대해 30분짜리 설교 원고를 만들어
봐. 그러면 그대로 한다.

매튜 헨리를 가지고, 맥아더는 모든 설교 기사...내 것도 모든 설교문 PDF
또 가장 도움이 된 예화를 줘...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것들을 5개로 줘,
내 설교 대상은 1대 청소년이야, 중년층이야
개조식으로, 서술식으로

물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미 그렇게 되는 것들이 유튜브 AI 강의에 많이 나오고 실제로 보았다.
설교 이외의 다른 많은 분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해요. 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영어를 못하면 좋은 목사가 되기 힘들다. 거의
모든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PDF 영어
그러면 영어 PDF 올리고 설교문 영어로 나오면 Deelp 같은 좋은 번역기를 사용하고 살펴보면 된다.
(*)

DeepL 번역은 신속함과 정확함으로 매일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30개 이상의 언어를 번역하는데 글자를 입력하는 동시에 빠른 번역을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번역 어플과 비교했을 때 3배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미지의 텍스트 번역은
물론 음성도 빠르게 번역을 합니다. 이외에도 내가 번역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자료로 재 사용 하거나 편집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t GPT, 구글 번역기도 웬만큼 잘 번역한다.

맥아더 목사 설교는 다 설교문 게재(*)

아제 앞으로 인공 지능과 컴퓨팅 파워가 발전하면 통째로 사이트 주소를 넣으면 그 안의 모든 것 학습
가능, Keepbible.com

설교문이 좋으면 설교가 좋을까?

자 이렇게 해서 설교문이 문맥에 맞게, 예화도 맞게, 연령층에 맞게, 시간도 적당하게 완성되면 훌륭한
설교자 혹은 설교가 나올까?

대답: 절대로 안 나온다.

설교문을 발표하는 설교 행위는 절대로 설교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스펠전의 설교집, 아마 수백만 권 판매, 수백만의 스펠전이 나오지 않는다.

왜? 설교 행위는 단순히 설교문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Preaching the Word” Commentary (말씀 선포 주석) 편집자인 휴즈(R. Kent Hughes)
목사님의 글입니다. 대단히 좋은 주석이다. Kindle (*)

제목: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의 특성(*)

예배 시 설교에서 설교자와 회중이 성령님에 의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설교자에게 있어야 한다.

1. 로고스(Logos)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우리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회중 앞에 섰을 때 설교자들은 일단 우리의 숙제를 한 것이다. 우리는 본문 구절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보며 문맥 안에서 그 안의 단어들의 뜻을 찾아내고 그 단어들이 회중에게 바르게 전달되도록 올바른 해석 방법에 의해 본문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로고스 그 자체를 선포한다.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의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강해된 설교문이다.

2. 에토스(Ethos)

둘째는 에토스인데 이것은 곧 설교자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설교를 할 때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들을 다룬다는 생각으로 당신의 손과 마음을 마비시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필립스 브룩스(Phillips Brooks)는 이것을 열차 안내원 비유를 통해 잘 보여 준다. 안내원은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에 큰 소리로 몇 차례 그 역의 이름을 알려준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큰 소리로 몇 차례 그 역을 알려 주었기에 지금 자기와 승객들이 그 역에 도착했다고 믿는다. “나는 할 일 했어. 내가 뭐 저 역에 내릴 사람인가?”

그래서 브룩스는 비록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우리가 다 구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그것에 복종하려 하고 그것을 갈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에토스(정신세계)의 일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교도인 에임스(William Ames)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설교가 효력을 발휘하려 할 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꾸밈없이 설교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에토스이다.” 설교자의 에토스가 그가 전하는 로고스를 뒷받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이룰 수 있다.

3. 파토스(Pathos)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열정과 확신이다. 한번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불신자인 흄(David Hume)이 조지 윌필드(George Whitefield)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그러자 흄이 대답하였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믿을 때에는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다.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필수적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설교를 기뻐하신다.

배우와 설교자의 차이

그러므로 설교 시 하나님의 기쁨은 로고스(말씀)와 에토스(설교자)와 파토스(설교자의 열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신도 이 셋을 갖추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때에 회중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부언:

저도 지금까지 짧은 세월이지만 설교를 해 왔고 다른 이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을 통해 제가 몸으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논리적으로 진리를 제시해도 회중에게 감화를 주는 설교는 하지 못할 수 있다.

설교자가 행동도 반듯하고 가정생활도 바르게 하며 모든 면에서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는데도 성도들은 그의 설교에 의해 큰 감화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가 설교단에 나오면 성도들은 의례히 “오늘도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겠지.”하고는 타성에 젖어 설교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설교자가 로고스 중심으로 설교한다고 하면서 에토스와 파토스가 없는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 로고스만으로는 하나님과 회중의 기쁨을 이룰 수 없다.

이 경우 설교는 대개 성경 공부 스타일의 훈계/설명 설교가 되고 만다.

이런 식으로는 성도들의 감화를 이끌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에토스와 파토스는 설교자가 자기와 회중이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을 공유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설교자들은 스스로 고고한 세상에 살면서 이 어둡고 부조리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 경우 설교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허공을 치게 된다.

“이 설교는 일차적으로 내게 하는 것이며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에토스가 들어가야 설교가 살아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빠져 나오는 열정(파토스)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다.

이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면서 회중은 말씀에 비추어 나도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 좋은 목사/설교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엠피6)

성경: 엠피4:17-23

에베소서 강해, 1-3장은 교회에 대한 교리, 4-6장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키는가, 교회의 기본 요소인 개인 및 가정의 성화, 영적 전투 등을 설명한다.

먼저 4:1-16은 이 땅의 지역 교회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함(13)

이 일을 위해 목사 겸 교사가 선물로 교회에 주어짐(11)

목사 겸 교사가 해야 할 일(12)

그 결과 16절

4장 17절부터는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정, 주인과 종, 영적 전투 등

오늘 < >,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가 되었으므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옳지 않다. 고치겠다는 마음 자세

1. 이방인들/이교도들의 특징

1. 17절,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처럼 걸으면 안 된다(17). 그들은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다.

이방인들, 엠피2:1에 있듯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부자, 고위직, 고학력, 좋은 외모, 마음씨..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면 안 된다.

그들의 생각: 여기가 끝이다. 지금의 생이 끝이다. 영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진화론 추종: 먼지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원숭이가 되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

종이 변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기는 먼지라고 생각한다. 사라지고 만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먼지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없다. 이것이 헛된 생각이다.

현시대의 표현으로는 좌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Left(*): 떠났다는 말, 하나님, 진리, 이런 데서 떠나는 것, 거짓

모든 사람은 Left로 태어난다.

이런 데 속한 사람, 인간과 인간의 생각, 능력을 추앙한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혁명을 일으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일소할 수 있다.

이상주의자, 청결주의자, 일을 안 해도 모두가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다.

동성애, 굳이 이성끼리 결혼해야 하나?

낙태: 아이를 죽일 수 있다. 심지어 40주가 된 아이를 산모의 요청에 따라 산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죽인다.

트랜스젠더: 성을 바꿀 수 있다.

2. 왜 이들은 헛된 생각을 하는가?(18)

그들은 지각(understanding)이 어두워졌고 무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18). understanding, (*) 160회 구약의 시가서에서는 지혜와 명철 쌍으로 나온다.

잘 깨닫는 것, 바르게 깨닫는 것

욥28:20, 28(*), 주를 두려워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시32:9, 짐승에게는 지각이 없다. 사람이 지각이 없으면 짐승과 비슷한 생각, 행동을 한다.

시111:10,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각이 넘친다. 잘 깨닫는다. 분별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며 성경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understanding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비상식적인 일을 한다. 왜? understanding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자기 뜻대로 살려 하니까 하나님이 understanding을 빼앗아 가신다.

3. 이방인들의 모든 문제: 롬1:21-23에 요약되어 있다.

21절: 그들은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22-23: 그 결과 나타나는 형상, 사람에게 명철, 깨달음이 없으면 우상을 숭배한다.

25절: 창조물을 창조자보다 위에 둔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26-27절: 그들의 특징, 동성애, 동성애로 인한 형벌

엡4:18, 무지 가운데 있다: 영적인 일에 무지하다. 영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마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

고후4:4,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두꺼운 커튼을 쳐서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18).

그래서 Left로 남는다.

4. 무지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다(18).

그러므로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추구하면 생명을 얻는다.

즉 진리와 생명은 같이 간다.

진리 중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요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사람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5. 그들은 색욕과 탐욕을 낸다(19),

감각을 잃는다는 말: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한다.

모든 부정한 것: 자기들 마음이 원하는 것, 롬1:28-32

색욕: 에베소 교회, 다이애나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창녀들이 여 사제들이다. 이교도들의 예배란

남자가 그 신전에 가서 그런 창녀들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하므로 전혀

거리낌이 없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 그리스 문명권은 다 그랬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20절: '그러나'로 시작한다.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도 다 그런 사람이었다(엡2:3).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과 정반대로 산다.

1.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서 그분에 대해 많이 알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대 성인, 좋은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다.

이 말은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링컨에 대해 여러 책과 자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런데 링컨이 죽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링컨을 만나 긴밀하게 그와 사귄 수 없다. 즉 링컨에 대해 배울 수는 있어도 링컨을 배울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지금 배울 수 있다.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기도원에 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요17:3,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2. 이러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21).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같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즉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 많이 배운다.

왜? 성경은 다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이다(눅24:27; 요5:39).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날마다 성장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 점점 더 진리의 사람이 된다(13).

Left를 떠나서 Right을 추구한다. (*) 올바른 것, 진리이다.

3.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

부패한 옛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행실을 하는 사람이다.

부패한 옛 사람, 색욕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것이 180도 변하게 된다. 그것들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는 그 짓을 하려 그 신전에 가지 않는다. 헛된 탐욕을 버리게 된다.

4. 결국 생각의 영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23).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회개가 있어야 한다. 180도 돌아서는 것

그렇게 돌아서는 일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에서 발생한다.

영원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본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릴 줄 안다.

Left에서 Right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 (*)

신안 자매님들, 김대중 선생님, 그런데 우리 말씀들 듣고 나서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정치관도

180도 바뀌었다. Left에서 Right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의 변화가 생겨야 한다(롬12:1-2).

성경을 읽으면 그런 변화가 안 생길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

결국 좌익적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양산

이것이 결국 가정과 교회의 국가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결론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는(배운) 사람은 절대로 이방인들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운다.

제대로 배울 때 나타나는 현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에 변화가 생긴다.

벧전4:2-5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한다(엠펙7)

성경: 엠펙4:24-29

지난 1년 에베소서 강해, 1-3장은 교회에 대한 교리, 4-6장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키는가, 교회의 기본 요소인 개인 및 가정의 성화, 영적 전투 등을 설명한다.

먼저 4:1-16은 이 땅의 지역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의 협력으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함(13),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것이다. 4장 17절부터는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주 4:17-23,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 속에서 살면 안 된다(17).

그들의 특징(18), 지각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 마음의 눈이 멀었다. 생명에서 분리되었다. 그들이 하는 일(19), 그들은 감각을 잃어 자기를 색욕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20). 옛 사람을 버려야 한다(22)

반드시 생각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23). 내세관, 인생관, 세상관, 역사관, 국가관 오늘 < >, 새 사람으로 생각의 변화를 삶에 적용하는 것, 새 사람의 여러 특징, 진리(진실)를 말해야 한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부패한 대화는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

옛 사람과 새 사람(24)

옛 사람(22)과 새 사람(24)

옛 사람의 특징: 18절, 22절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존재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구원받기 전까지 모두가 마귀의 자식, 구원받으면 옛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지만 새 사람이 창조된다.

구원과의 한 부류처럼 옛 사람이 완전히 소멸되어 성화를 이룰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옛 사람 하나, 큰 갈등이 없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매사에 갈등을 일으킨다.

옛 사람,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한다. 새 사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한다(24절).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갈등, 사도 바울의 예

롬7:14-25, 8:1-2

therefore, 7장 6절에 붙는다,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

창조라는 말,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지난 주, Left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를 입어 Right의 사람이 된다. (*), (*), (*)

A. 의(righteousness): 성경에 무려 306회나 나온다.

올바름,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性品)의 극치(淸36:3; 사51:5-8; 요17:25; 창18:25; 롬3:21-22; 10:3).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

의가 가장 먼저 나오는 데, 창15:6,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는 매우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의는 윤리적 성질로서 윤리적 표준에 일치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그 표준은 사회 집단의

규범에 의존하므로 상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지하철에 기차가 들어오는데 아이나 노인이 철로에 떨어졌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내려가서 구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 불린다. 의: 자기를 희생하면서 고귀한 일을 하는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의 표준은 시종 일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며 따라서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근본 속성으로 그분의 곧바름과 거룩함을 뜻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역시 올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자신의 법에 의해 사람을 심판하신다. 100%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실로 은혜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롬1:16-17).

고후5:21

B. 참된 거룩함, 대부분의 경우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사람의 거룩함 혹은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그래서 참된 거룩함이 아니다.

거룩함, 사6:3, 하나님의 존전에서 스랍들의 찬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

계4:8

거룩함: 하나님의 근본 속성,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속성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12:14)

구원받으면 성도가 된다. saint, 거룩히 구별된 자를 뜻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새 사람의 특징 01(25):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한다.

truth, 진리, 진실, 참, 예수님 요14:6,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요17:17), 단10:21, 진리의 성경 기록

고후 13:8, 그래서 새 사람인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진리의 반대는 거짓, 거짓말: 남을 속일 의도로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이 시간을 묻는다. 시계를 보고 12시라고 했다. 그런데 시계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12시가 아닌데 12시라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에덴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이브를 속일 때부터 존재해 왔다(창3:1).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과 거짓말의 근원지, 동시에 희생자가 되어 왔다.

거짓은 마귀의 산물이다. 예수님의 말씀, 요8:43-45

앞뒤 문맥,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한다(8:43)

8:32, 36, 44, 45, 46, 47, 마귀는 진리가 없는 자, 거짓의 아버지

나치 독일의 괴벨스. 대중 선동 심리학의 명수, 대중을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한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의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

큰 거짓말을 해야 더 쉽게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1,000번, 2,000번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믿는다.

가장 큰 거짓말

1. 무생명인 먼지가 시간이 지나면 생명체가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종이 바뀌면서 결국 사람이 된다.
2. 공산주의자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3.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지금 온 세상이 불안하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갈망한다. 이때 가장 큰 거짓 평화가 도래한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빌미로 온 세상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일 세계 정부 구성한다.

단8:25: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속이고 그래서 그들은 3년 반 동안 그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섬긴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유: 엡4:16,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결론

옛 사람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존재, 거짓의 아비 마귀의 지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24), 진리의 근원 하나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1. 진리만 말한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변화(엠편)

성경: 엠편4:26-30

에베소서 6장으로 된 사도 바울의 짧은 서신, 그러나 영적인 진리가 매우 풍성하다.

1-3장은 교회에 대한 교리, 4-6장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키는가, 교회의 기본 요소인 개인 및 가정의 성화, 영적 전투 등을 설명한다.

먼저 4:1-16은 이 땅의 지역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의 협력으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함(13),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르치는 것이다.

4장 17절부터는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토픽이다.

오늘 < >,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적어도 네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

1. 첫 번째 변화: 진리를 추구하는 것(24-25)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새 사람이 생겨난다. 옛 사람(22)과 새 사람(24)

그래서 24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즉 새 사람에게는 변화들이 나타나야 하고 새 사람의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변화들 중 첫 번째 것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25).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고후13:8, 새 사람인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진리(truth)란 진실, 참을 말한다.

십계명의 표현,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출20:16).

왜? 1. 예수님이 진리이다(요14:6), 2. 성경책이 진리의 책이다(단10:21; 진리의 성경기록), 3.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요14:17; 16:13).

그래서 우리는 Total truth를 깨닫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과 성경은 진리이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음악, 집안 유지, 건강 등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베드로의 삶,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삶, 진리 추구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편전3:15), 우리 모두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이 교회로 모였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진리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 추구, 거짓을 버려야 한다.

2. 두 번째 변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26-27)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26-27).

화를 내는 것,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의, 잘못된 것을 보면 화를 내야 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의를 보시면 화를 내시고 심판하신다(신9:8, 20 등).

그래서 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내셔도 공의로우시므로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신다.

반면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화를 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즉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다가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화는 그날 풀어야 한다.

화는 영어로 anger, 진노는 wrath; 대개 큰 멸망을 가져온다.

화가 타올라 진노가 되면 멸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 일이 생기기 전에 멈추어야 한다.

잠15:1,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특히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이것을 실천해 보자.

약1:20, 사람의 진노(폭발하는 것)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면 마귀에게 우리를 공격할 틈을 준다(27).

화내는 것 말고도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것이 많다. 우리의 마음에서 옳다고 판단하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렘 17:9), 각 사람이 어떤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3. 세 번째 변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28)

그리스도인의 특징, 회개

후회하고 마음만 돌이키는 것은 성경의 회개가 아니다. 마음과 함께 실제 행동이 변해야 한다. 여기서는 과거에 도둑질하던 사람에 대한 충고: 도둑질은 십계명이 금하는 것(출20:15)

십계명: 사유 재산 인정,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것을 네 것으로 삼아라. 아무 문제없다.

당시 로마 세상: 노예들이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딤후2:9-10).

그런데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자기 손으로 일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즉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둑질: 많은 경우 게으름에서 나온다. 손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다가 결국은 탈취한다. 노동을 하라고 한 것, labour, 힘들여 일하는 것을 뜻한다.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labour라고 한다. 그러니까 힘써 일해야 한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특별히 사람은 자기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혹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대학, 30세 미만의 청년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25세-30세까지는 인생을 준비하는 단계, 이 시기에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 뒤에는 연구하고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인생이 꼬인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몰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Concentration

성경의 충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나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지니라(살후3:10, 12).

네 번째 변화: 더러운 대화를 안 하는 것(29절).

부패한 대화는 안 된다. 음담패설, 남을 비방하고 모략하는 말

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던 우리의 이런 말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마12:34).

그러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 사귀어야 한다. 인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악한 사귀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전15:33).

옆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해야 한다. 눈 덧글, 휴대폰 칼라 링 등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한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되자.

폴 트립의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나는 슬프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귀한 일을 경험했다.

나의 아버지께서 말기 골수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아버지는 심한 고통 속에 누워계셨지만, 분노를

보이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불평하지도 않으셨고,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으셨다.

내 아내는 한때 강건했으나 지금은 연약하고 병들어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런데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기도였다.

아버지는 처음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을 비록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모두 선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끝까지 훌륭한 아버지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다. 또한 병으로 고생하는 동안 자녀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풍성한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를 마치셨다.

그 이후 나는 나의 모든 말이 아버지처럼 모든 면에서 덕을 이루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 아들들이 그들의 할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통치권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말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아버지는 말로 주위 사람들을 격려했으며, 강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어려움에 닦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아버지는 삶의 고통이 치명적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압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딤후2:16-17,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암 세포 궤양처럼 속을 파먹는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이런 변화가 없을 때 성령님이 슬퍼하신다(30)

위의 네 가지 변화들: 1. 진리 추구, 2.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3.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 4. 더러운 대화를 안 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분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이 남아 있다. 100% 순종은 불가능하다.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잘 모를 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제대로 진리를 추구하지 못할 수 있다. 갓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젖을 먹고 자라면서 부모님, 성경, 양심의 인지와 경고를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된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점점 양심이 굳어져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각을 못한다.

이것은 성도의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뒤 성경 말씀, 순수한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야 한다.
그런데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의 겉모습만 본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현금내서 예배당 짓고, 카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허송세월하면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
딤후3:5-7

1.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다(5), 2. 미련한 여자들을 사로잡는다(6), 3. 이들은 결코 진리를 아는 데 도달하지 못한다.

이들의 특징: 성경 말씀을 알려하지도 순종하려 하지도 않는다.

일단 성경 말씀 자체를 모른다. 자기 판단, 목사의 판단에 따라 무언가를 하려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안의 성령님이 근심하고 슬퍼하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대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네 가지 변화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결코 아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생명이 봉인되어 있다.

이단 교리 중 가장 무서운 것: 제대로 봉사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는 것

대다수 이단들이 신도들을 엮어매는 수단,

구OO 교회들도 자기들 떠나면 구원을 잃는다고 말한다.

어떤 교회들: 교회 떠나면 사고가 발생한다고 협박한다. 등등

바른 믿음으로 신앙 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 왜?

1.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저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2.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저저 은혜로 구원을 유지해 주시기 때문이다.

내 죄나 잘못, 연약함으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면 얼마나 불안할까?

부활 후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요 20:19) 『¶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 20:21)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요 20:26) 『¶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과 화평의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화평을 누린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 불순종하면 화평과 기쁨이 속에서 사라진다.

구원이 아니라 화평과 기쁨이 사라진다.

다윗의 고백(시51:12),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위에서 말한 네 가지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인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죄지은 자녀들을 보고 부모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처럼

결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새 사람의 행위를 해야 한다.

1. 진리 추구
2.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예, 화를 내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속히 풀어야 한다.
3. 내 힘으로 먹을 것을 예비한다.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4. 더러운 대화는 입 밖에 내지 않는다.
5.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그럼에도 구원의 기쁨을 잃는다.
6.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리뿐만 아니라 성화 면에서도 으뜸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삶에서 변화가 생기기를 원한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엡2)

성경: 엡4:31-5:2

에베소서 6장으로 된 사도 바울의 짧은 서신, 그러나 영적인 진리가 매우 풍성하다.

특히 4:17부터는 구원받은 뒤에, 교리를 든든히 세우면서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화, 가정생활, 영적 전쟁 등 매우 중요한 토픽이다.

지난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새 사람의 행위가 나타난다.

1. 진리 추구(25)

2.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26-27). 예, 화를 내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속히 풀어야 한다.

3.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28).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4. 더러운 대화는 입 밖에 내지 않는다(29).

5. 이것들이 없으면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30).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그럼에도 구원의 기쁨을 잃는다.

오늘 < >,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는 요인들, 용서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역시 중요한 주제

1. 인간관계를 부수는 요인들(31)

인간관계를 부수는 요인들이 31절에 들어 있다. 이것들을 깨닫고 버려야 용서가 가능하다. 가정과 교회

명단: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 모든 악의

인간관계에 이것들이 팽배하면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악(natural한 것)

반면에 용서는 초자연적인 은혜,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람은 죄를 짓는 경향, 그대로 두면 더 많이 짓는다. 그러면 불신자와 비슷해진다.

어떤 면에서: 1.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 모든 악의 면에서

1. 쓴 것(bitterness): bitter라는 말,

① 쓰다, ② 모질다, 살을 에는 (뚫하다), ----- a ~ winter. ③ 호된, 가차(용서) 없는, 신랄한,

냉혹한 ----- ~ criticism 혹평 ----- a ~ remark 독설 ④ 견디기 어려운, 괴로운, 쓰라린

----- a ~ sorrow 사무치는 슬픔, ⑤ 원한을 품은, 몹시 분한, ----- ~ words 원한의 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향해 갖는 쓴 감정: 4번이나 5번의 정의

어떤 사람을 영원히 증오하게 하는 것

성경의 용례: 대개는 사망의 공포 등이 엄습해서 영혼이 죽을 지경에 이를 때 내 혼이 쓰라린 가운데 있다는 표현, 상처가 났는데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쓰라리게 된다.

히12:15, 부지런히 살피 하나님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 뿌리가 돌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가정이나 교회에 쓴 뿌리가 돌아나면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한다. 파괴시킨다.

이 구절 다음에 쓴 뿌리의 예가 나온다. 16-17절, 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려 하자 그는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함(창 28:41).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 뒤 그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 평생 애를 쓰다가 나중에 야곱을 만난 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쓴 뿌리요, 쓴 것이다. 쓴 것은 항상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다.

2. 진노와 분노: 사람이란 당연히 화를 내도 되지만(26) 이성을 잃고 자멸할 정도로 화를 내면 안 된다. 그것은 진노,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이다. 자기 사위와 아들딸을 죽이려고 시도함. 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그러다가 결국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서 사망함.

목이 잘리고 죽어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이런 불행을 가져오는 진노와 분노를 버려야 한다.

며칠 전 한경 아르떼 채널, 베토벤 영화, 청각을 잃고 생의 후반부에 코랄(합창) 심포니 연주 장면 여기에 환희의 송가, 연주와 함께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던 모습이 중첩됨.

가만 보니 베토벤, 파가니니 등 음악의 거장들, 어릴 때 학대를 받음, 그 결과: 어른이 되어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됨

부모의 진노와 분노, 가정을 파괴한다. 목사의 진노와 분노 역시 교회를 파괴한다.

그러므로 가정, 교회, 국가의 지도자는 진노와 분노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3. 소리 지르는 것: 진노와 분노는 필연적으로 소리 지르는 것을 가져온다. 자제를 잃으면 소리를 지르게 된다.

4. 비방(evil speaking): 쓴 것이 도를 지나치면 상대방을 거짓으로 비방하기 시작한다. 목적: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밟아버리려는 것, 요즘 인터넷, 나와 교회 성경을 향한 비방을 보라. 특징: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 혹은 주장을 허수아비로 세우고는 두들겨 팬다. 왜?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나의 반응: 그대로 두라. 스스로 무너질 때가 올 테니. 우리 침례 성도들의 특징: 영혼의 자유, 심지어 누가 우리를 이단 고소하고 정죄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짓과 오류를 지적할 뿐이다. 한 번도 무엇을 믿으라, 무엇을 사용하라, 헌금 내라, 교회 출석하라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인격을 밟기 위해 중상모략으로 비방하는 일, 결국 본인이 망하게 된다. 하만과 그의 아들들

5. 악의(Malice): 이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어떤 사람이 잘 살거나 그의 일이 잘되면 배가 아프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없애려는 악한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악의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다. “나보다 잘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러나 좋은 지도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일을 하게 하는 사람, 특히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니까, 요3의 디오드레베, 요삼9-10

바울의 충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이것들은 성도와 성도, 성도와 불신자 사이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특히 교회 성도들 간에, 부부사이에 이런 것들이 넘치면

1.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다. 2. 교회가 약화되고 분열된다. 3.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긴다(빌 4:2-3), 유오디아, 순두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32절에 나와 있다.

용서하는 것(32)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32절을 읽어 보자.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하라(32).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절히 대하시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구원받기 전의 우리 상태: 롬5:8, 10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고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것은 결코 상대방의 죄, 비방, 비진리를 다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태도: 상대방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친절함(눅6:35-36)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로 인해 우리는 회개에 이른다(롬2:4)

그래서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용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 중 하나

마18:21-35,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21-22), 심오한 비유

값을 수 없는 빛을 진 사람(만 달란트), 빛을 탕감 받음(27)

나가서 얼마 안 되는 빛을 진 자를 독촉함(백 데나리온), 감옥에 가둠
비교해 보자. 1달란트=6,0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루 임금, 100,000원, 6억 원
만 달란트는 6억의 10,000배, 6조, 100데나리온 천만 원

예수님의 판단: 이런 자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형벌 주는 자들에게 그를 넘김(34)
바울의 권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하라.

죽을죄를 용서받았으니 마땅히 작은 것들을 용서해야 하지 않는가?

조건이 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마18:15-17

이것들과 균형을 이루어서 용서해야 한다. 이단 교리 등 회개해야 한다.

위어스비의 예화

어느 날 한 잘생긴 노인이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 저에게 결혼식을 집례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이 망설여지니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이 결혼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전에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30년 전에 저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말다툼이 있었고 제가 화를 내서 헤어졌어요. 그러다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이혼을 했죠. 우리 둘 다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사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들의 분열: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 모든 악의가 다 들어 있다.

“그동안 우리는 각각 혼자 살았는데 이제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쓴 것 때문에 삶의 기쁨을 빼앗겼으니 이제 재혼해서 주님께서 죽기 전에 몇 년의 행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한 쓴 것,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는 가정과 교회, 비방이 우정을 망가뜨린다.

부부, 부모 자식, 교회, 사회 직장

용서의 동기: 예수님의 사랑(5:1-2)

용서를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벧전4:8).

바울은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걸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1.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벧후1:4)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으로 걷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바울이 2절에서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권유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동떨어진 일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이다. 옛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벽을 쌓고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새 본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무너진 곳에 다리를 건설하고 평화를 선포한다.
2. 그리스도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구약 시대에 성전 제단에 바쳐진 희생 제물에 비교한다(레1:9, 13, 17; 2:9 등).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워, 태우는 희생물 곧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레1:9). ‘향기로운 냄새’의 이면에는 그 희생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만족시키므로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용서는 희생이다.

결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몇 가지 요소(4:31):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 모든 악의
인간관계 회복: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
우리는 인간이라 무조건 용서는 사실 불가능, 그러나 최대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
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물이
된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생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용서는 희생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빛의 자녀로 빛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엡3:6)

성경: 엡5:3-8

에베소서 6장으로 된 사도 바울의 짧은 서신, 그러나 영적인 진리가 매우 풍성하다.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잘 깨닫고 실천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와 복을 확신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지난주, 가정과 교회에서 용서하는 문제,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에는 희생이 따른다. 이런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오늘 < >, 빛의 자녀라는 말, 빛과 어둠,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왜 버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창세기, 1:1-5, 창조의 첫 날 하나님께서 하신 것, 빛을 창조해서 어둠을 몰아내심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는가?

바람을 불어서, 불도저 같은 것으로 밀어서, 뜨겁게 하거나 차갑게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유일한 방법: 빛이 있으면 된다. 자동으로 물러간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동시에 빛이시다. 요일1:5-6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다. 즉 우리 역시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다.

마5:14-15,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은 빛을 낸다.

빌2:15-16, 우리는 빛들로 빛나는 존재들, 우리의 의무

요약: '하나님은 빛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므로 빛 가운데 걸어야 하고 죄라는 어둠과는 결별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우리는 성도이다(3-4절)

성도 즉 saint는 거룩히 구별된 자, 어둠에서 분리되어 빛 쪽으로 구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둠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어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일원이 아니다.
베드로의 표현(벧전2:9-11), 11절의 권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난 빛, 성도(빛)의 행위

1. 에베소 교호 성도들에게 음행과 부정한 것, 탐욕의 죄(3)에 빠지면 안 됨을 강조한다:

어둠의 세계에 속하는 죄에 깊숙이 빠지는 것은 성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바울은 그중 일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그 시대에 만연했고 오늘날에도 만연하고 있는 성적인 죄(음행, 부정)에 대해 경고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죄는 기독교인의 가정과 지역 교회에 침입하여 슬픔을 가져다준다.

2. 탐욕(3)은 음행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두 죄는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절제되지 않은 욕구'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음행하는 사람과 탐욕스러운 사람은 각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함으로써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요일2:16)은 이 두 가지 죄를 설명한다. 바울은 "이런 죄는 생각조차,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유다 패망의 원인: 공공연한 음행, 렘5:7-9, 29:23

안타깝게도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급속도로 성 문화가 타락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혼 전 남녀 여행 같은 방을 쓰는 게 미덕, 자연스러움

지금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 부정, 탐욕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다.

교회 내에서 남녀 간의 부정한 문제, 이것은 어둠의 일이다.

3. 혀의 죄(4), 추잡한 말,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마음의 죄이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 나온다. 엡5:3에 언급된 음행 죄, 5:4에 언급된 추잡한 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저질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질의 말과 유머를 사용하며, 종종 성적인 죄를 짓고 싶거나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런 죄에 대한 농담을 즐긴다. 하나님의 성도는

외설적인 언어나 농담을 듣고 참으로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야기’는 단순한 유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하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 부패한 대화를 의미한다(엡4:29).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선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정죄하고 있다.

4. 희롱하는 말(4)은 "쉽게 돌릴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유머러스하게 들리도록 돌려서 농담 비슷하게 말하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재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재치 있게 말하는 능력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더러운 마음이나 저급한 동기에 붙어 있으면 저주가 된다.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불편한 농담으로 모든 대화를 오염시킬 수 있다.
5.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골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런 사람은 항상 말에 소금으로 간을 한다(골4:6).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6. 야고보의 말(약3:2),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5-6).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다(5-6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이미 들어갔다(요3:3). 그런데 정말로 들어갔는지 드러나는 때가 온다, 주님의 재림의 날, 5절(이때에)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죄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갈5:19-21, 육신의 행위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고의로 반복해서 이런 종류의 죄를 짓는 사람들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마7:21~23).

1. 음행을 일삼는 자: 늘 불법적인 성관계를 행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음행을 일삼는 사람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 3절과 거의 동일한 말씀.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와 동일시하는데 이는 탐욕이 어떤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여기며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경고는 가끔씩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에베소 도시의 특징, 당시 4-5대 도시, 다이애나 신전, 남자들이 거기 몰려가서 신전 여사제들과 음행, 구원받고 나서는 이런 것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사실상의 불신자
3. 다윗은 간음, 살인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어느 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물론 다윗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다.
4. 6절의 헛된 말들, 바울 시대에는 신자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거나 이미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 사기꾼들은 무지한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논리를 내세웠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계속 죄를 지으십시오!"

5. 바울은 롬6장에서 이 어리석고 천박한 주장에 대해 6:1-3으로 대답한다.

지난주, 침례, 강당에 앉아 있는데 이전에 보지 못하던 자매님 한 분, “어디서 오셨어요?”, “구원파에서 왔습니다.”, “어느 파인가요?”, “OO 파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나요?”, “제가 속한 구원파에서는 성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에 대해 듣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6. 이런 것이 헛된 말이다(6). 이렇게 가르치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구원은 어떤 죄를 지어도 좋다는 면허가 아니다. 면허라고 생각이 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엡5:5-6을 다시 읽어 보라. 로마서 6:1-3절과 함께
7. 그리스도인은 죄를 점점 더 적게 지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왕의 아이들이므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어둔 세상의 관습에 빠지는 것은 그의 존엄성에 어긋난다.
8. 세상 밖에 나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다. 악한 자들의 일에 참여하여 진노를 받는 자들과 함께 진노를 받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7).

우리는 빛이다(8-9절).

바울은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고 권고한다(8). 빛으로 걷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넘치면 하나님이 그 사회에 복을 주신다.

결론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이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았다. 지금 미국은 망하기 일보 직전, 법이 소용없다.

대통령이 국경을 열어놓는데 무슨 말을 하나?

이유 중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역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 식물 대통령, 범죄자들의 국회, 공의가 없는 사법부 좌익에 투표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는 나라를 구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이러니

렘5:1, 29-31

지금이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기도하면서 빛의 자녀로 걸으며 선함과 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에 손을 얹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엡31)

성경: 엡5:8-14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지만 영적인 진리가 매우 풍성하다.

앞부분,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 구원,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 교회(예수님의 몸, 신부)

뒷부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룬다.

지난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빛을 내면서 살아야 한다.

음행, 탐욕, 더러운 대화 안 된다. 구원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좋다. 헛된 말에 속지 말라.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한다(빌2:15-16), 우리의 의무

오늘 < >, 우리는 빛, 우리의 신분, 빛의 열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등 설명, 책망해야 한다.

우리는 빛이다(8-9절).

지난 주 말씀 이어나가기 위해 8절을 잠시 더 본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고 권고한다(8). 기존 성경 행하다가 아니다, 걷는다.

우리는 한때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구원받기 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상태: 그들은 악하고 불경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교훈의 빛이 없고 내면에 성령님의 조명과 은혜가 결핍된 상태였다(엡2:1-3). 진노의 자녀,

죄의 상태는 어둠의 상태이다. 사람이 어둠 속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엡2:4-10)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걸어야 한다.

히브리어 사람들의 생각: 빛의 자녀는 지식과 거룩함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1. '빛의 자녀로 걷는다'는 것(8)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투명한 양심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채로 드러나므로 무엇도 숨길 수 없다.
2. '빛의 자녀로서 걷는다'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행동으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 하나님의 빛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사탄(고후 4:3-4)과 죄(엡 4:17-19)에 의해 눈이 멀어 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길 잃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
3. 빛은 또한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 빛은 진실을 드러내고 사물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어둠과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넘치면 하나님이 그 사회에 복을 주신다.

빛의 자녀로 걷는 것들, 그 반대가 11-14절에 나와 있다.

1. 육체의 정욕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9).

빛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9)

빛(하나님)은 성령의 열매의 한 가지 표현인 '선함'을 낳는다(갈5:22).

1. 선함은 '행동하는 사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선한 사람이 아니면 심히 곤란하다.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시집 장가가려는 아이들: good nature의 상대를 구하라.

2. 의 혹은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옳음을 의미한다.

벧전2:12, 정직한 행실

13-15: 좋은 시민

21-24, 그리스도의 본, 목적,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시려고(24)

3. 성도의 열매, 빛의 열매는 진리 안에 있다. 열매는 삶의 결과들, 이것들이 항상 진리를 드러낸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단순히 구원받았다. 그 이상이다.
세상에 살면서 의, 진리, 선함을 추구해야 한다.

2.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해야 한다(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라고 계시하신 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찾아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일치시켜서 그것에 동의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야 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생각하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찾아서 이러한 죄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의, 진리, 선함,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 예수님 당시와 동일하다. 율법 박사,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자기들이 세워놓은 의, 진리, 선함의 기준이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마 22:23).

사두개인들: 영, 천사, 부활 No!(행23:8)

바리새인의 선함(눅18:11-12):

롬12:1-2

미6:7-8

3.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면 안 된다(11절)

매튜 헨리의 글: 죄의 행위는 어둠의 행위, 이것은 무지의 어둠에서 비롯되고 은폐의 어둠을 추구하며 지옥의 어둠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어둠의 일들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죄로 인해 얻는 이익이 있다 해도 영원하지 않으며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들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칭찬, 조언, 동의 또는 은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들에 동참한다면 그들의 재앙에 동참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그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기보다는 그들을 책망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4.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 사도는 여기서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이 신전에서 벌이는 끔찍한 신비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물론 음행, 더러운 대화, 모든 부정한 것

현시대는 마지막 시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리스트

1. WCC: 종교 통합(*), (*), (*)

2. 동성애(*), (*), (*)

3. 낙태 (*), (*)Colorado, New Hampshire, New Mexico, Oregon, Vermont, Alaska and New Jersey , 워싱턴 DC

4, 사회주의/공산주의 (*)

5. 오순절 은사 신사도: 방언/예언 (*), 성령 터널(&)

6. 경배와 찬양, (&) 칼 렌츠 비디오,

7. 특별 새벽 기도, 주여 삼창, 다니엘 21일 기도

8. 현대 역본들(*)

그러나 빛이 들어가면 책망받아야 할 것들이 밝히 드러난다(13절).

우리는 무익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언행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게 하는 적절한 수단이다.

빛이 들어가면 반드시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한 친구는 "청소년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읽는 모든 것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오염되어 자신도 죄에 빠졌던 것을 기억한다. 신자가 썩은 시체를 부검하여 썩은 부분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불을 켜는 것뿐이다!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13).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14)

빛을 생각하면 해가 떠올라 맞이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울은 사60:1을 생각하며 엡5:14을 제시하는 것 같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느니라.’

롬 13:11-13과 살전 5:1-10에도 같은 이미지가 있다.

여기의 그분은 아마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

적극적으로 어두움의 일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어나서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 아침에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날이 밝아왔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 속에서 잠자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했다.

무덤의 어둠은 지나갔고 우리는 이제 구원의 빛 가운데서 걷고 있다. 구원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며,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실 것이다(요1:4). 즉 주님의 권능으로 외쳐야 한다(마28:18-20).

결론

불신자들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다.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 때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큰 변화를 겪어 빛이 되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상태와 특권에 적합하게 해야 하고 우리가 누리는

혜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부응해야 한다.

그것은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책망하는 것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엠펜3)

성경: 엠펜5:15-16

에베소서 6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지만 영적인 진리가 매우 풍성하다.

우리는 지금 뒷부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것은 성도에게 매우 필요하고 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가르치기도 어렵다.

그러나 보니 어떤 교회들은 일 년 내내 죽을 때까지 구원만 가르친다.

갈4:19, 육신을 제어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다. 벰후3:17-18
지난 두 주, 원래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 어둠의 치리자 마귀의 지배를 받던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빛을 내면서 살아야 한다.

1. 음행, 탐욕, 더러운 대화 안 된다. 구원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좋다. 헛된 말에 속지 말라(3-5절).

2. 세상에 살면서 성령님의 열매인 의, 진리, 선함을 추구해야 한다(9절).

3.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해야 한다(10절).

4.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면 안 된다(11절)

오늘 < >,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생존 전략, 오늘 두 가지

1.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15)

15절 영어, circumspectly, 사망을 살펴봄

우리가 사는 시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눅17:26-30) (*), (*)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함.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더니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멸함.

창19:14 롯의 사위들은 그가 농담하는 줄로 앎.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하지 않다가 모두 멸망을 당함.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음.

노아 시대 8명(*), 롯 4명(그나마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어떤가? 먹고사는 것, 아이들 학교, 집, 차, 노후 등등(다 필요하지만 조심하자).

마7:13-14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을 파악하고 걸어야 한다.

시대의 표적들 분별: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굿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야,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3)

이런 차원에서 아이들 교육, 직접 선택, 결혼

2. 시간을 되찾으라(16)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15절 후반부).

지혜로운 자의 특징: 시간을 구분, 구별, 가장 옳은 데 쓴다.

1. 여기가 영원히 살 데가 아니다.

히브리서 아브라함 이야기(11:8-16)

어리석은 자: 여기가 영원히 살 데로 생각한다. 눅16장의 부자, 돈 많고 마음이 좋은 사람, 자기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런데 그는 정작 자기의 혼에 대해서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시간과 건강

특히 영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10:28,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떨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직 영원한 종착지가 결정되지 않은 분,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 나의 대속 희생 제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믿음과 은혜로

3. 이 땅에서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지금부터 10년 전 통계, 아마 지금도 대다수 직장인들 비슷할 것이다.

일본의 어떤 샐러리맨이 자기가 30년 동안 산 시간을 분석해 보았다.

30년은 10,950일인데 그 중에 그가 잤던 시간이 3,505일(32%)이고 식사 시간이 707일(6.4%), 불쾌한 날이 1,596일(14.5%), 술집에 가거나 연회에 초청받아서 술 먹고 한 날이 517일(7.1%), 담배를 피운 시간이 447일(4.1%), 텔레비전 본 시간이 775일(7%), 전화를 붙잡고 있던 시간이 691일(6.3%), 축제일이라든가 관혼상제 등에 간 날이 554일(5.1%), 남의 흥분 시간이 441일(4%), 도박을 한 것이 258일(2.3%), 빈둥빈둥 방바닥에서 누워 지낸 시간이 197일(1.8%)이었다. 그나마 유용하게 독서한 시간은 722일(6.6%)이었다.

지금은 휴대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튜브에 매몰되어 바보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TV가 바보 상자, 지금은 스마트폰이 바보 상자

매몰돼서, 특히 정치 문제, 하루에 1시간 이상 유튜브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우리 자신을 돌아쳐보자. 기독교인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시간은 금방 가 버린다. 청년들, 학생들: 젊은 시절의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4. 도스토예프스키 이야기

1849년 12월 22일, 러시아에서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날씨에 10여 명의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나왔습니다. 28세의 한 청년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형장의 세 번째 기둥에 묶였습니다. 이들은 이상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황제에게 붙잡힌 사람들이었다.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 사형수는 단 5분이라는 소리에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이라니 이제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여,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2.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자기 삶을 돌아보는 데 2분을 썼습니다.
3.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내 맨발에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주위 자연을 둘러보는 데 마지막 1분을 썼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소.” 그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철컹!’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급박한 전갈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형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1821-1881). (*)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예프스키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날들을 돌아쳐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진리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이 경험으로 인하여 몇몇 사람은 공포와 충격으로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창작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일절 출판물이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성경에 대한 깊은 독서와 감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혔던 죄수들과 민중들의 생생한 삶을 통해 그는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의 사상적 변화를 겪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란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 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는 훗날 <백치> 라는 장편소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 데, 2분은 삶을 돌아보는 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그는 임종 직전 아내에게 시베리아 형무소에 있었던 시절 지니고 있었던 성경책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고 같은 날 밤 11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죽었다. 위키 백과 등에서.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5. 시간을 되찾는다는 말의 의미(16)

킹제임스 성경은 시간을 아끼는 데 그치지 말고 되찾으라는 말을 사용한다.

엡5:16, 시간을 되찾으라(골4:5도).

Redeem(*): 무르다, 구속하다, 값을 주고 되찾으라, 아끼라 등, 희생

누군가에게 팔려나간 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은 세상과 마귀에게 팔려나갔다. 거기에 구속을 받는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희생이 없이는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없다.

희생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쓰라는 것이다.

이유: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요일2:15-17).

날들이 악하다:

지금은 마지막 때, 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7년 환난기, 계6의 말 탄 자들이 등장할 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물론 우리는 휴거(*), 그러나 악한 일들이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다.

유전자 조작(*)

인간 복제(*), (*)

동성연애, LGBTQ, (*), (*), (*), 에이즈(*)

인간 감시(*), (*), (*), (*)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파급 (*), (*), (*), (*), (*), (*)

낙태 (*), AI(*), 초연결(*)

종교 통합(*), 신사도 음악 예배 은사주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감각 마비

진리와 비진리 구분 못함(제사장들, 목사들 겔22:25-26), 사5:20-21

결론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걸어야 한다.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 세상이 악하기에.

주기도문,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마6:13)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자.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생활(엡33)

성경: 엡5:31-32

에베소서 6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지만 영적인 진리가 매우 풍성하다.

후반부 3장 성화, 지난 시간까지 개개인의 성화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과 결혼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려 한다. 오늘 < >

어제 크리스천투데이 신문: 제목, 목회자 10명 중 8명, 팽배하는 '비혼주의' 우려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 10명 중 8명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본 연구소 구독자 중 목회자만을 대상으로 “비혼주의와 비혼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다. ‘결혼’에 대해 목사님의 생각에 더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구독자 중 750명이 응답한 가운데 79%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15%)’, ‘뉘라 말할 수 없다(6%)’로, 10명 중 2명은 ‘비혼 지지’ 혹은 ‘판단 유보’에 대한 입장을 보였다.

연구소는 “비혼주의가 팽배한 사회 흐름 속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목사님들의 의견이 강하게 드러나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바른인권여성연구소장)는 “60년대 성해방을 외쳤던 여성운동과 함께 90년대 성해체를 조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유입으로 비혼, 이혼, 낙태, 동성혼, 비혼 출산 등,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깨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일고 있다”고 했다.

현 교수는 “비혼은 인간이 책임을 지거나 어느 제도 속에 얽매어 살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라며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비혼 출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 오늘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생활을 요약해서 설교하고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등에 대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강해하려 한다.

1. 결혼이란 무엇인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결합으로 인류의 존속과 행복을 위해 창조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규례(창 1:27-28; 2:18-24).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기초가 되며 부모의 사랑과 책임감을 조장함으로써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미덕과 부지런함과 명예와 바른 습관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모든 것을 갖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일부일처 제도를 확립하셨다(말2:15).

다시 강조함: 결혼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 뒤 가장 처음 직접 제정하신 규례

하나님의 창안물: 사람의 것이 아니다. 결혼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때에 가장 먼저 결혼 제도가 생긴 이유를 살펴보면 결혼의 큰 목적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우주만물 창조, “좋았더라” 총 7회(4, 10, 12, 18, 21, 25, 31절).

창세기 2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그런데 놀랍게도 2장 18절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not good)는 말이 나온다.

아담은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런데 왜 좋지 않았을까?

창1:26,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 안의 세 인격체(서로 알고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은 곧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으로는 완전해 질 수 없다. 그래서 낙원에서 고독은 문제였다.

그러므로 돈, 명예, 지위, 학식 등으로는 가족과 친구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서 합당한 조력자(help meet)를 창조하셨다.

이 여자를 보고 아담은 23절에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라고 탄성을 지름(23절).
“당신을 만나니 이제야 내 공허함이 다 사라졌소.”, 합당한 동반자, 조력자, 친구
결혼은 친구 관계 soul mate

부부는 공통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도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성격이 달라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같으므로 친구가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친구는 인간적으로도 관심사가 같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관심사가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결혼은 여기에다 로맨틱한 남녀의 사랑을 더해 주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우정 관계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좋은 친구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합당한 조력자 친구를 만드셨다.

에베소서 5장의 에베소 사람들, 이교도들, 결혼은 사회생활을 위한 거래
신분을 위해 좋은 집과 결혼해야만 함.

아내는 애 잘 낳고 다른 가족과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

그러나 바울은 결혼의 1차 목적이 사회 지위 확보나 감정적인 로망스가 아니고 서로를 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25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말하며 26절에 그 목적이
교회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6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5:32)처럼 남편과 아내는 가장 좋은 친구요, 애인이 되어야 하며 서로를 성화로
이끄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공통의 비전이 없으면 깊이 하나 되는 일이 매우 힘들다. ★★★

그리스도인 부부의 공통 목표: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도와서 배우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통의 초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 점도 흠도 없는 우리의 새 사람에 맞추어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다.

부부는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친구이어야 한다. ★★★

서로 결혼하려 할 때 이미 완성된 사람을 보려고 한다. No!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그 사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 결혼해야 한다.

경고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후6:14-18).

왜? 공통 목표가 없다. understanding이 없다.

그리스도가 센터가 될 수 없다. 결혼 주례는 해 줄 수 있다.

내 배우자는 내게 가장 소중한 친구인가?

상대방을 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혼

하나님의 일부일처 결혼 제도를 만드심,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날까지 지속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의 적용 대상이 죄 덩어리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파기하는
이혼이 생기게 된다.

구약시대에는 일부다처제가 성행함,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수십 명의 부인들, 심지어 1,000여 명

이런 일이 1,00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예수님 시대에도 결혼과 이혼이 사회의 매우 큰 문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도 이혼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말2:12-16).

마19:3-9, 제자들의 반응(10)

모세의 율법은 여러 이유로 이혼을 허락했으나(신24:1-4)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직 음행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마5:31-32; 19:9). 한마디로 결혼한 남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19:6)

이러함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이혼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목사나 교회의 입장: 별거를 하더라도 이혼은 하지 말라고 충고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거나 당사자를 출회시키거나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 하나님 앞에 가서 스스로 회개보고 한다.

이것 말고 다른 이혼 사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7장 10-16

불신 배우자가 떠나려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15).

그럼에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15)

그 이유(16)

그 외에 다른 이유: 구타, 학대 행위, 결혼 자체를 모르는 사라들의 행위

재혼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배우자가 먼저 죽는 경우가 있다.

또 본인 생각에 피치 못할 일로 여겨지는 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재혼하는 것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가?

1.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롬7:1-3, 배우자 사별: 사망한 배우자와의 법 혹은 계약 관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재혼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의 충고: 고전7:39-40

재혼 사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창25:1), 그두라. 미다안을 낳음

룻기의 주인공 룻, 자기 남편이 죽은 뒤 보아스와 재혼함

대언자 이사야도 첫 아내가 죽은 뒤 재혼한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배우자 사별 후 재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음

믿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으면 합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함. 그러나 이것 역시 영혼의 자유 문제, 본인의 회개 보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재혼하려고 하면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수군 수군대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별한 배우자가 같은 교회를 다닌 경우, 그 배우자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나와 교회의 판단: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하겠다고 하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며 아무소리 말고 축하해 주면 된다.

왜 1년만에 하느냐?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왜 젊은 사람이랑 하느냐?

아이들이 있는 경우 아이들 문제는 어찌려고 하느냐? 등등...오지랖을 넓히지 말라.

나의 판단: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축하하고 도와주면 된다.

다 큰 성인들이 재혼 결정을 할 때 걱정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교회 내에서 이런 일로 수군 수군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아브라함, 룻도 재혼하였다.

그 두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며 바르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 책임이다.

독신 생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아이들을 낳아서 땅을 채우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기본 임무 결혼의 또 다른 목적(창1:28):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어떤 이유로든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도 있다.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고전9:7, 결혼 혹은 독신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유한 선물 바울은 독신으로 지냈다.

구약 시대 예레미야 역시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렘16:2).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바울의 경우 주님의 재림이 자기 시대에 있을 것으로 여기고 가능하면 각 사람이 현재의 처지에 머물 것을 간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독특한 상황. 이것을 일반화해서 독신 생활을 주장하면 안 된다.

여하튼 교회 안에 독신으로 지내는 형제/자매님들, 있는 그대로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 형제/자매님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독신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는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

결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결혼과 독신 생활 둘 다 허용된다.

결혼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재혼의 경우: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야 한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 도와 주어야 한다. 초혼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

이혼: 가급적 이혼보다는 별거로 지내다가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목사나 교회는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없다.

우리 모두가 처한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 여덟 가지 실행하기(엡34)

성경: 엡5:17

요즘 에베소서 강해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

이것은 6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지만 영적인 진리가 매우 풍성하다.

후반부 3장 성화, 오늘까지 개개인의 성화에 대해 강해

지난 주,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

1.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15). 마지막 때의 징조들 파악

2.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시간이 세상과 마귀의 것이 된다.

오늘 < >,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1.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16절: 날들이 악하다. 17절: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지혜가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17절).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명확한 사고를 배제하는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되었으며 위험하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롬12:1-2)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묵상, 예배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길 기대하신다. 즉 그분의 뜻을 배우려면 사실을 수집하고, 검토하고, 따져보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약1:5).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17절 b). 주의 뜻이라는 말: 바울은 이 계획을 이미 암시했다(엡2:10).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내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나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내 삶을 인도해야 한다. 그분은 말씀(골1:9-10), 우리 마음속의 성령님(골 3:15),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것(롬 8:28)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신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걸어야 할 수 있다. 청사진을 따라가는 건축가처럼 그는 건축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성취한다.

2. 하나님의 뜻 오남용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의로 발견하려 하지 말고 이미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확한 뜻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자.

롬12:2, 하나님의 스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롬12:2).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용어: 하나님의 뜻

1970년대 후반에 기독교계에서 유행하던 우스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떤 신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어떤 못 생긴 여자가 그의 무릎 위로 넘어졌다. 그 신학생은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다. 다음에 다시 버스가 급정거하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던 예쁜 여자가 넘어지면서 그의 무릎 위로 넘어졌다. 그러자 그는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걸핏하면 "하나님의 뜻", "주님 뜻대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의미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주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그분의 뜻을 알아야만 행동한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하나님은 지금 꿈이나 직통 계시로 일하지 않는다.

자기의 잘못된 선택에 따라 일이 잘못되면 "뭘,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체념을 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한다.

3. 하나님의 가장 명백한 뜻 8가지 알고 실천하기

하나님의 뜻 23번(신약성경에만, 로마서와 벵전에 4번씩 나온다).

이중 가장 명백한 것 8가지, 제임스 나스의 요약을 중심으로

1. 갈라디아서 1장 4절: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다.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요일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성경에 따르면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그것들 모두가 이 악한 현 세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떤 차를 구입하고 어떤 색 옷을 입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악한 현 세상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과 관계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2. 로마서 1:9-10, 15:31-32, 2.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바울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믿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나눔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떠나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북돋워 주고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힘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위해 매도 맞을 수 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3.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숨겨진 비밀이 아니다. 고후8:5를 보라.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이 세상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친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가르친다. 이 세상은 TV와 뉴스미디어를 통해 요람에 서부터 무덤까지 우리를 세뇌시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 교회가 자신을 즐겁게 해 주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도 남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많다.

4. 행13:36,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섬길 누군가가 있고, 섬길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다. 다윗은 이것에 관해 좋은 본을 보여 주고 있다. 사도행전 13:36
다윗은 자기의 가족을 섬길 수 있었다. 또 이웃도 섬길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세대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속한 마을, 지역에서부터 섬겨야 한다.
그래서 미디어 선교 등, 우리 세대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5.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미움과 쓴 뿌리와 복수심과 야비한 영을 갖지 않는 것이다. 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바로 쓴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왜 마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가? 그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모든 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평할 것들보다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있다.

6.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2:14-15,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2:12)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으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정죄하고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언론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해서
반론을 펼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 대한 거짓 비방에 맞서기 위해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꾸하지 말고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7.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17-18,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할지어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우리가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견뎌 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간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 짐을 지셨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8.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3-6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음행을 조장합니다. 이 세상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열정과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조절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

지금은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산 기도에서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성경에 다 들어 있다. 오늘은 8가지 명백한 뜻, 다른 것들도 찾아보기 바란다.

이런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엡35)

성경: 엡5:18-21

요즘 에베소서 강해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뒷부분 성화 부분, 내게도 절실히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리하리라고 믿는다.

지난 몇 시간,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

1.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15). 마지막 때의 징조들 파악
2.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16).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시간이 세상과 마귀의 것이 된다.
3.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17),

명백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23번(신약성경에만, 로마서와 벵전에 4번씩 나온다). 이 뜻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된다.

1. 갈라디아서 1장 4절: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2. 로마서 1:9-10, 15:31-32,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3. 고린도후서 8장 5절,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4. 행13:36,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5. 데살로니가전서 5:18,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6. 베드로전서 2:14-15,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7. 베드로전서 3:17-18, 베드로전서 4:19,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8. 데살로니가전서 4:3-6,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 >, 에베소서 5장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의미, 이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

성령 충만이란?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18절: 그 뜻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성령님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 안에 완전한 인격체로 들어오신다: 성령 침례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롬8:9).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다(고전6:19).

그러므로 구원 받은 이후에 “성령님을 달라.”고 구하면 안 된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

행1:8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다.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이너마이트의 잠재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밖으로 분출시키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이다.

나도 간절하게 원하는 것: 성령 충만,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한 스트레스, 육신의 병약함,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꾸 산기도, 방언, 예언, 신유 등이 생각나지 않는가?

나와 내 처 비교. 나는 열심히 말씀 준비 설교, 성경을 내 처보다 많이 안다.

어느 면에서 성경, 성경 강해에 파묻혀 산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나보다 내 처가 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고 성령 충만

나는 늘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받으며 불안한 가운데 산다.

내 처는 여러 군데가 아프고 일이 많아도 늘 평안하다.

성격도 크게 좌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성령 충만의 차이라고 본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성령 충만은 큰 능력을 행하고 설교를 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늘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속이 빈 장갑과 같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지낸다(엡2:1).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장갑에게 '마이크를 잡아!'하고 말하면 장갑이 마이크를 잡을까?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다.

장갑은 사람의 손이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 즉 손의 지배를 받으면 된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장갑처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내 뜻을 내어놓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걷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매사에 내가 성령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 지배

그래서 18절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비하고 있다.

술에 취하면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도 주사를 부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격할 일을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볼 수 없던 과도함이 드러난다(18).

왜?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한다.

fill: 성령님이 채우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시 강조한다. 성령 충만은 일의 크기, 끼치는 영향 등이 아니다.

교회의 무명 성도가 목사보다 훨씬 더 충령님으로 추만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전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

우리말로는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라는 말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채우시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19-21)

18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세미 콜론을 찍은 뒤 19-21절은 시작이 다 동명사로 되어 있다.

이것은 18절의 성령 충만의 예를 든 것이다.

1.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에게 말한다.

교회나 사회생활을 노래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가슴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나와야 한다. 수직적인 찬양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골3:16).

수직적인 찬양이 이루어지면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찬양이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즐거운가? ★★★

역사의 기록: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시작부터 모이면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시편을 낭송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영적인 노래(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를 불렀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로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노래 거리가 많다.

부흥의 기간에는 찬송이 넘쳐 났다: 마르틴 루터, 찰스 웨슬리(6,000곡)

19세기의 무디와 생키의 사역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음악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

말씀과 함께 음악은 가장 중요한 요소

오케스트라, 성악가, 모든 성도들의 회중 찬양, 특별 찬송,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교회: 존 맥아더 목사, 자체 찬송가 제작, 고전 스타일, 현대풍 스타일
 록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전풍이든 현대풍이든 고상함이 넘친다.
 행16:25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특별히 찬송가는 노래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다. 많이 부르자.
 마제스티 찬송가, 뒷부분은 침례성도들의 찬송,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부르는 찬송.

2. 모든 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감사로 표현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살전5:18).
 현대 사회는 부가 넘친다. 그럼에도 없는 것을 가지려고 불평을 한다. 상대적인 빈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롬1:21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 빌4:11-13

우리가 임종의 침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지내라.

3.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최종 결과
 이 일에는 예수님이 가장 모범이 되신다.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가난한 자로 말구유에 오셔서 빈곤하게 사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가장
 비참한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러 오셨다(막10:44-45).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 거만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는 정반대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계급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는 동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벧전5:5).

마귀의 죄, 인간의 죄, 지금도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죄; 교만

찬양은 감사로 이어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표출된다.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22-33), 부모와 자식(6:1-4), 주인과 종(6:5-9)의 아름다운 관계가 나온다.

결론

구원과 더불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1. 명령이다(권유나 선택 사항이 아니다).

2.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다.

3. 수동적인 명령이다. 우리 스스로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채우신다. 다만 간절하게 사모해야 한다.

4. 현재형 명령이다: 계속해서 충만하고 충만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 날들이 악하므로 더욱 더 성령 충만해야 한다. 같이 사모하자. ★★★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우울증 극복의 원동력(엡36)

성경: 엡5:18

요즘 에베소서 강해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뒷부분 성화 부분, 내게도 절실히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하리라고 믿는다.

지난 시간, 성령 충만에 대해 강해함

오늘 < >,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 더 강해해야 함

성령님, 그분의 사역,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특히 현대인들의 큰 병 우울증(나)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할지니라(18)

늘 접하는 말을 설명하려면 쉽지 않다. 은혜, 구원, 천국, 교회, 하나님, 예수님, 마귀, 삼위일체 등 이런 말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표준은 성령 세례(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가 아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지배받는 것).

시간을 되찾고 주님의 뜻을 알려면(16-17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물건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8의 시몬, 마법사,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안수 성령님, 돈으로 사려 함(17-18)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교회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 성령님이 영원토록 안에 거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분의 전(고전6:19) 사람의 구원: 성령 침례, 가득 채운다.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나가는가? 성령님이 다리 한쪽만 우리 안에 걸치고

계신가? 그래서 떠나려는 성령님을 끌어당겨야 하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인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대조

가장 천한 일; 가장 고상한 일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잠20:1), 스스로 속는다; 하나님의 조롱 욕정과 수치; 자유와 평안

퇴폐와 허비;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헛된 상상과 후회; 진리, 하나님의 뜻 추구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위로자와 교사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이미 주어졌다(행2:1-4).

하나님은 더 이상 시내 산에서처럼, 사도 시대처럼 기적과 표적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지막 대언자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분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다.

아들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심, 구원

성령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심, 성화

성령님께서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행할 능력을 주신다.

모든 신자는 이미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1. 거룩하신 영(엡4:30), 그러므로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 거룩한 표준을 알고 지킬 줄 아는 사람 거룩한 교회, 언행, 복장, 음악

2. 진리의 영(요14:17),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다. 말씀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 그 결과 복종할 수 있다. 거짓과 속임이 있으면 안 된다.

맑은 정신, 지성과 이성과 자제력을 잃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고전14:32-33, 40),

No!

3. 위로의 영(요14:16), 위로자, 온유한 분, 무질서와 혼란 No!
4. 그리스도만을 높인다(요16:14), 그러므로 내 영광이나 교회의 영광이 되면 일하지 않는다.
5. 성령님의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야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 가능한가?

모든 신자는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오순절 이후 초대 교회의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이다.

행2:3, 4, 행4:31, 행10:44, 행13:52

성령 충만 가능하다. 성령 충만 가능하다. 성령 충만 가능하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은 인격의 변화(속사람의 변화)로 나타난다.

온유하게, 부드럽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람이 변하는 것: 인생의 가장 큰 기적

1. 자기의 무가치함, “내가 아니라 주님”, 주님 떠나서는 할 수 없다.
2. 성경 말씀의 배고픔, 3.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함(고전2:9, 10).
4. 감사와 찬양과 더불어 기도(빌4:6-7)
5.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 성도와 불신자, 사도 바울의 눈물(행20, 빌3:18).
6. 마귀의 권세들과의 다툼(엡6:12)
7. 고난과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의 태도가 나옴(행2:13), 스테반

성령 충만 시험: 기쁨: 나에게 하는 말

1. 기쁨, 어떤 기쁨인가?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살전1:6-7),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공유하는 기쁨, 슬픔이 없다.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나 힘들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위로 나아간다. 성령님의 기쁨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다. 기쁨과 성령님은 같이 다닌다. 행6:41, 매 맞고도 기뻐한다. 행13:52, 쫓겨나고도 기뻐한다(비시디아 안디옥). 행16:25, 감옥의 바울과 실라 느8:10,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우울증 해결의 최선책 그래서 평안이 생긴다. 시4:7-8
2.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널려 있다. 어떻게 장애물을 이기고 나갈까? 스테반(행6:5),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일곱 명 선출 바나바(행11:24),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안디옥 파송)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다.
3. 무엇을 믿는가? 히11:6, 롬8:28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 가능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마10:29).
하나님의 세상 통치는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15:13).
4. 그러니까 믿고 신뢰해야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
성령님에 의해 소망이 넘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에 의해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100%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
5. 시42:1,2의 우울함
우리 자신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설교해야 한다. (시42:5, 11; 43:5)
그리고 다윗처럼 외쳐야 한다(시23:4-6).

성령 충만 시험 및 확인 요약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 믿음, 소망, 평안

저녁에 누울 때, 기쁨, 믿음, 소망, 평안,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우울증 해결의 종결자
이런 기쁨과 평안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엡37)

성경: 엡5:22-33

요즘 에베소서 강해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뒷부분 성화 부분, 심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일
지난 몇 시간,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

1.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15). 마지막 때의 징조들 파악
2.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16).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시간이 세상과 마귀의 것이 된다.
3.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17).
4. 앞뒤 문맥상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다(18).

성령 충만이란?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한다.

fill: 성령님이 채우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채우도록 우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현재형 명령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1.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에게 말한다(19). 찬양과 노래
2. 모든 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20). 감사
3.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한다(21). 서로를 섬긴다.
4. 즉 찬양은 감사로 이어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표출된다.

섬기려면 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22-33), 부모와 자식(6:1-4), 주인과 종(6:5-9)의 아름다운 관계가 나온다.

오늘 < > 남편과 아내의 결혼, 먼저 산을 보고 그 안의 나무를 보기 바란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원대한 목적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명령(22-30)

이미 몇 년 전에 가정과 결혼(8개), 결혼 시리즈(6개),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자세하게 볼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언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할 것이다.

지금은 에베소서 강해, 오늘 남편과 아내 부분만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창세기로 가서 첫 번째 결혼을 살펴보면 남자와 역자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 한다.

아내에 대한 명령(22-24)

성령 충만하면 서로에게 복종한다(21). 이 문맥에서 22절의 명령이 나온다.

22절: submit,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다. 집안의 최종 권위/책임은 남편이라는 말이다.

23절: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24절: 그러므로 복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는 말,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submit, subject라는 말을 썼다. 역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다.

남편에 대한 명령(25-30): 6절로 아내 3절보다 많다

25절: 아내를 사랑하라.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26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구원, 그 뒤 거룩히 구별된 자들

27절: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흠과 점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26-27은 사실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결혼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를 위해 자신을 주고 성화하는 것같이 남편과 아내도 자기의 배우자를 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결혼하는 순간 완전한 배우자는 없다. 배우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 생활이 필요하다. '나를 통해 저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 면에서 남편의 사명이 훨씬 더 힘든 일이다.

28-29절: 이렇게 남편의 힘든 일이 구체적으로 표현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정의 행복과 기쁨은 남편의 희생에서 시작이 된다.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아예 이런 생각 자체가 결혼의 목적을 놓친 것이다.

벧전3:7

위대한 신비(30-33)

30절: 예수님은 왜 교회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분의 몸, 그분의 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남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내 아내, 자식들은 내 몸, 내 뼈들

31절: 이런 까닭으로, 31절 전체가 창2:24절 인용, 거기서는 그러므로,

30절의 머리와 몸과 뼈, 이것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두 육체가 아니라 한 육체

즉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한 육체이다. Great mystery

32절: 이것은 위대한 신비, 남편과 아내의 한 육체 결합은 큰 신비

즉 결혼은 큰 신비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결합의 신비는 실제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

놓치면 안 되는 것

22-32절,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복종,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예표이다.

계19:6-9, 세상 모든 일의 끝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휴거받은 뒤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의 의미(30절), 결혼: 영원한 결합,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신다.

성경의 첫 결혼(창2:18-25)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이야기이다.

창2장, 계19장, 첫 결혼과 마지막 결혼, 첫 결혼은 우리 모두의 결혼과 마지막 결혼의 예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첫 결혼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

시작: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창2:18).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

19-20절, 모든 짐승과 날짐승에게는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는 짝이 없음

21-25절, 이브를 만들고 결혼을 시킴

이것은 1장 27절에 대한 설명, 여섯째 날

딤후2:8-14,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9-12: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를 다스리면 안 되는 이유

13절: 구체적인 이유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들어지고 남자를 위해 만들어졌다(창2:18; 고전11:8-9).

이런 이유로 여자들은 남자들을 겸손히 대해야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들을 다스리면 안 되고 순종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자 목사 등이 남자를 인도하면 안 된다. 목사 집사의 자격(딤후3:2, 12), 한 아내의 남편 그런데 6일 창조 과정에서 여자가 맨 마지막에 창조됨, 그래서 남자의 영광이다(고전11:7).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남편의 머리에 있는 왕관, 즉 눈에 보이는 창조 세상의 정점이다.

아담은 아내가 만들어지는 동안 잠을 잤으므로 주님의 영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그에게 무슨 조언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그는 그것에 대해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자신과 모든 일을 창조자의 뜻과 지혜에 맡기고 편안히 잠을 잤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한다(잠19:14).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지어졌다. 의미, 1. 머리로 지었으면 그를 다스리려 할 것이다.
2. 발로 지었으면 밟히는 존재, 3. 옆구리, 팔 밑, 늘 보호 받는 데, 늘 남자가 늘 보호해야 하는

대상, 심장(heart) 근처, 사랑받기 위하여 마음 가까운 데 지으심.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은 첫 번째 결혼, 앞으로 다가올 결혼들의 예표

특히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

이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표(엡5:31)
하나님은 단순히 아담과 이브의 결혼이 아니라 계19장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염두에 두심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그의 배우자인 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옆구리가 열리고 피와 물이 나왔다.

그 피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고 물은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엡5:25,26)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두 사람을 만드셨고, 이제 자신의 규례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이 결혼은 완전한 순결로 이루어진 결혼이었다.

결혼의 순결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사례(25절의 의미)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 오셨다(22). 지금 결혼식에서 하듯이

아담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녀를 받았다(23절):
그의 외침 "이 여자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입니다. 내 살 중의 살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조력자,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었던 제2의 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는 아내는 '언약의 아내'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사이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요
네 언약의 아내니라(말2:14)

결혼은 단순히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언약이다.

신랑: 나 김형창은 그대 이은아를 아내로 맞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아담은 또한 그녀를 받아들이는 표시로 이브에게만 독특하게 해당되는 이름이 아니라 이브의 성,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름을 주었다. 앞으로 나는 이 사람을 여자라 부를 것이다.

히브리어 이샤, 이것은 '여자-남자(사람)'라는 뜻이다. 이것의 의미. 여자는 남자와는 성만 다르고 본성과
본질은 사람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woman, womb-man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의 의미와 규례를 직접 제정하신다(24, 창2:24, 하나님의 말씀(마19:5)).

1. 부부의 유대는 자연의 유대보다 더 강하다. 우리를 낳은 아버지와 우리를 낳은 어머니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아들은 아내와 결합하기 위해 부모를 떠나고 딸은 남편과
연합하기 위해 부모를 잊어야 합니다(시45:10,11). 더 중요한 유닛이 된다.

2. 이 관계는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관계,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

3.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애정이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엡5:28).

4. 이 둘은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혼이 되게 해야 한다. soul mate

창2:24, 하나님의 말씀(마19:5)

그러면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했다는 말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규정

결론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첫 결혼: 모든 사람들의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예표
우리의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연히 알게
됨, 결론 엡6:33

부모와 자녀들의 건강한 관계, 의무와 책임(엠펑)

성경: 6:1-4

요즘 에베소서 강해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뒷부분 성화 부분, 심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일 지난 몇 시간,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존전략

1.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15). 마지막 때의 징조들 파악
2.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16).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시간이 세상과 마귀의 것이 된다.
3.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17). 지혜로운 사람
4. 앞뒤 문맥상 여기의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다(18).
5.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한다(21)

바울은 여기의 '서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5:22-33), 부모와 자식(6:1-4), 주인과 종(6:5-9)의 관계를 설명한다.

즉 그리스도인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은 < >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 의무와 책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21세기는 마지막 시점,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4절,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오늘 설교, 어떤 분들에게는 듣기에 부담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지만 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한다.

결혼의 1차 목적

창세기 아담과 이브 창조,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명령(1:28)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명령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명령(9:1)

야곱(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 다산하고 번성하라(35:11) fruitful, multiply
다산하고 번성하려면 자녀들을 낳아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

현시대의 특징: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거부한다. 한국 가정당 출산율 0.7명

여자들도 고등 교육을 받고 직장을 갖는 경우가 많다. 나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 생활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고 자녀들을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위배하는 것이다.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

심히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령이므로 묵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를 떠나 가정을 꾸리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

자녀들의 의미

결혼하면 자녀들 출산

시127:3;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대를 잇는 상속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수고의 대가)

3절이 나오는 배경, 1-2절

1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가정을 유지하고 사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

한 가정을 풍요롭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생각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다. 세상의 부를 많이 얻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서

일하면서 육체적인 안식을 부인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보통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늦도록 앉아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늦도록 일하는 사람은 대개 일찍 일어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열중하여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잠을 안 자고라도 그 걱정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쉬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결국 위안을 얻지 못하고 슬픔의 빵을 먹는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인력함을 잃고 삶을 짐으로 만든다. 이 모든 것은 돈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런 고민 없이 마음이 편하고 매우 편안하게 살아간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적게 가지든 많이 가지든 평안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예: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자녀를 주님의 유산으로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아내와의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자녀를 받아야 한다(말2:15). 일부다처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범하는 것이고 음행이다.

4-5절: 자녀는 좋은 선물이며 가족에게 큰 지원과 방어가 된다: 화살이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강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 안전과 유익을 주는 것같이 자녀들 역시 부모와 가족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그런데 특별히 젊은 시절의 자식들이 그러하다.

나이가 들어 화살이 손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그것을 구부리기가 어렵다. 이 경우 이런 화살들은 종종 경건한 부모에게 끊임없는 슬픔을 주며 죽을 때까지 슬픔을 가져다준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시128:3 네 아내는 네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자식들은 올리브 묘목 같으리다.

잠17:6 자식들의 자식들은 노인들의 왕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자녀들의 의무와 책임

1.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영어 Obey,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하면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왜? 부모가 있어서 자녀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내적으로 부모를 존경하기 원하고 외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행하기 원하신다.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 매튜 헨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즉 주님을 위해 순종하라는 말이다.

주님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올바른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할 것이다. 여기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다섯 번째 명령(출20:12; 신5:16)

예수님의 말씀, 마15:1-9,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위선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딤후5:8)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명령이다. 1-4번 명령,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 중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자식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명령을 말하고 있다.

그 약속: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하는 일들이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즉 번영과 장수의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따라온다.

물론 읍같이 특별한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번영하고 행복을 누릴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다.

부모의 의무와 책임(4)

1.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리고 치리할 권력을 주셨지만, 부모는 자녀를 큰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자녀는 특별한 방식으로 부모의 일부이므로, 그래서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자녀에 대해 조금해하지 말고, 누가 봐도 불합리할 정도로 엄격하게 대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
주의를 줄 때, 충고할 때, 책망할 때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이유를 대고 설득하며 그들이 이성적으로 수긍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부모는 반드시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
침침들처럼 그들을 먹이는 데만 신경을 써서 양육할 것이 아니라, 교양인이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즉 교육과 훈계로 사람답게 양육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훈계로 그리스도인답게 양육해야 한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무에 대해 알려주고 격려해야 한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

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잠1:7-8
잠3:5-12
2. 바로잡는 것을 미루면 안 된다. 잠23:13,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22:15,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때여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3. 바른 길을 반드시 제때에 가르쳐야 한다. 잠 22:6,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4. 부모는 아이의 앞날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내 부모, 이복 강화, 조실부모, 무일푼, 어렵게 살았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자식들의 앞날을 막지 않았다.
대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는 약 2년 동안 신장 문제, 단백뇨가 나와 병원에 입원하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유약을 갈 상황이 되었다. 나는 맏아들, 병역 특례 졸업, 집안을 먹여살려할 입장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중, 집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었다. 대학, 대학원 다니면서 틈틈히 가게에 가서 도와드렸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런 아버지를 두고 유학을 간다고 말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의 말: “내 삶은 내가 살고 네 삶은 내가 사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너는 유학을 가라.” 어머니도 아무 말씀 안 하고 도와주심
그 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25년 이상을 건강하게 더 사셨다.
유학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옴. 아버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해라.”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지금의 나, 성경, 교회가 생겨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 거주비, 병원비 우리가 드렸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내 처)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대하는지 보고 자랐다.
또한 내가 장인, 장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들이 다 보며 자랐다.
바로 이런 데서 가정의 사랑과 우정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학과 선정, 배우자 선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 교육, 아이들의 장래 직업 생각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보다 더 나은 자식, 교육과 인간성 등이 낮도록 교육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미 부모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크리스천 가정
둘째 아이의 말: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빠 엄마처럼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부모가 되어야 그 가정에 화평이 넘칠 것이다.

결론

6:1-4를 읽자.

성경적 노사관계와 크리스천의 소명 의식(엠펜3)

성경: 6:5-9

요즘 에베소서 강해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뒷부분 성화 부분, 심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일 성화에 대한 바울의 강조점, 성령 충만해야 한다(18).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한다(21).

바울은 여기의 '서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5:22-33), 부모와 자식(6:1-4), 주인과 종(6:5-9)의 관계를 설명한다.

오늘은 <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올바른 관계, 성경적 관계, 의무와 책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소명 의식, 사유 재산, 자본주의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 한다.

21세기 노사 문제

지금 노사 갈등은 인류 역사를 통해 최고조에 다다라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기심이 문제

근로자 적게 일하는 것, 적은 시간 일하는 것, 많은 봉급과 휴가, 혜택

사용자 더 높은 생산성, 이득 창출, 회사 규율 준수 등

양측이 부담은 적게 지기 원하고 또 정부가 자기편을 들어주기 원한다.

노사 관계의 문제: 누구라도 쉽게 탐욕(이기심)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현시대의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 탐욕. 십계명의 10번째 명령, 네 이웃의 것을 참내지 말라.

갈등 악순환의 구조: 모든 사람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같은 봉급으로 쓸 돈이 부족하다. 월급 인상을 요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 세금, 국가의 빚이 늘어난다.

정부가 수입도 없는데 자꾸 돈만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온다.

잘못하면 인기 영합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나오게 된다. 중남미 국가들의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 소유가 늘어나면 탐욕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다. 전1:8,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현시대 서구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잘사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히 많다.

특히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는다. 쉬는 것, 혜택, 높은 봉급만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풀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 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해서 부를 나누어 주는 것 인간의 탐욕이 강하면 강할 수록 정부의 개입 역시 강해져야만 한다.

21세기 이기심의 절정, 결국 7년 환난기, 적그리스도의 철권통치

특징: 모든 것을 장악하여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들(계13:16-77)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이다. 인류는 결국 거기로 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간 사회 설계

그러나 하나님은 정부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인간 사회 설계: 열심히 일해서 먹고 가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창3:19,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탐욕이 발동하자 결국 하나님의 설계 목적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가인과 같이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일이 생긴다.

건강한 사회, 가정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설계 목적대로 인간 사회가 세워져야 한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노사 관계 모두 하나님의 설계 목적대로 세워져야 건강한 사회, 가정이 유지된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없다. 왜? 서로에게 복종하므로

그러나 이것이 안 되므로 하나님은 인류에게(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한 노사 관계의 규칙을 주신다.

건강한 인간 사회를 위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권위와 복종' 메커니즘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 부정부상태

이런 혼란과 혼돈을 피하려면 권위와 복종 메커니즘이 잘 움직여야 한다.

모든 인간 사회에는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leader, follower

권위 면에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하면 시스템이 망기진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용자와 근로자: 이끄는 사람, 권위가 있어야 시스템이 유지된다.

그런데 이런 권위는 남편, 부모, 사용자가 뛰어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권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청지기로서 섬기기 위한 권위이다(고전10:31).

따라서 이런 권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것이 오늘날의 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종과 주인 문제(고전7:20-24)

종과 주인(5)이라는 말이 나온다.

1차적으로 종은 그 당시 사회의 노예를 말한다.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삼분의 일이 노예였고 노예 제도는 사회에서 인정된 제도였다.

즉 종은 노예, 말 그대로 주인에게 팔려 온 존재들, 전적으로 주인의 말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들
신구약성경 어디에도 노예제 자체를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구절은 없다. 사실 노예제 등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 낸 죄의 결과물, 하님의 구약 시대 율법은 종들에게 온정을 베풀 것을 명시함

특히 신약 성경 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은 노예제를 반대한다. 바울의 사역은 로마 정부나 정부의 통치
제도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의 복음 전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의 전복으로 이어졌고 천주교를 타파하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통해 근대 시민 사회를 만들게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려 1600년의 시간이 걸렸다.

존 웨슬리와 조지 휘트필드의 복음 설교, 사회가 변화되면서 영국 미국에서 노예제와 아동 노동의 폐지,
여성의 지위 향상,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기여함

같은 맥락에서 바울의 사역은 장기적으로 노예제 폐지와 자유의 신장에 기여하였다.

우리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살므로 사도 바울 당시의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시 세상: 기독교가 파급되면서 로마 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교회는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다시 말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교회는 노예와
자유인,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평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었다.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거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갈3:28).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의미의 평등’은 몇 가지 오해와 문제도 함께 가져왔고 바울은 고전 7:17-24에서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다루었다.

바울이 제시한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고전7:20-24).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지
만 각각의 신자는 주님이 그를 구원하실 때 자기가 있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 유대인 신자는
(언약의 물리적 표식인 할례를 지움으로써) 이방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으며, 이방인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노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
도인 주인에게 자유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에게 가능하면 돈을 모아
몸값을 내고 나가서 자유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원칙은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된다. 결혼 전에 구원받지 않았지만
결혼한 뒤에 구원을 받았다. 그 결과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불신자다. 그러면 신자는 불신자를
버리고 이혼해야 하는가? 바울의 대답: 아니다.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야
한다. 바울은 여기서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루지 않았고 다만 영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이것은 당시 이교도 로마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생각해 보라. 당시 로마 제국의 삼분의 일이 노예, 크리스천 자유, 폭동,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허용될까?

로마 제국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서서히 전파됨에 따라 하나님의 자유가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늘날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이해해도 원리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크리스천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5-8)

5-8절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하면서 몇 가지 좋은 이유를 제시한다.

1.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5). 사실 그들에게는 육체에 따라 주인이 있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하늘에 계셨다(엡6:9). 직원과 고용주가 모두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을 덜 해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서로에게 더 충실해야 한다. 직원은 고용주를 적절히 존중하고(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를 이용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들의 문제: 사용자가 있어야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 사용자가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아는가? 대다수 근로자들은 이것을 모른다. 그래서 여기의 두려움과 떨림은 사용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말이다.
2. 그는 당면한 업무에 전적인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단일한 마음). 직장에서 크리스천 증인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일과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전3:22,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3. 크리스천 직원은 상사가 보고 있을 때만 일하거나 상사가 보고 있을 때만 더 열심히 일하여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눈치 보기'를 피해야 한다(6).
4. 왜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6). 기독교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꾼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므로 '진정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일을 주인을 위해 해야 한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한다.
5. 직장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임무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으려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수행해야 한다(6). '단일한 마음'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모두 직장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6. 좋은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7). 불평 없이 하라. 골3:23,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7. 왜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8. 세상일도 교회일도 다 마찬가지이다. 주님을 섬기듯 선한 일을 하면 주님께 선한 보상을 받는다. 늘 고전10:31을 기억해야 한다.

크리스천 주인의 책임과 의무(엡6:9)

기독교 신앙은 사회적 신분 또는 문화적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조화를 가져옴을 가르치지 않는다. 좋은 그리스도를 신뢰해도 여전히 종이로 주인은 여전히 주인이다.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다. 이것은 안 변한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종과 주인의 마음에서 작용하여 조화를 가져온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 종과 주인은 모두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무엇일까?

1. 그는 그들의 복지를 구해야 한다. "그들에게 같은 것들을 행하라." 고용주가 근로자들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그들을 위해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인은 결코 그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가장 훌륭한 예 중 하나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이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했다. 그러자 그들은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했다(룻2:4). 보아스는 일꾼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했고 그 뒤를 보면 이방 여인 룻을 관대하게 대우했다. 그가 좋은 주인, 사람이었음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보아스와 일꾼들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망의 관계였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상사는 크리스천인데 당신은 그 사실을 절대 모를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2. 헐박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주인들에게 처벌의 위협보다 순종과 봉사를 장려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두려움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힘은 근로자가 더 적은 일을 하게 만들며, 이런 종류의 동기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없다. 골4:1,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라. 정당하고 공정한 것은 긍정적인 동기이고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노동의 결과를 공유하면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구약 성경도 이와 같은 조언을 하고 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레25:43).
3. 주인이라 해도 그는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니라"(엡 6:9).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고(엡5:22),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엡 5:25). 자녀들은 "주 안에서"(엡 6:1)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육과 훈계로"(엡6:4) 자녀들을 양육한다. 종은 "그리스도께 하듯"(엡 6:5) 순종하며 주인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종을 대한다.

핵심: 사람일 주님을 두려워하면 자연히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서도 덕스러운 사람이 된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은 통치자가 되는 길은 먼저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25: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종도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권위를 행사할 권리가 없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자로 삼기 전에 먼저 종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느헤미야가 그 예이다.

리더가 된 후에도 여전히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마20:27).

여러 사람들의 문제

어떤 사람이 임원으로 승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직책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 그는 임원으로서의 특권 등을 모두 누렸고 직원들에게 자신이 책임자임을 상기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직원들의 존경을 잃었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사회에서 그를 교체해야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하늘에 자기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상에서 좋은 주인'이 되는 데 실패한다.

4. 주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인이든 종이든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주인이든 종이든 순종하면 상을 주신다(엡6:8). 크리스천 고용주는 단순히 자신의 지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누릴 수 없다.

결론

종과 주인과의 관계, 이것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기 섹션을 마무리한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다른 크리스천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할 때 삶의 관계에서 조화를 누릴 수 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고 증언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며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접착제이다.

가정, 교회, 사회에서 peace maker가 되기를 원한다.

크리스천의 영적 전투(엡40)

성경: 6:10-13

지난 몇 시간,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생존전략

1.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엡5:15). 마지막 때의 징조들 파악(*), (*)
파리 올림픽 최후의 만찬, 예수님 조롱, 계시록 6장의 창백한 말(7-8절)
2.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16).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시간이 세상과 마귀의 것이 된다.
3.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17). 지혜로운 사람
4. 앞뒤 문맥상 여기의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다(18).
5.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한다(21).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5:22-33), 부모와 자식(6:1-4), 사회생활: 주인과 종(6:5-9)의 관계를 설명한다. peace maker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 >,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런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크리스천의 삶은 전쟁터

성경은 크리스천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오늘,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놀이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뛰어든다.

교회에 놀러 오면 안 된다. 놀려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하는 삶, 빌1:27-30

구원받아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영적 싸움, 시작 부분, 요한의 물 침례, 곧바로 40일 금식, 40일 동안 마귀의 공격(눅4:2, 사십 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공생애 끝 부분, 겐세마네기도, 마귀의 공격, 땀이 큰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심한 싸움(눅22:44)

중요한 사실: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반대가(싸움) 더 극심해진다.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 크리스천은 이미 죄에 깊이 빠졌거나 타협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 사도행전 19장, 먼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12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1-6)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해 설교함, 2년 동안,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9-10).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기적들도 행함(11-12), 손수건, 앞치마

악한 영도 제압함(14-20), 그 결과 18-20, 죄 고백, 마술책 불태움

마귀의 극심한 저항과 반대: 23-41, 데메드리오 은 세공업자들의 선동, 바울의 동료들을 경기장으로 끌고 감, 2-3만 명의 외침, 두 시간이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 얼마나 두려웠을까? 고전16:8-9,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노니 이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다.

나도 목사가 된 지 약 24년, 이 교회 16년, 내부, 외부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

어떨 때는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도 하였다. 실제로 첫 번째 교회는 그만두었다.

맥아더 목사님의 50년 목회 요약: '쉬운 목회는 빈약한 목회'

정말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나와 우리 교회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많은 방해

맥아더 7월 14일 또 다시 심장 수술(85세), 그가 더 설교하기를 원한다.

반드시 전쟁이 생긴다. 우리 교회에 대한 공격, 목회자 개인의 문제로 생기는 전쟁인가, 아니면 말씀 때문에 생기는 전쟁인가? 목사도 알고 교인들도 알 것이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나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베드로의 말, 벧전2:19-20

심지어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1.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천사, 21일 동안 악한 영에 의해 저지를 받음, 결국 미가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도착함(단10:13)
2. 모세가 죽자 그의 몸을 두고 미가엘과 사탄이 싸움(유9).

사도 바울의 경고, 엡20:29-30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준비해야 할 것: 주님의 강한 능력(10)

10절: 세상 모든 일, 성공하려면 준비해야 한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이다.

주님과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강력한 권능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필라델피아 교회(계3:8),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힘이 약해도 주님의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빌4:13,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1:6, 7. 9, 18). 어떻게 주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나?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된다.

기도, 말씀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히13:5-6)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딤후1:6-8; 2:1)

누구와 싸우는가? 마귀(11)

정보 부대는 적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면 적을 물리치기 어렵다. 에베소서 6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이유가 없다.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힘과 갑옷이 왜 필요한가?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일을 방해하는 이 영적 창조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성경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그는 덮는 그룹, '아침의 아들 루시퍼'(사14:12-15)였으며, 교만과 하나님의 왕좌를 차지하려는 욕망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 뒤 하나님의 세상 창조, 사람 창조, 사람들 시험, 타락의 장본인

이 세상의 신(고후4:4), 이 세상의 통치자(요16:11),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엡2:2)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의 아버지(요8:44)

마귀의 간계들(11)

마귀는 간계들들 쓴다. 간교한 계략들, 그는 간교한 전술전략의 대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라. 창3:1, 간교한 자,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마4:6), 하나님의 종의 일들을 방해하고(살전2:18), 울무를 놓아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복음의 진로를 막고, 빛의 천사로 변형하여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

그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벧전5:8),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현시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1.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이용해서 한다. 인권과 평등을 내세운다. 자유자재로 간계를 쓴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 LGBTQ,
2. 큰 기적들과 이적들을 사용해서 한다(마24:24), 살후2:9-10,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란다. 그는 단지 재미로 사자와 용에 비유된 것이 아니다! 욕기는 그의 힘이 사람의 몸, 가정, 재산, 친구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예수님은 사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요한복음 10:10) 도둑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전신갑주(11)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온몸을 덮는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일할 때만 입고 벗는 유니폼이 아니라 영원히 입는 옷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토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군인들의 전투복

사도 바울은 신자와 마귀와의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군대라는 조직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1. 바울 자신도 로마 군인에게 묶여 있었다(엡6:20)
2.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귀환하는 군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실제로 바울은 군인의 비유를 즐겨 사용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고후10:4); 딤후6:12;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딤후2:3); 4:7).

선다는 말은 공격을 받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다.

마귀들(12)

사실 마귀는 창조물이고 (하나님처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지식과 활동에 제한이 있다. 하나님과 달리 사탄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사탄의 조직화된 조력자들에게 있다.

사탄의 조력자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것은 사탄이 신자들을 공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악한 군대 조직을 말한다.

천사들의 등급(권력, 권능, 통치, 왕좌 등 골1:16), 천사들의 등급

이들은 누구인가? 불신자의 사후 영 같은 샤머니즘에 빠지면 안 된다.

사도 요한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천사의 1/3이 사탄과 함께 타락했다고 암시한다(계12:4). 부정한 영들, 악한 영들

축사해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일이다. "정동수 목사, 축사 왜 안하는가?"

마귀와 마귀들에게서 벗어나려면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약4:7). 저항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반기를 든 존재이다. 우리 힘이나 말로 그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마가엘 천사장도 그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보초병이 해야 할 일: 적들을 발견하면 사령관에게 알려야 한다. 사령관의 지휘 하에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세력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가 씨름하다"(맞붙어 싸우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단순한 경기의 관중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한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싸움이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게 만들려는 마귀와 싸워야 할 때 사람들과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교회를 향한 공격, 반대한민국 세력의 국가를 망치려는 공격, 영적인 싸움이다. 기도해야 한다.

영적 전쟁의 결과는 승리이다

13절: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위치, 성령님의 내주, 영원한 구원의 안전 보장, 예수님의 부활 파워, 모든 영적인 복, 다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악한 날, 사람이 타락한 이후의 모든 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사는 때, 이처럼 악한 날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라. 금요일 '미국의 몰락'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 노아의 때 인류의 타락, 약 1,600년 정도 지나서 노아의 홍수,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창6:5-6,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홍수를 작정하심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마24:37).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크리스천의 생각, 가치, 문화를 반대하고 조롱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 바르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심히 힘들다.

이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버티고 확고하게 서야 한다.

마르틴 루터의 고백, 보름스 제국 회의

500년 전 1521년 4월 16-18일, 보름 제국 회의에 참석한 황제와 제후들은 그에게 간단한 대답 하나만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그의 개혁 사상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루터는 그들 앞에 확고하게 서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종교개혁은 내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 일으킨 것도 아니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교황이나 공회들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며 자가당착에 빠진 것을 나 자신이 목도하였으므로 나는 교황이나 공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경기록에 의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경기록의 증언이 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 나 자신이 확신을 갖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는 안전하지도, 합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오 하나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Amen.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 그리고 확고하게 서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언제까지 서야 하나?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모든 연막이 걷혔을 때 우리가 여전히 확고하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베드로의 충고(벧전5:8-9)

결론

크게 승리하면 기쁨이 매우 크다. 그런데 큰 승리는 큰 싸움에서 온다.

어떻게 싸우는가? 주님의 강력한 힘과 전신갑주를 가지고.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강력한 힘과 전신갑주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

마귀의 간교한 전술전략(엡41)

성경: 엡6:11-12

에베소서 강해 끝을 맞았다. 구원과 성화, 영적인 복 설명, 이제 마지막 부분 바울은 10절에서 '끝으로'라는 말과 함께 모든 것을 요약한다.

에베소는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 다이애나 신전 우상숭배, 최대로 악한 도시(음행 사치 등) 성도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살과 피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맞붙어 싸운다(12).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하는 삶, 빌 1:27-30

개인, 교회, 국가도 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

크리스천의 영적 전투

10절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싸워야 한다.

11절 그런데 마귀는 간교한 계략들을 사용한다.

12절, 온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공격하는 상대를 대상으로 싸운다.

우주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초자연적 전쟁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마귀의 계략들"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서 이 영적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동산에서 인간을 죄로 유인하는 데 성공한 초자연적인 적이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한 원수이다. 이 원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부활을 막으려 했던 원수이다. 이 원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으려는 비할 데 없는 악의 원수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필사적이고 전례 없는 맹렬함으로 그분을 대적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살과 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므로"(12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살과 피의 힘으로 싸울 수 없다(고후10:3-5).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갑옷으로만 싸울 수 있다.

오늘 <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마귀의 계략들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고전9:24-27, 우리는 경주장에 나가서 달리는 사람, 허공을 치면 안 된다.

마귀의 간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 일단 마귀의 전술전략을 알아야만 한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자를 대적하는데 그 중 일부는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다른 일부는 간접적이고 미묘하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 우리의 상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은 전술 교과서, 맥아더 목사님의 주석 참조
1. 가장 먼저 그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신뢰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한다. 인간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 a. 사탄은 수많은 변형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한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창3:1)
- b.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한다(3:5).
- c. 마귀의 가장 큰 소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믿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그 결과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요일5:10).
- d. 사탄은 진리의 아버지를 자신의 비뚤어진 이미지인 '거짓의 아버지'(요8:44)로 그린다.
- e. 신자가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능력, 은혜, 긍휼, 충분하심을 의심할 때 그는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모함하는 데 동참한다. 하나님의 약속(히13:5-6) 의심
- f. 신자들이 불안, 낙담, 우울, 절망에 빠지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된다.
- g. 어떤 신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베푸시는 용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

지 않는다(요일1:9). 이 경우 심지어 사탄은 심각한 우울증, 최종적으로 자살을 통해 스스로를 살해하도록 유혹하기도 한다.

h. 어린 자녀가 죽거나 영구적인 불구가 되었을 때, 남편이나 아내를 빼앗겼을 때, 자녀가 주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사업이나 건강을 잃었을 때, 사탄과 그의 마귀들은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생각을 일으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쓴 뿌리가 생겨난다.

i. 이 갈등 전쟁에는 성경의 진실성과 충분성에 대한 공격도 포함된다.

j. 욥과 그의 아내의 반응을 보자. 욥기 1장 1-3절, 은 일곱 아들 세 딸, 의인, 마귀의 전술 전략으로 모든 것을 잃음, 피부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음(2:7)

욥의 아내 2:9

욥: 2:10. 욥13:15

2. 사탄은 성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켜 하나님의 표준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버리도록 유혹함으로써 현재의 승리를 약화시키려고 한다.

a. 그의 가장 극단적인 전술은 박해이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 신자들은 신앙의 대가로 명성, 자유, 직업,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해야 했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살전2:14-16).

b. 아마도 성도들에 대한 마귀의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박해는 또래의 압력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만든다. 특히 학생들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c. 사탄은 심지어 자신의 접근 방식을 뒤집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쉽게 만들어 약화시킬 수도 있다. 고난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의존성을 잃어버리려는 경향이 있다. 가장 쉬운 환경이 신실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많다. 고난을 통해 신앙이 강화된 많은 신자들은 전장이 조용해지면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기독교는 평안할 때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3. 사탄은 교리적 혼란과 거짓을 통해 신자들을 공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기독교인은 구원, 성화, 도덕, 천국과 지옥, 재림 및 다른 성경적 진리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쉽게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가 교리의 바람에 쓸려 다니기 때문이다(엡4:14).

a. 마귀는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노력을 포기하게 만든다. 성경은 목사만 이해할 수 있다! No!

b. 신자들은 설교자와 교사가 교리에 대해 상충되고 심지어 모순되는 해석을 하는 것을 들으면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두려움이 더욱 강화된다. 영해의 문제, 동일 구절, 다양한 해석

c.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대신 거짓 목자가 이끄는 대로 기꺼이 양이 되어 길을 잃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돈을 보낸다.

4.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섬기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그들을 공격한다. 그는 성도들의 모든 신실한 삶과 모든 효과적인 사역을 반대한다.

a. 그는 '많은 대적들'(고전16:9)을 통해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반대했고 심지어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어 그를 넘어뜨리게"(고후12:7) 했으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방문하려는 사도의 계획을 방해하기도 했다(살전2:18).

b. 그러나 주님은 그 가시를 사용하여 바울을 겸손하게 함으로써 바울의 사역을 강화하셨고 그 방해를 사용하여 다른 곳에서 우선순위의 사역을 이루셨다.

c.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을 약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불철주야 뛰고 있다(벧전5:8-9).

5. 사탄은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신자들을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치위 위해 간절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고(요17:11, 21-23) 신속하고 기꺼이 서로 화해하라고 명령하셨다(마

5:24).

- a. 고린도 교회의 분열보다 더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것을 증언하는 것은 없다(고전 1-3장 참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파, 그리스도 파(고전1:12-13; 3:3)
 - b. 에베소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화평의 때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3)는 것이었다.
 - c. 교회가 아무리 큰일을 해도 지체들 간에 다툼과 불화가 있으면 사실 헛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열된 모습이 나타나면 마귀의 공격임을 알아차리고 돌이켜야 한다. 특히 교회의 리더들
6. 사탄은 신자들이 자기의 자원을 신뢰하도록 설득하여 신자를 공격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 a. 대상21:1-8, 다윗이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다스리고 적들을 물리치자 "사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했다." 이때에 다윗은 과거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자원을 군사로 세기로 결심했다. 7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8절, 이때 다윗의 고백을 보기 바란다.
 - b. 신자들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유효하게 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기 쉽다. 우리의 신학이 아무리 정통적이고 포괄적이며 이해의 성경적 토대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에 의지하고 끊임없는 믿음과 의존적인 기도 속에 살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영적 대적들에게 취약해진다.
 - c.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 성도들은 렉크만과 말보회의 교리들을 조심해야 한다.
 - d. 올바른 헌신, 올바른 삶이 없는 올바른 교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함정이다. 주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신뢰하는 사람은 사탄의 손에 놀아난다(잠3:5).
 - e.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보라. 몇 년 만에 그 교회는 정통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차갑고 기계적으로 변했다(계2:4). 처음 사랑을 버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헌신, 성화된 삶이 없는 올바른 신학은 교회나 성도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 f. 많이 안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생긴다. 안하무인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7. 사탄은 신자들을 위선으로 인도하여 공격한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 마귀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종교적 불신자들과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진짜 신자들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다. 내면의 영성보다 외적인 평판에 더 신경을 쓰는 신자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위선이다. 우리의 죄와 영적 약점을 주님께 가져와 정화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경건의 가면으로 덮는 것은 사탄의 놀음에 놀아나는 것이다.
- a. 예수님의 가장 무서운 책망, 위선자들에 대한 것, 마23:13-15,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8. 사탄은 신자들을 세속적인 것으로 이끌고 세상에 동화되게 함으로써(롬12:2) 신자들을 공격한다. 특히 변영의 시대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물질주의, 자기만족, 방종, 쾌락주의,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만족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 a. 요일 2:15-17

이 시대의 위험한 것들

마귀는 간교하다.

1. 천주교, 마틴 로이드 존스, 천주교는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

바로 오늘 성경 구정, 마귀의 간계들,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제 크리스천 지성인들은 불가피하게 로마 카톨릭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개신교)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회의가 개최됩니다. 또 이 같은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 즉 로마 카톨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이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어떤 측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자체가 크리스천 정신을 놀랍게 구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바로 이 같은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앞날을 내다볼 때 이 문제가 긴급한 문제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모종의 개연성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로마 카톨릭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에 달할 것이며 그럴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의 체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주의로 알려진 이 체제야말로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심하게 이탈된 체제이므로 저는 주저하지 않고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과 더불어 이 체제를 '배교 체제'라고 단언합니다.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다. 어떻게, 기독교 교리에 항상 무언가를 더한다.

1. 성경(교황과 전통), 2. 삼위일체(마리아), 3. 믿음(행위)

2. WCC,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

WCC 신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카톨릭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저런 종교를 믿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서는 부연 설명한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이며, 신은 같으며, 같은 신으로 부터 나온 인류이기에 종교만 다를 뿐 같은 형제이고, 형제종교이며 이웃종교이기에, 종교간 대화, 교제, 화합, 존중으로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류 사회를 평화케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요17:21).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종교 통합(*)

3. 오순절은사운동, 신사도운동 베니헨, 요즘 박혁이라는 사람, 티셔츠 판매 영어를 잘한다. 인물이 잘 생김

나무위키, 기독교가 아니라 신흥종교, 1993년생, 중앙대 연극영화과

박혁의 유튜브 채널(구독자 10만 명)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영상들이 많은데, 이 외에도 유튜브에 자신이 어떤 물건에 영적으로 기름을 부으면 그 물건이 지닌 영적인 에너지에 의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다는 영상, 자신의 집회에 참석한 어느 신도에게 금가루와 기름이 초자연적으로 떨어졌다는 영상 등을 올려 진정성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박혁은 자신이 지닌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임파테이션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임파테이션은 교계에서 신학적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사상이다. 구원, 사랑 등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길 원하시는 은혜 이외의 것을 어떤 절차를 따르면 100퍼센트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주류 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주장으로 본다.

뒤로 쓰러뜨리고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한다. (*) 한 장에 13만원, 티셔츠가 왜 이리 비싸냐? 하늘의 가치가 담겼다. 하늘의 DNA가 담겼다.

빠지는 사람들: 바울도 장막을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았느냐? 바울도 장사했다.

결론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전술전략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방어는 단순히 그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엡6:13)고 말한다. 온 몸을 두르는 갑옷, 공격 및 수비용

부분적인 갑옷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귀의 간계들을 구분하고 성경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되기를 원한다.

wcc, <http://www.agoragen.com/?p=4900>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가지 장비(엡4:1)

성경: 엡6:13-17

이제 에베소서 끝 부분, 바울은 10절에서 '끝으로'라는 말과 함께 에베소서를 요약한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영적 투쟁이다.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에 간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10절: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11절: 마귀의 간계들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12절: 살과 피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맞붙어 싸우므로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 < >, 악한 날에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체적으로 전신갑주, 6개 장비 설명

전신갑주

13절: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전신갑주의 뜻, 갑주와 갑옷, 갑옷: 싸움을 할 때 적의 창검이나 화살을 막기 위하여 입던 옷.

갑주: 갑옷과 투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주는 투구 주

전신갑주: 투구를 포함해서 전투에 필요한 모든 갑옷, 온 몸에 두르는 모든 장비

14-17절에서 바울은 전신갑주에 포함된 6가지 장비를 언급한다. (*)

1. 진리의 허리띠(허리), 2. 의의 흉갑(가슴), 3. 화평의 복음의 신발(발), 4. 믿음의 방패(우리의 전방), 5. 구원의 투구(머리), 6. 성령의 검(손)

1. 진리의 허리띠(14) (*)

허리는 사람이 일할 때 버티고 서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허리가 아프거나 약하거나 느슨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영적 전투에 나가는 군인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허리가 강해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전투하러 나갈 수 있다.

바울은 허리를 매는 띠가 바로 진리라고 말한다.

즉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다. 기독교는 진리, 다른 종교/철학/사상은 비진리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진리만을 말하고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세상의 신, 통치자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버지'(요8:44)이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말투성이, 영적 전쟁은 성경의 진리로 마귀의 거짓말을 알아내고 부수는 것이다.

신자의 삶에 거짓말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삼하11장 다윗의 밧세바 사건, 그는 1년이 넘도록 밧세바와의 간음죄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시32편과 51편은 그가 치른 대가를 말해 준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요8:32).

인간은 죄, 사망, 마귀, 지옥에 갇혀 있다. 여기서 우리를 풀어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이다.

딤후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진리의 허리띠는 나머지 갑주의 다섯 가지 무기들을 제자리에 고정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진리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일상의 영적 전쟁(&), 토기장이 출판사, 데이비드 폴리스,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술한 진리는 인간의 경험과 상상 밖의 것을 말한다.

이 진리는 사람이 꾸며낼 수 없는 사실,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다.

기독교의 핵심 혹은 진리: 고전15:3-4, 1.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3.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엡2:8-9).

4. 그리고 성령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에베소서 1장의 핵심은 바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다.

이 진리가 없으면 아예 전투 자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의 허리띠가 당연히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한다.

왜?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고전15:14)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거할 것이며(고전15:17) 죄와 어둠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다. 따라서 그분이 성도와 교회의 허리띠이다.

고후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우리는 진리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묶고 세상과 육과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2. 의의 흉갑(*)

개역, 개정개역,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호심경: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 조각. breastplate, 가슴 부분을 막아 주는 갑옷

그러나 여기의 흉갑은 가슴 갑옷을 뜻한다.

흉갑: 금속판이나 쇠사슬로 만든 이 갑옷은 목부터 허리까지 앞뒤로 몸을 덮었다.

의의 흉갑은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흉갑처럼 우리의 모든 중요한 장기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한다.

특별히 흉갑은 심장 보호,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의 흉갑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의(고후5:21)를 뜻한다. 이런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이다. 이 의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적인 의를 말한다. 바울의 소원, 빌3:8-9

육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이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할 때(너 구원받지 못한 자야 등)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다.

동시에 의의 흉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의로운 삶을 상징한다(엡4:24).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위치적인 의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인 의가 없으면 사탄에게 우리를 공격할 기회만 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즉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

엡5:8-10을 보라. 성령의 열매는 의와 진리의 결과물이다(9). 그래서 의의 흉갑은 올바른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노사 관계 등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가슴이 뚫리면 위태롭다.

크리스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받음, 그분의 의를 입을

의의 흉갑을 들렀으면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한다.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요2:14-17)

한 잔의 냉수, 건설적인 말, 각종 선한 행위(2:10), 이것들이 의의 열매로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3. 화평의 복음의 신발(15절) (*)

로마 군인은 전투에서 더 나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밀창에 못(징)이 박힌 샌들을 신었다.

우리가 악한 날에 버티고 서려면 바로 이런 신발이 필요하다.

이 신발의 이름: 화평의 신발

인생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 화평: 불안, 우울증, 공포는 21세기의 가장 흔한 증세

복음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화평(롬5:1)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나 사람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약4:1-7).

하지만 신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는 매일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불신 세상에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크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면 사52:7과 롬10:15에 언급된 "아름다운 발"을 갖게 된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사탄은 전쟁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화해하게 하는 사명을 지닌 화평의 대사들이다(고후5:18-21).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간다.

4. 믿음의 방패(16절) (*)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조그만 손방패가 아니다.
이 방패는 보통 가로 0.9m, 세로 1.2미터 되는 큰 방패로, 나무로 만들어졌고 질긴 가죽으로 덮여
있었다. 병사가 방패를 들고 있으면 창과 화살,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 방패의 가장자리는 다른 병사의 방패와 맞물려 단단한 벽처럼 적에게 진격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임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신뢰, 즉 살면서 우리가
지니는 믿음을 말한다.

믿음은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이다.

사탄의 불화살(*)

바울 시대에는 인화성 물질에 담가 불을 붙인 화살을 적을 향해 쏘았다. 사탄은 거짓말, 신성 모독적인
생각, 타인에 대한 증오심, 의심, 죄에 대한 불타는 욕망 등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불화살'을 쏘아댄다.
마귀의 공격에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죄로 인한 구원의 상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우리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러한 불화살을 끄지 않으면 내면에 불이 붙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 사탄이 언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걸으며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한다.

5. 구원의 투구(17절).

병사들은 두꺼운 가죽이나 놋쇠로 만든 투구 모자를 머리에 썼다. 보통 깃털로 된 장식이 있다(*).
투구의 용도는 칼이나 곤봉, 전투용 도끼의 타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여기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살전5:8을 보면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흥감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투구가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보호했듯이 구원의 소망은 영혼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다. 군인은 승리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잘 싸우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도
최종 구원의 소망 없이는 적과 싸울 수 없다.

또 동시에 구원의 투구는 성화 과정 속에서 머릿속의 생각의 문제를 다룬다.

사람의 문제, 마음 혹은 생각, 다 머리에서 나온다.

사탄은 이브를 무너뜨린 것처럼 마음을 공격하려고 한다(창3장, 고후11:1-3).

구원의 투구는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머릿속 생각들을 보호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에 집중하게 하여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게 한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마음 혹은 생각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인(합리적) 사람이 되고 상식적인 사람 즉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성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봉사,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께서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때 사탄은 신자를 타락으로 이끌 수 없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의
의미를 배우는 그리스도인은 쉽게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롬12:1-2, 딘후2:15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엡4:21). 우리는 "은혜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해야 한다(벧후3:18).

바울은 사역하는 곳마다 새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쳤고 그 결과 구원의 투구 즉 생각의 변화는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위어스비 목사님의 증언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어느 지역 교회의 집사였지만 거짓 승배에 빠지고만 한 남자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식탁에 앉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보여 주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거짓에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이단에 빠지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교회는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교회는 저를 집사로 만들었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제게는 너무 큰일이었죠. 그러다가 어떤 남자가 라디오를 통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뭔가 아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의 잡지를 읽고 그의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가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역 교회가 그를 받아들였을 때 구원의 투구(생각하는 능력)를 씌워주지 못한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다. 딘후2:2에 나오는 진리를 실천했다면 이 남자는 전투에서 사상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딘후2:2).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신천지, 안상홍 등이 왜 이 땅에 성행하는가?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일, 노래, QT, 신사도

올바른 교리를 통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 생기지 않으면 위선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딘후2:15

6. 성령의 검(17절). (*)

성령의 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이다. 로마 군인은 허리띠에 짧은 칼을 차고 있었는데 이 칼은 근접 전투에 사용되었다. 물론 긴 칼도 있었다.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는데, 그 이유는 예리하고 날선 검이 육체를 찢러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속사람을 찢러 쪼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육신의 칼이 아니라 성령님의 칼을 사용해야 한다.

물질적인 칼은 몸을 찌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찌른다. 육신의 칼은 사용하면 할수록 무뎠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다. 육체의 검은 군인의 손이 필요하지만 성령의 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기"(히4:12) 때문에 그 자체의 힘이 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사용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휘두르신다. 육체의 검은 상처를 내어 해치고 죽이지만, 성령의 검은 상처를 내어 치유하고 생명을 준다.

그리스도의 본,

그분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적을 물리치셨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니라"(마4:1-11)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4, 7, 10절).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록된 바"(4:6)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인용하지는 않는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우리는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벰전5:8-9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마귀의 계락을 완전히 알거나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사실, 그리스도인 군인은 그 순간 하나님의 갑옷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위험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에베소서 6:14-17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무리의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자녀에게 공급하시는 여섯 가지 장비, 전신갑주에 대해 이야기한다.

6가지 전신갑주 장비(*) 1. 진리의 허리띠, 2. 의의 흉갑(가슴), 3. 화평의 복음의 신발(발), 4. 믿음의 방패(우리의 전망), 5. 구원의 투구(머리), 6. 성령의 검(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요14:6), 우리의 의(고후 5:21)이시고 우리의 화평(엡 2:14)이시다. 그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고(히 12:2),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며(눅 2:30), 하나님의 말씀이시다(요 1:1,14).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갑옷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롬 13:11-14) 깨어나서(롬 13:11) 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롬13:12)고 말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롬13:14) 이를 수행한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기도와 간구 그리고 격려의 교제(엡43)

성경: 엡6:18-24

에베소서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

에베소서 끝 부분, 바울은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 정의한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영적 투쟁이다.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에 간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10절: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11절: 마귀의 간계들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12절: 살과 피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맞붙어 싸우므로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13절, 악한 날에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14-17절, 구체적으로 전신갑주에 포함된 6가지 장비를 언급한다. (*)

1. 진리의 허리띠(허리), 2. 의의 흉갑(가슴), 3. 화평의 복음의 신발(발), 4. 믿음의 방패(우리의 전방), 5. 구원의 투구(머리), 6. 성령의 검(손)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사용해야만 한다.

카메라 휴대폰, 구매하면 매뉴얼을 읽듯이 성경을 읽고 장비들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 >, 영적 전쟁의 마무리는 기도와 간구, 교제와 격려, 이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

기도와 간구(16-20)

18절의 praying이라는 동명사는 앞에 있는 것들과 붙어 있다.

즉 전신갑주의 6가지 장비들을 사용하되 기도하면서 사용하라는 말이다.

장비들은 호흡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간구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성경 말씀은 더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기도가 약해졌다.

기도가 약해졌다는 말의 의미: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방언 기도, 열심 기도 등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기도는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르고,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정의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주제다. 오늘 기도에 대한 가장 평균적인 가르침,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유튜브, 정동수 목사, 개인 기도, 대표 기도 바로 하기

기도란 무엇인가?

정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에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대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 인에게는 기도가 혼의 생명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욥21:15; 시10:4).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셨다.

기도 자세, 횃수 등은 에스라 사전 기도 항목 참조

나의 정의: 인간이 연약하므로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에게 자기의 모든 간청과 호소를 올리는 것
세 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에게 간청하듯

그러나 나이가 들어 성숙하면 자기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을까 고민하고 합당하게 요청한다. 이런 변화가 생긴다.

예수님의 말씀:

마6:5-13, 31-34

마7:7-8,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

현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21세기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 그리스도인들, 박해와 고통을 모른다.

자기만족, 잘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

이런 것을 피하라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 쓴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복(엡1:2),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4:30), 영적 전쟁 도구(6:14-17)

이런 것이 다 있어도 기도 즉 호흡이 없이는 살 수 없다.

18절의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간구는 특별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따라서 기도와 간구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말이다.

바울의 초점: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전투에 임할
수 없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투하는 것이다. 즉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신 분을 의식하라는 것이다.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 나 포함해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속한 많은 성도들의 특징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다.

다만 기도를 양으로 평가하려 하지 말라.

바울의 기도 방법(18)

1.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분명히 “형식적으로 항상 기도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열두
제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외우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헛된 반복이
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마6:7,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기도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투쟁하며 살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다. 시험과 유혹이 있으면 물리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사한다. 악한 것을 보면 고쳐 달라고 기도한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쓰일 수 있다는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불신자를 만나면 그를 위해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즉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요일1: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천국에서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는 말씀도 동일한 것을 말한다.

2.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

기도에는 기도, 간구, 중보기도, 감사 등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다(빌4:6, 딤후2:1).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된다. 중보와 감사 기도도 있다. 찬양의 기도도 있다. 사실 찬송가만큼 좋은
기도도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 자신의 삶에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셨고 또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셨다.”(욥42:10).

3.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성경의 공식은 우리가 아들을 통해,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롬8:26-27은 오직 성령님
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쓸데없이 방언으로 랄라랄라 하라는 것이 아니다.

데굴데굴 구르거나 뒤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기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말이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특새 등 변영 신학 기반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다.

4. 깨어서 기도하라(그 일에 깨어 있고).

watch라는 말을 파수를 본다는 말이고 “깨어 있다”는 뜻이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구절은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고 있을 때 적들이 공사를 막으려 하자 느헤미야는 깨어 기도함으로써 적을 물리쳤다(느4:9). “깨어 기도하는 것”은 세상(막 13:33), 육신(막 14:38), 마귀(엡 6:18)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다.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마귀의 계략들, 세상 변화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목사도 가르쳐야 한다.

벧전5:8-9,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5. 인내로 기도하라.

모든 인내의 인내는 말그대로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이렇게 기도했 고(행1:14, 2:42, 6:4)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롬12:12,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한다는 것은 때를 쓰고 줄라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염려와 부담감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다. 눅18장의 과부 이야기(눅18:7-8)

6.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딤후2:2 왕과 총독들(딤후2:2),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 여기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기도하며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바울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내 기도가 다른 신자가 사탄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승리는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바울의 기도의 구체적인 예(19-22)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19-22)

지금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 그러므로 성경의 대다수 기도는 영적인 힘과 보호, 치유를 위한 것이다.

물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 기도의 초점은 대개 영적인 것이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발목이 아프고 여러 군데 상처가 있으니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

교회에서도 정말 별것 아닌 것을 두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듣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제때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였다(엡3:3).

사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자기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마귀와 그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육신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도움과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였다.

왜? 그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였나?

1. 그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나간 리더이다. 그러므로 리더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마귀는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교사 등 리더를 무너뜨리기 위해 집중 공격한다.

스필전의 말: 나와 교회 그리고 사역이 있게 된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덕택이다.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 감사하다.

늘 더 많이 목사와 그의 처를 위해 기도하기 바란다. 쓰러지지 않도록.

그 결과 잠시 후의 빌립보서, 빌1:12-14

2.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정보 없이는 자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또는 지혜롭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21절을 덧붙였다. 엡6:21

소아시아 사람 두기고는 바울과 다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가져갈 때 동행하도록 선택되었고 (행20:4-6), 바울이 처음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그와 함께했으며 사도가 선교 일로 자주 파견한 사람이었다(딤후4:12, 딤퓌3:12 참조). 그는 바울을 위해 이 편지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전달했는데 두 경우 모두 수신자에게 사도의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골4:7-9). 이 두 본문에서 그는 바울에게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렀다.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로 칭찬을 받았던 두기고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바울의 상황을 알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내어졌다.

왜 두기고를 보냈나? 바울은 최근까지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의 개인적인 말이 그들의 마음에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슬에 묶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했다는 것에 유의하자.

이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 일인가! 신약성경 어디에도 고립된 신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양과 같아서 함께 무리를 이룬다. 교회는 하나의 군대이며 병사들은 함께 서서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가 당하는 심한 육신의 질병,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자.

편지 마무리(23-24)

바울은 마지막 축복 기도에서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충실히 담고 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용한 단어인 화평-믿음-사랑-은혜에 주목하자!

23절: 화평(1:2; 2:14-15, 17; 4:3; 6:15 참조), 사랑(1:15; 4:2, 15-16; 5:25, 28, 33 참조), 믿음(1:15; 2:8; 3:12, 17; 4:5, 13; 6:16 참조)은 이 위대한 서신을 생각할 때 반복되는 위대한 말들이다.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모아 이것들이 모든 신자들의 체험이 되기를 기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24절: 은혜, 즉 하나님의 호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는 사랑(순전한 사랑, 혼합되지 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울이 바라는 선물이었다.

결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전해 주는 화평, 사랑, 믿음의 원리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순종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영원히 임할 것이다.

그는 로마 제국의 죄수였지만 황제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는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화평과 은혜 안에 거하자